



주간 중국 창업

제 176 호 (2020. 4. 22)

발행처 : 한국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 이상운

전화 : +86-10-6437-7896
메일 : info@kicchina.org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중국'에 있습니다. 출처 밝혀주시고 무한 활용하십시오.

주간 NEWS

- ▶ Zoom 의 유출사고, 안전수위 문제로 이어져 (봉황과기, 2020.4.10)
- ▶ IMF 중국경제성장 예측 2020 1.2%, 2021 9.2% (신량재경新浪财经, 2020.4.17)
- ▶ 명암 엇갈리는 기업들, 코로나 19 가 바꾼 익숙했던 세계의 변화 (봉황과기, 2020.4.18)
- ▶ GDP 수치로 알아본 중국 경제 상황 (이오왕亿欧网, 2020.4.17)

ISSUE 및 시장동향

- ▶ 이슈 온라인마케팅: 인기절정인 사적 영역 트래픽은 얼마나 오래갈까?
— FN 비즈니스(FN 商业) 제공
- ▶ 텐센트, 알리바바 이후 소니도 4억 달러 들여 B 스테이션에 진입 — 후씨우왕(虎嗅网) 제공
- ▶ 전염병 상황으로 조망한 인터넷 여왕의 미래 근무 추세 보고서 — 재련사(财联社) 제공
- ▶ 양자컴퓨터 시리즈 43) 양자 컴퓨팅 진입 병목 현상 감소 — 중국과학보(中国科学报) 제공
-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 PLAYCOIN 제공
-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122) — 윤형건 교수 제공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 코로나로 드러난 '일본경제의 취약성'의 근본원인 (동양경제온라인, 2020.4.16)
- ▶ 반복되는 '거품붕괴'로 속이 드러난 아베노믹스는 진흙탕 (DIAMOND, 2020.4.15)
- ▶ 이 상황에서도 "긴급사태 다음"의 논의를 피하는 일본인들의 위험한 낙관주의 (President Online, 2020.4.14)
- ▶ 코로나위기가 부추기는 반글로벌화와 국내회귀 (동양경제, 2020.4.14)
- ▶ 코로나쇼크로 빙하기세대가 재차 직면하는 '위기적 상황' (현대비즈니스, 2020.4.15)
- ▶ 관료에 모든 걸 내 던진 아베총리와 메르켈수상과의 차이 (주간아사히, 2020.4.14)
- ▶ 코로나사태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 방관하는 일사회의 어둠 (현대비즈니스, 2020.4.18)
- ▶ 마스크 브로커가 폭로 '세계적 쟁탈전에 패하는 일본 정부'의 실정, '공급 증가'는 거짓이다
(AERA, 2020.4.13)
- ▶ 【컬럼】신형코로나, 정부 발표 데이터를 의심하는 10가지 이유 - 오닐 (Bloomberg, 2020.4.15)

“코로나19 대응” 중국 중앙정부 정책

◆ 과학기술

- ▶ 후춘화 국무원 부총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일자리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 (2020.2.14)
- ▶ 생태환경부: 식수 수원지의 수질, 전체적으로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음 (2020.02.23)

◆ 금융

- ▶ 각급 재정 배정 자금 718억 5천만 위안 전염병 방지에 사용 (2020.2.11)
- ▶ 세무총국: 세관조율 적극 조정, 기업난 해소에 도움 (2020.2.11)
- ▶ 재정부,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법 시행과 재정자금 관리 강화 (2020.2.19)

◆ 의료

- ▶ 중국 국가위생위원회 판공청,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판공청: 코로나19 등 전염병 방제에 있어서 건전한 중의학 협력 체제를 확립 (2020.2.12)
- ▶ 국가 보건건강위원회: 화상전화 회의 소집, 전면적 등급별 전염병 방지 대책 발표 (2020.2.25)

◆ 정책

- ▶ 《코로나19 고위험지역 및 감염노후기관 통제지침》 발간 (2020.2.26)
- ▶ 민정부 출범-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담화 정신 및 코로나19 방지와 현 민정사업의 일괄 추진에 관한 의견 (2020.2.28)

◆ 취업

- ▶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판공청, 코로나19예방 통제 기간 인력자원 서비스 관련 사업을 실제로 잘 할 곳에 관한 통지 (2020.2.21)

주간 NEWS

1. Zoom 의 유출사고, 안전수위 문제로 이어져 (봉황과기, 2020.4.10)

재택근무와 온라인 학습이 생활의 우선 선택이 되었으나 적지 않은 국가의 네티즌들이 '이 영상은 내가 본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어서 벌어지는 상황은 전혀 뜻밖이다.

클라우드 화상회의의 협업도구 Zoom 사용량이 폭증하며 이어진 발전은 도리어 중대한 보안상의 유출이 네티즌에 의해 의심되었고 심지어 FBI 가 경고하게 되었다.

사실 일찍이 2019 년 7 월 Zoom 소프트웨어의 암호화 결함은 보도된 적이 있고 단기간내 사용자가 2 억명을 돌파함에 따라 마침내 브랜드의 제방을 무너뜨렸다. Zoom 의 '선천적 bug'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보안 암호화 방법이 엄격하지 않아 수만 개의 개인 Zoom 비디오가 공개 웹 페이지에 업로드되고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일부는 회의 참가자의 개인 정보를 포함했다.

심지어 해킹 공격을 받기도 하고 ('Zoom 폭격'이라고도 함), 여러 Zoom 온라인 강의실과 전화 회의 중에 종종 인증 차별 주의자 또는 포르노 콘텐츠를 재생하기도 했다.



사진 1)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이는 맹렬한 증가를 얼마 못 가게 했으며 Zoom 플랫폼은 SpaceX, NASA 등 기관의 사용 금지 처분을 받게 되고, 뉴욕시내에 있는 모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에 사용 금지를 받게 되었다.

어떤 전문 인사는 Zoom 클라우드 단말 회의의 기술안정성을 철저히 재건해야만 회의 내용과 전 과정의 보안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으나, 업데이트와 조정을 중단하고 90 일내 이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비록 Zoom 이 이 기회를 실추했지만 주목해야할 것이 원격사무 산업은 위기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 않다. 역대량을 탑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필경 견고한 성체이자 난공불락이다.

Zoom 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회의 소프트웨어의 보안 수준은?

먼저 Zoom 이 문제가 된 핵심 원인으로 돌아가 보면 첫번째가 기술 본연의 결함이다.

창립자겸 CEO 인 위엔정(袁征)은 "우리들은 암호화 설계를 더 좋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해외창업팀으로서 Zoom 은 억급 규모 사용자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는 내부 안전 설계에 선천적 결함을 존재하게 한다.

Pomerantz 법률사무소가 제기한 Zoom 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도 핵심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Zoom 이 충분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회사의 영상 통신 서비스는 엔드 to 엔드 암호화가 없고 회사 업무 운영과 규정 준수 정책에서 중대한 허구와 착오를 저질렀다고 서술했다.

왜냐하면 Zoom 이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AES-256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엔드 to 엔드 암호화를 한다고 했으나 토론토대학 연구원은 Zoom 이 사실상 더 취약한 AES-128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진행하는 '전송' 암호화라고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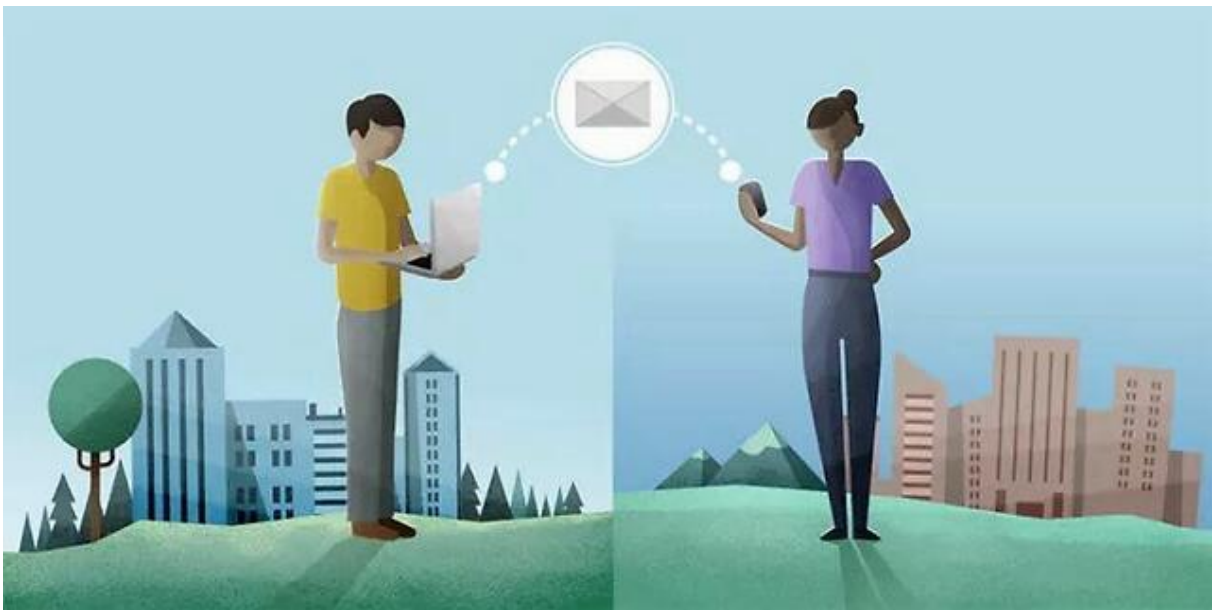


사진 2)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해커가 화상 회의의 약점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는 전송 데이터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안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더 높은 보안 수준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적 암호화"는 추가 컴퓨팅 전력 비용과 리소스 요구를 가져온다. 서비스 제공측의 안전 의식과 기술 수준에서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한다.

두 번째는 플랫폼의 데이터 인식을 방해하는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 전신 서비스 제공 업체는 모두 이러한 통신 데이터를 얻을 수 없으므로, 데이터 구동으로 운영 유지되는 전략이 많이 수요되는 플랫폼으로서는 중요한 데이터 자양분이 부족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용자 오디오와 비디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Zoom 은 사실 수준에서 보다 쉽게 수정하고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한다. Zoom 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Starberg 는 갑작스러운 "트래픽 피크"에 직면했을 때 임원들은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직접 말했다.



사진 3)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Zoom 의 문제는 또 다른 결함, 즉 제품 사유의 결함이다

창업한지 2 년이 안되는 플랫폼 Zoom 은 제품 세부사항을 완전히 고려하지 못했고 안전 우려를 물어버렸다.

예를 들어 회의 진행자는 참가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없이 영상을 녹화할 수 있으며 Zoom 서버 또는 임의의 클라우드 단말, 공개된 웹사이트에 보관할 수 있다. 더구나 녹화된 Zoom 영상 모두 동일한 이름 방식으로 저장된다.

이것은 2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명명규칙이 매우 해독되기 쉽고 네티즌은 일부 네티즌은 무료 온라인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오픈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간을 스캔하고 한 번에 15,000 개의 비디오를 검색했다.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권익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만약 사용자가 Facebook 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 Zoom 에 로그인하면 공간이 의도치 않게 공개 방문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신의 YouTube 상에서 Zoom 영상을 찾을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소기업의 재정 회의, 초등 학생을 위한 온라인 강의, 심지어 가정 내부의 사적인 대화 등까지도 보여지고 있다.

전 Facebook 보안 주관, 현 스탠포드 인터넷 천문대(Stanford Internet Observatory) 책임자 Alex Stamos 은 말하길, Zoom 의 문제는 멍청한 디자인에서부터 심각한 제품 보안 결함에까지 이른다고

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한 후 Zoom 은 업데이트 중단, 개인 정보 보호, 보안 문제에 중점 두기, 교사만 화면 공유를 허용하게끔 학교의 기본 설정을 변경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취했다.



사진 4)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당연히 이러한 서방 언론의 말과 글에 의한 폭발식 고발은 Zoom 의 중국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편으로 동종 산업 경쟁상대인 Avaya, 쓰커(思科)와 마이크로 소프트 등 기업과 비교하면 Zoom 의 원가 우세는 개발인력이 모두 중국에 있다는 것이고, '데이터 흐름이 중국 서버를 거칠 수 있다'는 것이며, 영국방송사 등의 언론도 충분히 민감한 화제로 다룬다.

이외 1~3 월 글로벌 증시의 블랙스완 기간 Zoom 의 주식가는 오히려 100% 넘게 뛰어올랐고 시장 가치는 두 배가 되어 창립자인 중국이민자 위엔징(袁征)은 부가 77%증가했다. 이번 '폭로'는 반드시 해외 매체의 전염병기간 정서 방출인 것은 아니다.

클라우드 시대 인터넷 안전,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기술 도구

그렇다면 원격회의 안전 수준은 도대체 얼마나 높아야 하는가? 나는 이번에 본토 소프트웨어가 좋은 답을 주었다고 여긴다.

중국 국내 주류 클라우드 판매사의 발전 추세로 보면 억급의 사용자 규모를 만족하는 회의 플랫폼, 그 안전 책략은 네 부분에서 구현된다.

하나는 클라우드 원래의 안전으로 전면적인 방어다.

오늘날 많은 원격 화상 회의는 모두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클라우드 정보 보안 보장은 회의 시스템의 최우선 과제다.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혼합 클라우드 등과 같은 여러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인터넷 회사는 서로 다른 리소스 관리, 일관되지 않은 보안 전략, 서로 다른 기본 아키텍처 및 다른 보안 도구에

대면하고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조성되는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운영 유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점점 더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가 통일되고, 전면적으로 커버하는 방식으로 안전 설계를 진행해 네트워크의 보안 수준을 클라우드 원래 수준으로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

두번째는 전 장면을 커버해 실시간 감시 관측하는 것이다.

안전 구조상, 클라우드 플랫폼은 내부 신분 입장, 물리적 보안, 하드웨어 보안, 사이버화 보안 등을 전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 장면 속에서 주로 다음 몇 가지 종류가 있다.

1. 업무 보안. 간단히 말해 고객의 인터넷 내용, 신분 증명 등에 대해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다. 자동으로 포르노 콘텐츠의 업로드를 감별하거나, 정책 레드라인 방지 등을 말한다.
2. 응용 보안. 앱의 운영 환경, 사용자 서비스, 데이터 보호, 암호키 관리 등에 대해 클라우드에서 전체인에 대한 고도의 암호화로 Zoom 과 같은 데이터 유출 상황을 피한다.
3. 기초 보안. 이 점은 보통 사용자가 감지하지 못하는 기초 구조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호스트 서버의 재해 복구, 중간재 및 타사 구성 요소의 고위험에 대한 취약성, 해커가 시작한 네트워크 공격에 신속하게 차단하고 복구하는 것이다.



사진 5)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세번째는 스마트 연결, AI 사용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클라우드도 산업 보안에 대해 더욱 까다로운 새로운 요구를 제기한다. 이는 AI 무기를 장착한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사가 아마존 등에 충격을 가하기 시작하게 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일부 Zoom 비디오의 노출은 비디오를 보호되지 않은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사용자가 실수로 공개 접근으로 변경하여 일어났다.

주의할만한 것은 아마존을 빠르게 기습한 구글 클라우드이건, 중국 국내의 화웨이 클라우드•바이두 스마트 클라우드•알리바바 클라우드 지능이건 모두 AI 는 자체 클라우드 솔루션의 핵심 기능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 를 통해 취약점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보안 검사 및 취약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즉시 공격 활동을 모니터링한다. NLP 기술을 사용하여 위협 정보를 정합하고, 노출된 취약점 표면의

인터넷 텍스트를 분석, 최대 취약점 리스크를 우선 복구하면 반드시 Zoom 사고가 오늘날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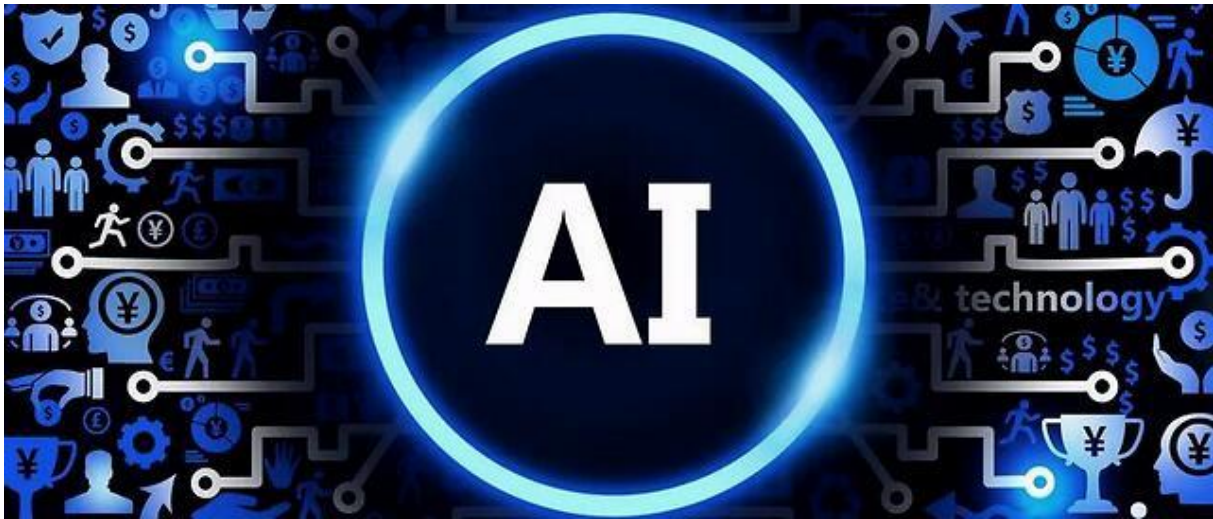


사진 6)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네 번째는 미디어에 중점을 둔 높은 보안 의식이다.

원격 회의는 오랫동안 사무실 학습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술한 기본 수준의 보안 구조 외에도, 원격 회의의 오디오 및 비디오 미디어 기술까지 자연히 보안에 크게 투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업체와 심층적으로 협력하고 절충하여, 미디어 네트워크 기술, 코덱 기술 등을 보안 알고리즘과 융합해야 한다.

또한 회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자체는 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높여야 한다.

Netflix 를 예로 들어, 줄곧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유명했던 Netflix 는 80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보안팀을 조직하고 대형 보안회사가 제공하는 통용 방식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많은 보안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으로 개발했다.

원인도 매우 간단하다. 자신의 보안 팀만이 '최후 10%' 보안 능력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Zoom 사건은 우리들에게 '재능은 위치에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반드시 재량이 따라온다. '안전' 이 양날의 칼에 경외감을 지녀야 하며 마땅히 처음부터 인터넷 회사의 우선부터 걸고 시작해야 한다.

2.IMF 중국경제성장 예측 2020 1.2%, 2021 9.2% (신량재경新浪财经, 2020.4.17)

미국 동부 표준시간으로 4 월 15 일, 2020 IMF 국제통화기금 봄 연례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다. 코로나 19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이번 회의 전과정은 온라인 방식을 취했다. 국제 통화 기금 (IMF)의 회장인 Kristalina Georgieva 는 회의석상에서 강조하기를, IMF 는 2020 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을 1.2% 로, 2021 년에 성장률은 9.2% 로 예측한다고 했다.

기자 회견의 Q & A 세션에서 Olkiva 는 아시아 경제 성장,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예측을 강조했다. 그녀는 2020 년 아시아 GDP 의 성장률이 0% 로 고정되어 금융 위기와 1998 년 아시아 경제 위기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아시아는 코로나 19 전염병에 비교적 일찍 노출된 지역으로, 이는 경제가 비교적 일찍 회복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녀는 아시아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효과적인 사용을 기대하고, 다른 지역은 아시아의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혜택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코로나 19 전염병에 처음으로 노출된 국가로서, 중국은 2020 년 제 1 분기의 GDP 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제 2 분기가 다가옴에 따라 중국도 경제를 재개하고 있다. IMF 는 2020 년 중국 경제가 1.2% 성장할 것이며 2021 년에는 중국의 경제가 '대폭 증가'하여 9.2% 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MF 가 최신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만이 2020 년 경제성장이 +인 유일한 국가들이다.

新兴市场和发展中经济体	3.7	-1.0	6.6
亚洲新兴市场和发展中经济体	5.5	1.0	8.5
中国	6.1	1.2	9.2
印度	4.2	1.9	7.4
东盟五国	4.8	-0.6	7.8
欧洲新兴市场和发展中经济体	2.1	-5.2	4.2
俄罗斯	1.3	-5.5	3.5
拉丁美洲和加勒比	0.1	-5.2	3.4
巴西	1.1	-5.3	2.9
墨西哥	-0.1	-6.6	3.0
中东和中亚	1.2	-2.8	4.0
沙特阿拉伯	0.3	-2.3	2.9
撒哈拉以南非洲	3.1	-1.6	4.1
尼日利亚	2.2	-3.4	2.4
南非	0.2	-5.8	4.0
低收入发展中国家	5.1	0.4	5.6

来源: 国际货币基金组织2020年4月《世界经济展望》。

표 1) 출처: 국제통화기금조직. 신흥시장과 발전중인 경제주체-2020 년 중국경제 성장률 1.2%, 2021 년 9.2%로 예측

Orkiva 는 또한 4 월은 미지의 달이고 예외적인 달이라고 말했다. 건강 위기와 경제 위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 충격을 준다. "IMF 의 역사에서, 이것은 처음으로 역학이 우리의 거시 경제 예측에 대한 맥박을 장악한 것입니다. 만약 백신이 지연되고 코로나 19 전염병이 계속 혼란을

일으키면 상황은 더 나쁜 쪽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올해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록 이번 예측에 거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IMF 는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3%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에는 부분적인 회복이 있어날 것이며 세계 성장률은 5.8% 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기구는 일찍이 1 월분 예측에서 2020 년의 경제 성장률이 3.3% 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IMF 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성장 예측이 극히 불확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 세계 경제는 10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해 2020 년의 상황은 2008-2009 년 금융 위기보다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인터뷰에서 Orkiva 는 세계 경제가 봉쇄와 기업 파산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세계의 절반 이상이 이미 국제 통화 기금 (IMF)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Orkiva 는 또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4 가지 핵심 사항을 강조했다. 1) 생명 보호: 기본적인 격리 조치를 취하고 위생의료비에 지출 우선 순위를 배치하고, 의약품과 식품의 수출 통제를 피하도록 하라. 2) 생계 보호: 유동성 압력이 지불 능력에 문제가 되게 변하는 것을 방지해야만 한다.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압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화 부양책과 유동성 도구는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발휘한다. 3) 정상적인 운영 회복을 준비: 사람들은 수요를 늘리고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적시에 재정 부양 조치를 취해야한다. 4)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대해 잘 대비하라: 부채 수준 상승, 파산, 실업, 불평등 증가 등. 그리고 이러한 도전의 영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그녀는 또한 자원이 제한된 국가는 우선 순위 보호가 가장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IMF 는 신흥국가와 저소득 지역, 특히 공공위생 시스템이 취약한 지역부터 원조를 시작했다. IMF 는 회원국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1 조 달러를 대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IMF 는 비상 실시의 사용을 두 배로 늘려 약 1,000 억 달러로 예상되는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동시에 IMF 는 102 개 국가의 긴급 용자 요청에 응답하고 있으며, 4 월의 짧은 기간 동안 이미 15 개국 이상의 국가에 대한 대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월요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조직의 수석 경제학자 Gita Gopinath 는 조직의 189 개 회원국 중 100 개국이 이미 IMF 에 연락해 비상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 중 절반은 저소득 국가와 개발도상국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우리는 IMF 의 1 조 달러의 능력이 이 위기에 대처하기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보충하여 말하길, 위기가 개발도상국가에 가하는 타격이 점점 커져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뉴욕에서 신랑재경 북미특파원 류잉 철폐 기고)

3.명암 엇갈리는 기업들, 코로나 19 가 바꾼 익숙했던 세계의 변화

(봉황과기, 2020.4.18)

코로나 19 전염병의 대유행에 따라, 일종의 새로운 업무 생활방식이 인터넷 상에 출현했다. 다행히 지켜낸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자신의 첫번째 화상회의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수년 후 이 기간 겪었던 일들을 회고하면 깨닫게 될 것이다. 코로나 19 가 우리들의 손 씻는 습관을 바꾼 것처럼 우리들의 익숙한 인터넷 생활과 첨단 과학기술 영역을 깊이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하룻밤 사이에 원격사무가 대세

거의 하룻밤 사이에 화상회의 앱 Zoom 이 소리없이 조용히 수많은 사람들의 필수 App 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동료와 회의하고 선생님의 강의에 참여하고, 심지어 친구와 게임 오락을 한다.

짧은 한 주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Teams 의 일일 활성사용자는 3200 만에서 4400 만까지 폭증했고, 단일 회의에 27 억분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3 월 중순의 9 억분 통화시간과 비교하여 이 숫자는 200% 증가한 것이다. 3 월의 마이크로 소프트 Teams 화상통화 사용량은 1000% 이상 폭증했다.



사진 1)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원격회의의 소프트웨어 Zoom 과 마이크로소프트 Teams

Teams 는 이탈리아의 수요로 폭증했고 유럽에서는 잠시 기기 중단이 발생했다. 이는 마이크로 소프트사를 놀라게 했다. 마이크로 소프트 365 책임자 Jared Spataro 는 The Verge 와 인터뷰를 하며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엔지니어가 긴급히 작업하고 있으며 모든 사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필요한 기초 구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그들이 대형 회의와 행사를 하도록 돕기를 희망함에 따라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참가인원수 상한선을 만명에서 10 만명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

재택근무기간, 소비자가 원격근무와 원격수업에 사용할 설비, 인터넷 카메라와 개인 컴퓨터를 구매하고자 하여 소매상도 완판되었다. Jared Spataro 는 웃으며 말하길 "개인컴퓨터 시대가 또다시 돌아왔다. 사람들은 iPad 를 사용하여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다.

교육과 의료건강 영역에서 Teams 모바일 app 사용량도 꾸준히 증가했다. 게임 비디오 오디오 플랫폼 Twitch 도 음악가, 작가, 연극 배우가 원격 공연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되었다.

줄곧 인터넷 세계는 기본상 역시 휴식의 공간이었다. 우리는 인터넷 세계 안에서 오락하고 뉴스를 보고, 친구와 대화한다. 거리가 얼마나 먼지 상상속에 존재하는 것인지 상관없이 말이다. 우리들 중 일부 사람들은 말하길 그것은 줄곧 하나의 휴식 장소였다.

그러나 현재 수백만 사람들이 Slack 과 Asana 등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동료와 하루종일 회의하고, 고객과 교역하고, 선생님을 보며 수업을 받는다. 계속 대다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화상채팅 기능에 예측되어 있다. 지금은 도리어 인터넷 체험이 핵심이 되었다.



사진 2)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당연하게 급여를 삭감하고 직원을 감원

전염병 상황의 위기하에 일부분은 원격사무 업무로 보유할 수 있고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때 각종 급여 삭감, 감원 소식이 들려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57 명 경제학자의 공통된 인식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몇 개월간 1440 만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며, 6 월 실업률은 올해 2 월, 50 년 이래 최저수준인 3.5%를 넘어서는 기록인 13%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 주 동안 이미 1700 만명의 미국인이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며 이 수치는 2 차대전 이후 언제라도 대규모의 감원이 일어나게 해 상대적 부족함을 드러나게 했다.

어떤 특수 산업에서는 전대미문의 감원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3 월 15 일 북유럽항공(SAS)은 가장 많은 90%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3 월 16 일 노르웨이 항공은 85%항공일정을 취소하고 직원의 90%를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3 월 19 일 5100 명이 넘는 캐나다 항공 승무원이 해고되었다.

4 월 2 일 보잉사 CEO Dave Calhoun 은 코로나 19 전염병이 조성한 재무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보잉사가 직원을 위해 자발적인 사직과 사전에 퇴직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때 동시에 많은 보잉 공급사와 고객도 이미 최저 인건비용을 채택했다. 3 월 23 일 보잉사의 주요 공급사인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Co.)은 제트 엔진 사업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미국 노동력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유지 보수와 수리 직원의 최대 절반이 3 개월 동안 휴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3)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또한 닛산, 혼다와 같은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의 비용 절감 조치도 24,000 명 이상의 미국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닛산 자동차는 4 월 7 일 테네시와 미시시피에 있는 공장에서 4 월 하순까지 약 1 만명의 시간 노동자를 임시 해고한다고 밝혔다. Honda Motor 는 5 월 1 일까지 생산 중단을 연장했으며 휴가 처리된 미국 공장 직원은 약 14,400 명이었다. 두 회사는 의료 건강 등 직원 복리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으며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더 많은 실업 구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4 월 7 일, 테슬라는 현금을 절약하기 위해 비핵심 직원들의 무급 휴가, 잠시 고위 관리층 급여의 30% 삭감을 발표했으며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이미 대부분 업무를 문닫게 했다. 이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는 5 월 4 일 미국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생산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재 채용기회 활용

비록 코로나 19 전염병이 전체 취업시장을 석권했지만 애플, 구글, 아마존과 같은 일부 과학기술 거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수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과학자, 제품 디자이너를 끌어 모으고 있다. 하이테크기술 채용담당자는 말하길 현재 시각에 자본은 거대한 과학기술 기업에게 기술인재를 끌어 모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3 월 8 일부터 4 월 8 일까지 CareerBuilder 는 새로운 직위를 발표했다. 현재 5 명의 기술 직위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Java 개발인원, 프로젝트 매니저, 시스템 엔지니어, IT 서비스 플랫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Facebook 은 코로나 19 전염병 위기 기간 사용량이 폭증했고, 부총재로 채용한 Miranda Kalinowski 는 말하길, Facebook 이 현재 디자이너, 연구인원, 엔지니어 기술인재와 전문 인사를 모집하고 있으며, 정책·법률·글로벌 운영팀이 열심히 근무하며 정보 착오를 줄이고, 미국 대선 등 사회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올해 만여명을 채용하여 해당 제품과 엔지니어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사진 4)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클라우드 안전기술에 기반한 인터넷 보안을 제공하는 기업 CrowdStrike Holdings Inc.도 각종 엔지니어와 세일즈직을 채용하며 대다수 직위를 원격 근무에 배치했다. 인재채용 부총재 Alexis Neville 은 말하길, 대략 250 개 직위가 비어있으며 신청수량이 다소 증가했다고 했다. 그녀는 “우리들은 해고되거나 해당 산업이 매우 불안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흡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경기침체 경험에 근거하여 능력있는 기술인재를 채용한 회사는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것이다. 한 기술 채용 인원은 구글이 지난 몇 주 동안 수많은 신규 일자리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전 인력자원 주관 Laszlo Bock 은 말하길 구글은 일부 중요 고용 인원은 인터넷 거품 도산시기에 해고되었던 사람을 입사시킨 사람들이다. 만약 과학기술 기업이 아주 많은 자원이 있다면 현재 채용중이다. 그리고 기타 회사는 어렵게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바로 기술 인재를 끌어올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바로 러시아 과학원 세계경제와 국제관계 연구소 부소장 알렉산더 로마노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록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문화, 행위, 사회심리에 어떤 구체적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직 단언하기는 시기상조지만 코로나 19 대유행이 영원히 세계를 바꿨다는 단언은 사람을 놀라게 하기 위한 말만은 아니다.”

4. GDP 수치로 알아본 중국 경제 상황 (이오왕亿欧网, 2020.4.17)



사진 1) 출처: 이오왕(亿欧网)

국가통계국이 최신 데이터로 중국 1 분기 GDP 가 전년동기대비 6.8%하강했고 이전 가치보다 6%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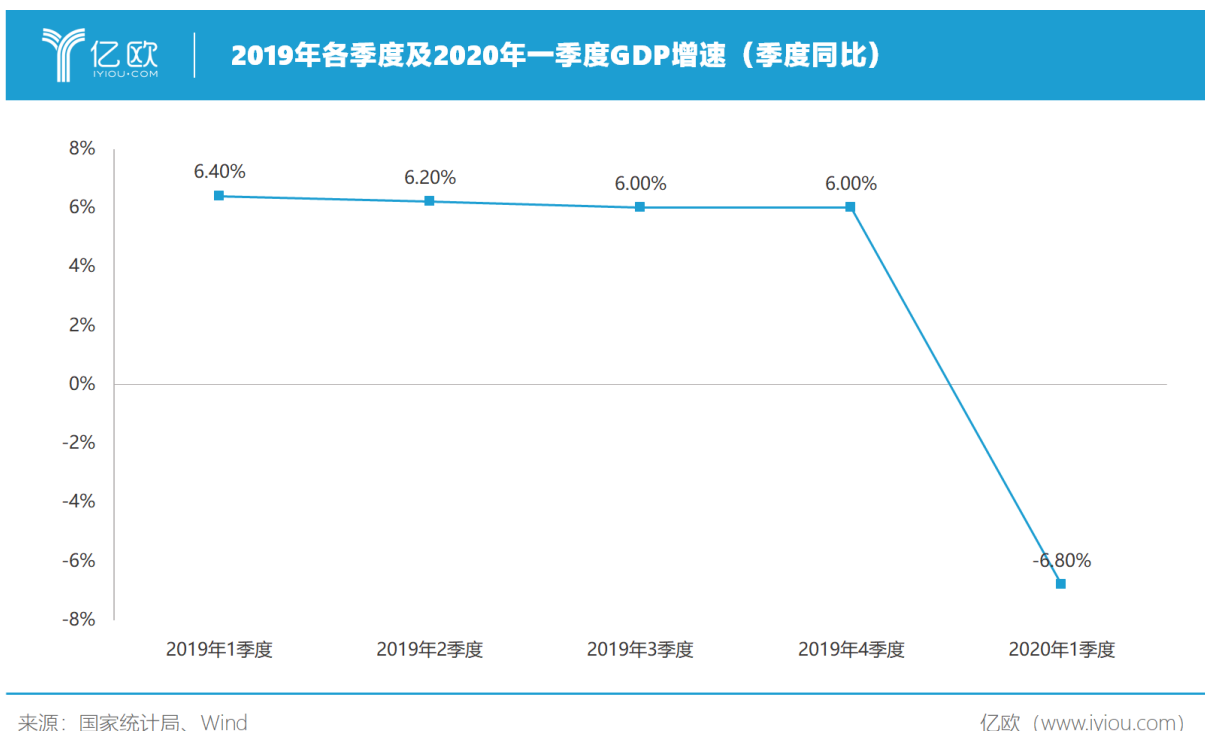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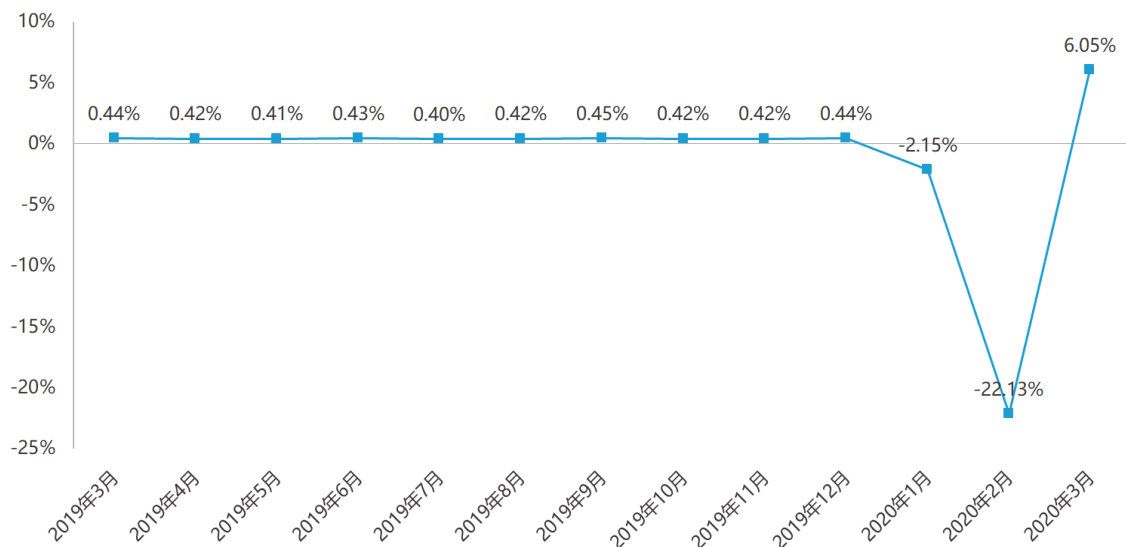
표 1) 출처: 이오왕(亿欧网). 2019 년 각분기와 2020 년 1 분기 GDP 성장률(분기별 비교)

초보적으로 계산해보면 1 분기 중국 국내생산 총액가치는 20.65 조위안이고 불변가격으로 계산하면 전년 동기대비 6.8%하락했다. 산업에서 보자면 1 차 산업 증가치는 1.02 조로 3.2%하락했고 2 차 산업 증가치는 7.36 조로 9.6%하락했다. 3 차 산업 증가치는 12.27 조로 5.2%하강했다.

중국 1 분기 고정자산 투자(농민 불포함) 84145 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하락했고 하강폭은 1~2 월보다 8.4%포인트 감소했다. 민간 고정자산투자는 47804 억 위안으로 18.8%하락했고, 하강폭은 7.6%포인트였다. 전분기 속도와 비교해 보면 3 월 고정자산투자(농민 불포함)는 6.06%증가했다.



2019年及2020年一季度固定资产投资（不含农户）环比增速



来源: 国家统计局、Wind

亿欧 (www.iyiou.com)

표 2) 출처: 국가통계국. 2019 년 각분기와 2020 년 1 분기 고정자산투자 전분기 비교 증가율(농가 불포함)

인터넷 소매 비교적 빠른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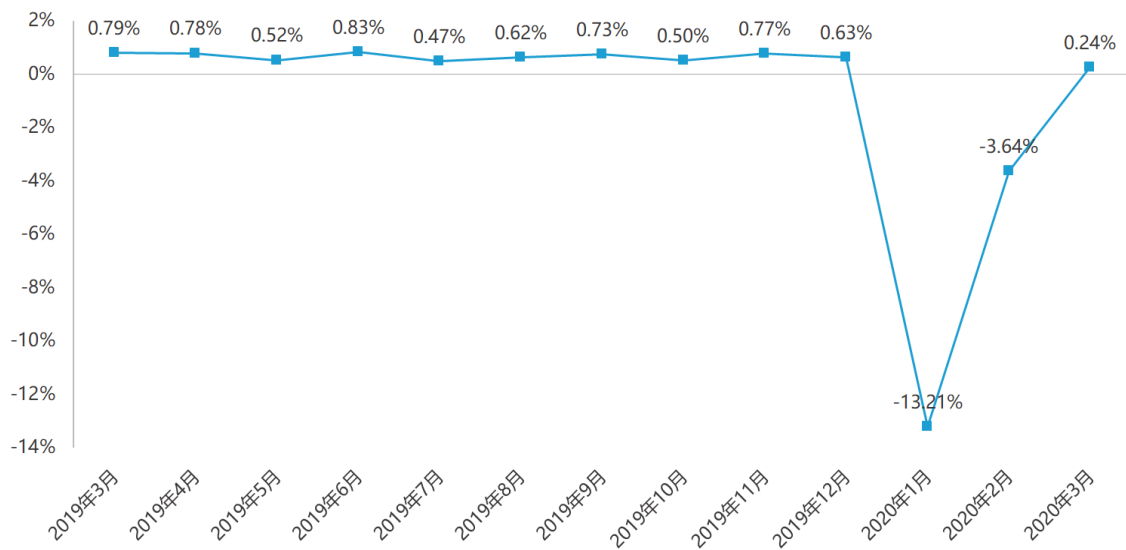
1. 주민 명목 소득 증가, 실제 소득 감소. 통계에 따르면 중국 1 분기 1 인당 가처분 소득은 8,561 위안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으며 가격 요인을 공제한 후 실제 3.9% 감소했다. 거주지로 분류한 것에 따르면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은 11,691 위안, 명목 0.5% 증가, 실제 3.9% 감소; 농촌 거주민의 1 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은 4,641 위안, 명목 0.9% 증가, 실제 4.7% 감소했다.

2. 도시(城)와 마을(镇)에서 조사한 실업률이 감소했으며 고용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1 분기에는 전국의 도시와 마을에 229 만 명이 신규 취업했다. 3 월 31 개 대도시와 마을의 실업률은 5.7%로 지난 달과 동일했다. 전국 기업 취업인원의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44.8 시간으로 전월보다 4.6 시간 증가했다.

3. 생활 필수품 판매와 실물 상품의 온라인 판매가 빠르게 증가. 3 월 중국의 소비품목 소매 판매 총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15.8% 감소한 반면, 1 월 -2 월은 20.5% 감소, 1 분기 전년 동기간 대비 19.0% 감소했다.



2019年及2020年一季度社会消费品零售总额环比增速



来源：国家统计局、Wind

亿欧 (www.iyiou.com)

표 3) 출처: 국가통계국. 2019 년 각분기와 2020 년 1 분기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 전분기 대비 증가율

소비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요식업 매출은 6026 억 위안으로 44.3% 감소했으며, 상품 소매는 72553 억 위안으로 15.8% 감소했다. 실물 상품의 온라인 소매 판매는 18536 억 위안으로 5.9% 증가하여 1 월~2 월분보다 2.9% 포인트 높았으며, 사회 소비재의 소매 총액의 비중은 23.6% 로 1 월~2 월분보다 2.1% 포인트 증가했다.

4. 소비자 물가 상승은 하락했다. 1 분기 전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4.9% 상승했다. 식품, 담배 및 주류 가격은 전년 대비 14.9%, 의류는 0.2%, 주택은 0.2%, 가정 용품 및 서비스는 0.2%, 교통 및 통신은 1.5%, 교육,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는 1.9%, 의료는 2.2%, 기타 용품은 전년 대비 14.9% 상승했다. 서비스는 4.9%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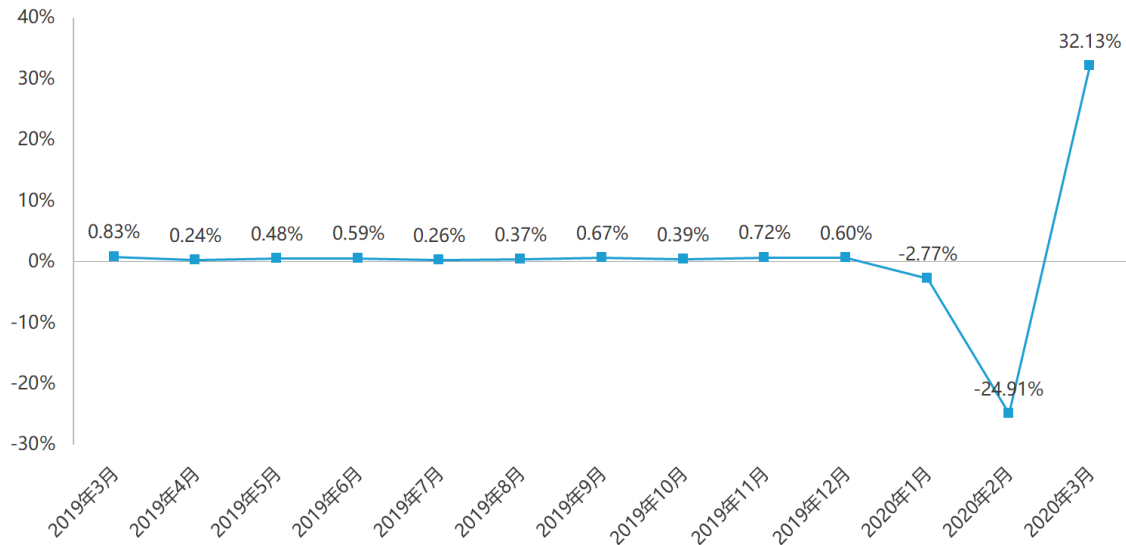
5. 서비스 산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신흥 서비스 산업 증가 추세가 양호하다. 1 분기에는 3 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감소하여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정보 기술 서비스,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가 각각 13.2% 와 6.0% 증가했다. 3 월 중국 전국 서비스 산업 생산 지수는 9.1% 하락하여 하락폭은 1~2 월분보다 3.9% 포인트 감소했다.

6. 농업 생산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며 곡물 생산 상황이 비교적 좋다. 1 분기에 농업 (종자 재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가금류 알의 생산량은 4.3% 증가했으며 우유의 생산량은 4.6% 증가, 돼지 고기, 소고기, 양고기 및 가금류 고기의 생산량은 1813 만 톤이었다.

7. 산업 생산은 감소했고, 기본 원자재 산업과 첨단 제조업은 성장을 유지했다. 1 분기에 전국 규모 이상의 산업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그중 3 월분 규모 이상의 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1% 감소, 1 월~2 월분 12.4% 포인트 감소, 체인은 32.13% 증가, 산업 산출 규모는 작년 동기 수준에 근접했다.



2019年及2020年一季度规模以上工业增加值环比增速



来源: 国家统计局、Wind

亿欧 (www.iyou.com)

표 4) 출처: 国家统计局. 2019 年 各분기와 2020 年 1 분기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 전분기 비교 증가율

3 월분, 첨단 기술 제조업은 전년 대비 8.9% 증가했으며 그 중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 장비 제조업은 9.9% 증가했다. 산업용 로봇 및 발전기 세트의 생산량은 각각 12.9% 와 20.0% 로 증가했다.

이오우(亿欧)회사 산업 인터넷 분석가인 시잔(施展)은 산업과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가 3 월에 크게 반등한다고 믿으며, 중국의 재개 생산량 상황은 양호하지만 사회적 소매 판매액 반등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전염병이 여전히 현재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한다. 더구나 보복성 소비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8. 투자 활동이 둔화되고 전자 상거래, 전문 기술 서비스 및 전염병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 산업 측면에서 보았을 때 1 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13.8%, 2 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21.9%, 3 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13.5% 감소했다. 이 중 중국 1 분기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대비 7.7% 감소했으며 1~2 월에 16.3% 감소했다. 첨단 기술 제조 산업에서 컴퓨터와 사무 기기 제조에 대한 투자는 3.2% 증가했다. 첨단 기술 서비스 산업에서 전자 상거래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39.6%, 전문 기술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36.7%, 과학 성과 전환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17.4% 증가했다.

9. 상품의 수출입이 둔화되었고 무역 구조는 계속 개선됨. 1 분기 상품의 총 수입과 수출은 65742 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6.4% 감소했다. 이 중 3 월 수출입 총액은 24459 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1~2 월분에 비해 8.7% 감소했다.

시장은 일찍이 예상했었다

자본 시장은 오랫동안 -6.8% 와 같은 데이터에 관해 일찍이 예상했었다.

데이터가 10 시에 발표된 후 상하이증권 (上证), 선청(深成)지수, 창예반(创业板) 지수가 급등했으며, 이중 창예반 지수는 정오 1.92% 상승하여 두 도시를 이끌었다. 이는 비교적 긴 시간의 전염병 상황 이후

투자자들이 1 분기 거시 데이터와 다양한 산업 및 표식이 되는 기업의 1 분기 보고서의 성과에 이미 명확한 예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오(亿欧)의 창립자인 황위옌푸(黄渊普)는 비록 2020 년 1 분기 전체가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사회 소비 총액은 2019 년 1 분기와 비교하여 크게 감소했지만 1 월과 2 월에 비해 3 월분의 사회소비 총액은 상당한 증가가 있었으며, 2 분기는 전년도 동기대비 증가가 높은 확률이 되고 있다.

국제 수준의 전염병은 아마 2 분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의 소비 신뢰는 계속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양한 오프라인 비즈니스 활동 정책 제한으로 인해 온라인 소비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관광, 요식업, 자동차 등의 산업도 유사하게 복구 속도가 매우 느리다.

전염병 기간 동안 인터넷 생활과 소비 경제가 더욱 견고해졌다. 배달주문, 온라인 쇼핑 시장이 활발하고 온라인 영상과 쇼트클립, 온라인 사무와 회의 등의 루트 모두 각기 예상치 못한 성장을 했다.

A 주 상장사 망고 슈퍼 미디어(芒果超媒 300413.SZ)는 2020 년 1 분기 실적 예측을 발표했으며 회사는 상장 회사 주주의 순이익 4.3 억위안 ~4.9 억 위안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한다. 작년 동기간 대비 2.89% ~17.24% 증가하는 것이다. 춘절기간 망고 TV 는 하루 1 인 평균 88 분을 사용했으며, Bilibili 의 111 분에 이른 것으로, 성장률이 40%를 넘었다.

일부 1 분기 실제 성과에 타격을 받은 메이투안 디엔핑(美团点评), 하오디라오(海底捞)를 포함한 본지 생활형 기업도 비록 주가는 잠깐 하락했지만 기업은 안정적이고 반등 속도도 빨라 "중대 재난 구역"에 위치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비록 이미 1 분기에 이미 손실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열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월분 사회 소매 판매 총액이 급증한 것은 시장에 더 많은 신뢰를 주었다.

소비 업그레이드와 수요는 여전히 존재

2003 년 SARS 전염병 기간 동안 인터넷 회사는 급속히 발전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회사가 전염병의 발달로 '이득을 보았기' 때문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과 기술 회사 자체의 발전 규율에 의한 것이라고 여긴다.

이 양자간의 관계가 어떻게 전염병이 초래한 단기 경제 침체 이후 국가의 경제 발전은 장기적인 정체 상태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경제 발전의 물결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은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이며 내수 시장을 충족시키는 것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다양한 온라인 소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상을 끌어 들이고 있지만 그 본질은 항상 소비자 소비 수준의 끊임없는 상승이었다.

'소비 등급 하강'은 항상 우려가 되었지만, 도시 소비로 대표되는 샤오홍슈(小红书), 향촌 소비로 대표되는 핀뉘뉘(拼多多)의 지속적인 가치 평가와 주가 상승은 전세계 범위에서 가장 현명한 자본이 중국 소비력에 대해 긍정적임을 이미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 주요 경제체는 새로운 경제 발전 활성화 계획을 이미 착수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미국중소기업관리국에 영향을 받는 주와 지역에 중소기업에 자본과 유동성을 위한 경제 대출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의회에 이를 위해 500 억 달러의 자금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월 28 일, 이탈리아는 중소기업과 일반 시민이 이 난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45 억 유로의 도시 기금을 승인했다. 그에 앞서, 이 국가는 총액 250 억 유로의 재정 부양 조치를 승인했다.

일본 경제 뉴스에 따르면, 전염병에 대한 일본의 경제 원조 계획은 금액이 일본 연간 GDP 총액의 10% 이상에 달한다고 했다 (5000 억 달러에 근접).

다양한 경제 활성화 계획에 힘입어 전세계 범위내 경제 환경은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이고, 중국 경제 발전, 특히 이미 곤경에 처한 대외 무역 산업에 더 나은 외부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러시아의 해외 상거래 사업에 종사하는 일부 실무자들은 본지에 상인들이 점점 다양한 상품을 주문하기 시작했으며 이전의 동결된 현금 흐름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ISSUE 및 시장동향

1. 이슈 온라인마케팅: 인기절정인 사적 영역 트래픽은 얼마나 오래 갈까?

— FN 비즈니스(FN 商业) 제공

‘사적 영역 트래픽’은 보기에는 선진적인 개념이나 사실 서산에 지는 해인 인터넷 영역으로 또 하나의 신조어다. 사적 영역 트래픽은 아는 사람 커뮤니티의 위챗 친구에 더 가까운 편이고 슈아핑 마케팅(刷屏营销)의 터무니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사진 1) 출처: FN 비즈니스(FN 商业)

‘사적 영역 트래픽(私域流量)’은 최근 2 년간 마케팅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오는 단어였다.

(편집자 주: 私域流量 사적 영역 트래픽. 공적 영역 트래픽에서 나온 개념으로 돈을 쓰지 않고 시간과 힘수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사용자 루트에 전달하여 생성된 트래픽. 뉴미디어, 사용자 커뮤니티, 위챗계정 등이 있고 KOC(핵심의견•발언권을 지닌 소비자)가 커뮤니티에 바로 전달한다. 소셜 이커머스 분야의 개념.

公域流量 공적영역 트래픽.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인이 아닌 공식 채널의 사용자 트래픽. 돈을 들여 1 회성으로 홍보할 수 있다.

刷屏营销 슈아핑 마케팅. 소판매자가 온라인 마케팅하는 방식 중 하나로 위챗 모멘트, 댓글, 게시판, 뉴스, 웨이보 등 각종 방식으로 커뮤니티 전파 루트 여러 곳에 달아 판매 홍보를 하는 방식.)

왜 사적 영역의 트래픽인가? 산업내의 주류 정의에 근거하여 사적 영역 트래픽은 스스로 반복 이용할 수 있고,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언제든지 접촉해 도달할 수 있으며 소셜 플랫폼•뉴미디어 루트 속에 응집되어 있는 사용자다.

그리하여 이러한 돈 쓸 필요없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반복 이용하는 사적 영역 트래픽은 갑자기 마케팅계의 만금유(편집자 주: 어느 것이나 할 줄 알지만 어느 것도 뛰어나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의

비유)가 되었다. 사적 영역 트래픽+음식처럼 메이투안이 건립한 신질서를 전복시킬 수 있다. 사적 영역 트래픽+소매는 일반인이 폭발시킨 새로운 루트였다.

그리고 사적 영역 트래픽 연못을 건립하는 방법은 대부분 브랜드의 방법은 오히려 통일적으로 위챗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다. 만약 1 회로 부족하면 게시판, 대화창, 댓글창 등에 대량 중복하여 올린다. 요컨대 위챗그룹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사실은 진실로 이와 같은가?

그저 좋은 친구를 뽑아내고 트래픽은 없다.

‘사적 영역 트래픽’은 보기에는 선진적인 개념이나 사실 서산에 지는 해인 인터넷 영역으로 또 하나의 신조어다. 일찍이 광장춤이 사회의 핫이슈였던 2015 년 ‘광장춤 지도자’는 첫번째 광장춤 사적 영역 트래픽 운영의 실행가였다.

결출한 춤실력과 넓은 인맥에 힘입어 광장춤은 아주 빠르게 중장년 아저씨, 아줌마들의 충성도를 얻었고 이러한 광장춤에 참가하는 대중들은 광장춤 지도자들의 사적 영역 트래픽이다.

스스로 반복 이용할 수 있다 —— 그룹 활동을 보내고 춤 음악, 복장, 도구 모두 춤 지도자가 안내한다.

돈을 쓸 필요가 없다 —— 춤을 배울 수 있다면 다른 요구는 없다.

수시로 접촉 도달한다 —— 언제든지 어디서든 춤 출 수 있고 한 번 부르면 여럿이 응답한다.

춤 지도자의 사례부터 왜 위챗에 연결되어 있는 친구명단이 사적 영역 트래픽과 같지 않은지 알 수 있다.

먼저 춤 지도자는 춤 교습과 실행하는 임무를 담당하며 사적 영역 트래픽을 건립하고자 하며, 판매자도 필연적으로 품질이 강력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나 한 사람의 지인을 직접적으로 사로잡아 세뇌시키고 설득할 수 없다.

다음으로 사적 영역 트래픽의 전제는 사용자의 충성도다. 이러한 종류의 충성도 건립은 통상적으로 소리없이 퍼진다. 춤 대중과 춤 지도자 사이의 신뢰는 장기간 함께 춤을 추며 성립된 것처럼 브랜드와 사적 영역 트래픽의 암묵적 연결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지 않은 화장품 브랜드 모두 ‘종차오—유인하여 최초로 구매 발생—서비스 추가/소셜 네트워크로 진입’의 3 단계를 취하고 있으며 비로소 트래픽이 자신의 영역에 유입하게 된다. 후속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절충을 진행하여야만 비로소 보통 고객이 천천히 끈끈한 유대감이 있는 브랜드 충성팬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사적 영역 트래픽량은 가까운 사람과의 소셜 커뮤니티 위챗 친구와 같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슈아핑 마케팅(刷屏营销)의 터무니없는 면을 이해할 수 있다.

인지심리학의 관점에 근거하여 인류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통상 미묘한 균형에 있다. —— 정보가 너무 적고, 노출량이 부족하면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 그러나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담고 빈번하게 자극시키면 사용자의 반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위챗 모멘트에 단순히 올리기만 하여 팬을 모을 수 있다면 연속적으로 죽도록 Call 하는 야만적인 마케팅도 폐를 끼치는 대표적 표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위챗안에서 히스테릭하게 판매하는 행위는 슈아핑의 확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昨天

日期	内容	来源	热度
2020-03-20	参加3月《3-21i	...	...
2020-03-20	中级营》学习第30天。	...	...
2020-03-20	曾经觉得坚持最难，突然发...	...	...
2020-03-21	最失败的教育：孩子不努力，爸	...	...
2020-03-21	爸不出力，妈妈用蛮力！	...	...
2020-03-21	被骗的成本其实并不高，	...	...
2020-03-21	怀疑的成本 更高！	...	...
2020-03-21	小学英语重点知识	...	...
2020-03-21	家长在孩子教育中的越位，是对...	...	...

参加3月《3-21i
中级营》学习第30天。
曾经觉得坚持最难，突然发...



最失败的教育：孩子不努力，爸
爸不出力，妈妈用蛮力！



被骗的成本其实并不高，
怀疑的成本 更高！

...



小学英语重点知识

家长在孩子教育中的越位，是对...

사진 2) 출처: FN 비즈니스(FN 商业)

환상으로 사적 영역 트래픽을 베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적 영역 트래픽에 의해 해를 입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품목이 맞지 않으면 사적 영역 트래픽도 헛수고다

사적 영역 트래픽 훈련과 관리외에도 어떤 품목 유형이 사적 영역 트래픽에 적합한지 탐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신방(新榜 편집자 주: 콘텐츠서비스 플랫폼)과 국신증권(国信证券)이 공동으로 발표한 <인터넷 사적 영역 트래픽 진행 연구보고> 중 '칭찬받는 미니 상점 교역 상품 품목'에서 분석하면 발견할 수 있다. 사회 커뮤니티 마케팅 품목류에서 화장품류는 11%의 비율로 1 위이며, 일용잡화는 10%비율로 그 뒤를 잇고, 교육 훈련과 아동류는 7%로 공동 3 위이고, 여성 의류·신선식품은 라이브방송은 위챗 공중계정 제품판매의 고정고객이 상당수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이게 근거하여 사적 영역 트래픽에 적합한 운영 품목을 총결할 수 있다

1.신뢰도각 비교적 높게 요구되는 상품, 입소문 상품. 예를 들면 교육 훈련과 의료 미용이다. 비록 가격이 제품/서비스를 가늠하는 요소 중 하나지만, '믿을만한가'가 소비자가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브랜드는 티몰, 징둥 첫 페이지에 가득 채워도 종차오의 효과 모두 소비자가 신임하는 KOC(핵심적 의견을 내는 소비자, 소형 KOL)이 관심을 갖고 추천하는 것만 못하다.

2.소비자와 KOC, 브랜드가 제품에 연이어 흥미가 발생하도록 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동호인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진정으로 상호작용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해준다.

이러한 '당신은 알지'라는 식의 암묵적 연대감은 소비자와 커뮤니티의 친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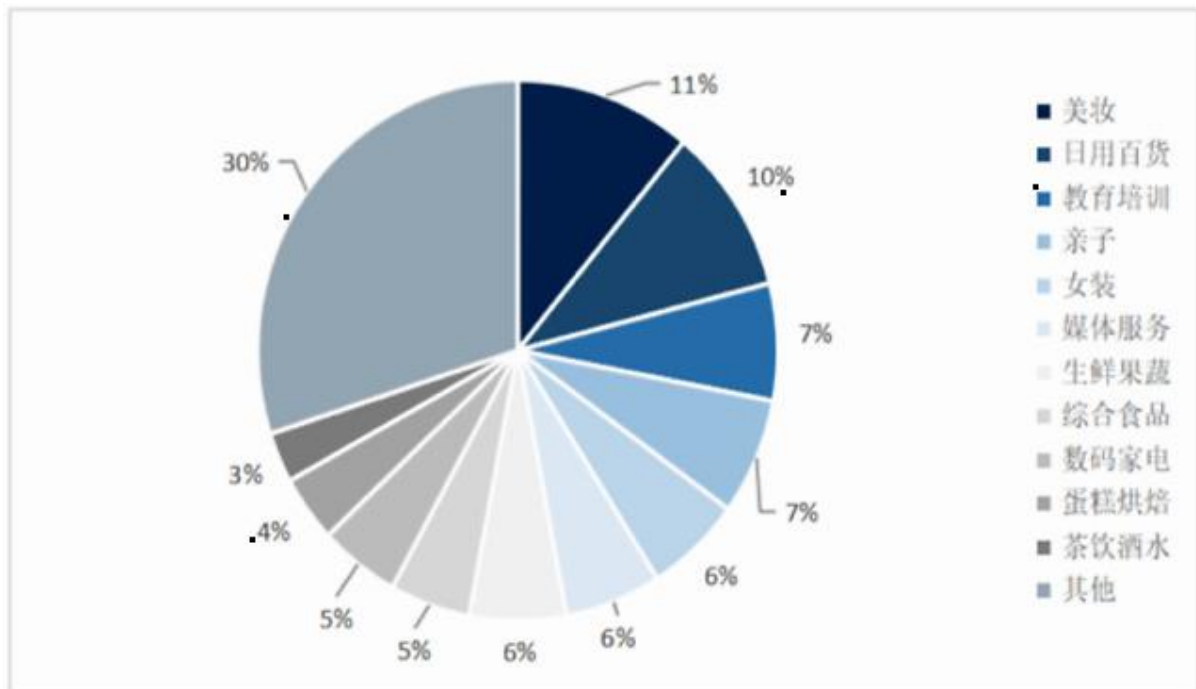


표 1) 출처: 신방(新榜)과 국신증권(国信证券)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 <인터넷 사적 영역 트래픽 진행 연구보고>



这群里的个个都是人才

사진 3) 출처: FN 비즈니스(FN 商业)

3. 반복 구매비율이 높은 품목. 미용 화장품, 백화, 교육, 아동, 여성 의류, 신선식품을 살펴보면 모두 반복 구매가 필요한 품목 유형이다. 매번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도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은 사적 영역 트래픽 반복 이용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필경 졸부를 제외하고 차, 주택류의 가격이 극히 높고 보통사람 입장에서 구매 기간이 아주 긴 제품은 사적 영역 트래픽을 배양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이 아주 길고 회수율도 높지 않아 득보다 실이 많다.

플랫폼을 잘 선택하고 트래픽은 자기로부터 나와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소식 중 위챗 영상채널 계정의 상한선은 아마 한 개일 것이다. 영상계정은 모두에게 멋지다는 말이 넘치도록 영상미가 뛰어나다. 영상계정은 위챗을 다시한번 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객관적으로 영상계정이 더해주지 않더라도 위챗은 사적 영역 트래픽 계의 거두이고, 사용자의 일상언어 사용자를 잡아두는 기타 지표이며 위챗 본래가 쟁론의 여지없는 거인이다.

	微信	微博	淘宝&天猫	小红书	抖音	快手	哔哩哔哩
平台流量量化指标							
流量 (DAU 口径)	765mn	188mn	242mn	23mn	345mn	231mn	30mn
yoy	-0.3%	19.6%	5.7%	50.4%	35.5%	35.8%	32.3%
qoq	0.2%	5.7%	-14.2%	-1.7%	7.6%	11.7%	11.3%
时长 (min)	82	57	22	31	88	71	83
黏性 (DAU/MAU)	81.3%	41.5%	35.9%	27.2%	52.9%	48.6%	30.0%
7日活跃用户留存率	98.3%	72.0%	67.2%	46.6%	84.1%	83.5%	72.2%

표 2) 출처: 신방(新榜)과 국신증권(国信证券)이 공동으로 발표한 <인터넷 사적 영역 트래픽 진행 연구보고> 각 플랫폼 별 트래픽 양화지수

그리고 왜 위챗이 사적 영역 트래픽의 맹주인가, 도인·콰이쇼우는 쇼트클립의 거두이고, 샤오홍슈는 종차오 신무기이고, B 스테이션은 바로 학습 성지가 되고, 제품 판매 오빠 언니는 왜 도리어 타오타오 생방송에서 나오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타오바오의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이다. 다른 몇 개와 비교해도 즐거움, 지식 습득, 종차오를 위해서 등 각종 원인이 플랫폼에 존재하며 단지 타오바오만이 사용자의 판매 포인트 요구가 무엇이든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글로벌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하나로서 타오바오는 생방송 전에 상품 자원을 확보했고 생방송 중 막힘없이 순조로운 주문 결제 체험, 생방송 후 물류 공급, 교역 완료 후 사후 판매 서비스 등 일찍이 성숙한 구매 과정을 구축했다. 환불률이 높아 60%에 이르는 제품판매의 경우 이것을 진정시키는 것은 타오바오 판매 순서에서 의심할 필요없이 지극히 중요하다.

이에 기초하여 뉴미디어 플랫폼, 쇼트플립이 사적 영역 트래픽 스토리를 어떻게 말하는지 비교하면 타오바오 전문 판매 플랫폼은 사적 영역 트래픽이 힘을 쏟고 주목해야할 것이 되지 않는가?

공사 배분, 제품판매는 피로하지 않다.

사적 영역 트래픽을 논하다보니 어떤 이는 언젠가는 공공영역 트래픽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뜻밖에 모든 사적 영역 트래픽과 공공 영역 트래픽은 서로 보완하며 대립관계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적 영역 트래픽은 절대적으로 위챗 모멘트에 주력하고 있다. 원래 위챗은 본래 공공영역 트래픽 못이었다. 현재 가장 열기를 띠는 라이브방송 제품판매의 경우 비록 팬은 의심할 여지없이 스트리머의 사적 영역 트래픽이지만 플랫폼이 스트리머를 노출하는 추천 알고리즘에 기인하며 플랫폼 이 공공영역을 분열해 쪼갤 수 없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에 위챗의 3000만 계정이 반시간 동안 봉쇄된다는 소문이 있었다. 비록 후속으로 위챗 공식계정이 소문을 부인하는 공고를 냈지만 봉쇄는 개별 위법 플러그인 계정에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2019년 이후 위챗은 이미 백만개 이상 외부 플러그인 계정에 타격을 입혔다.

위법 플러그인을 타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지할 일이지만 위챗의 단독 권한에 대한 금지는 또한 소위 브랜드가 사적 영역 트래픽을 완전히 제어하기를 원하며 위챗 플랫폼의 다섯 손가락 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플랫폼 사적 영역 트래픽의 운명은 항상 위챗의 닫힌 생태계 수중에 고정되어 있다.

결국, 공공영역 트래픽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사적 영역 트래픽을 육성하며, 마지막으로 어디서 교역을 완성할 것인지는 원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공영역 트래픽은 고객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가치가 높지만, 널리 분산될 수 있다. 사적 영역 트래픽은 주의해서 운영해야 하지만, 재구매 및 높은 유지가 쉽다. 사실, 이 양자의 결합은 원래 조화로운 것이다. 어디에 혁명이 필요할까?

화합하는데 재물이 생긴다. 누가 아직도 밥만을 위해 산단 말인가?

2. 텐센트, 알리바바 이후 소니도 4억 달러 들여 B 스테이션에 진입

— 후씨우왕(虎嗅网) 제공

펄티모와 계약을 체결한 후 B 스테이션은 또 큰 일을 맞았다.

4월 9일, B 스테이션 dms 소니로부터 4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양 당사자는 많은 분야, 특히 애니메이션과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 이 계약에 따라 소니는 산하의 전액 출자 자회사를 통해 약 4억 달러의 총 대가로 B 스테이션에서 새로 발행한 17,310,696 개의 Z 보통주를 구매했다. 구매 가격은 매 Z 보통주당 23.1071 달러이며, 이는 B 스테이션이 미국에 의탁한 예금주 (ADS) 당 23.1071 달러에 해당한다. 이 교역은 오래지 않아 완성될 것으로 예측하며 이때 소니가 자회사를 통해 B 스테이션이 이미 발행한 주식 총액의 4.98% 를 보유할 것이다.

양측은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등 많은 분야에서 비즈니스 협력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14년부터 B 스테이션은 애니메이션 저작권 구매 방면에서 여러 합작을 추진했고, 소니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Aniplex 와 협력하여 2016년에 Aniplex 산하의 모바일 게임 "Fate/Grand Order"(Fate/Grand Order)의 독점 에이전트라고 발표했다. 최근 B 스테이션은 소니 뮤직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으며 사용자는 B 스테이션에서 소니 뮤직 산하의 뮤직 라이브러리 MV를 볼 수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이후 또 하나의 거물이 들어왔다.



사진 1) 출처: 후씨우왕(虎嗅网)

B 스테이션은 '작은 파괴 스테이션'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스스로 성립한 이후 B 스테이션은 순조롭게 용자를 받고 있다.

2015 년 1 월 14 일, 장구(掌趣)과기, 화인(华人)문화산업 투자기금, IDG, 화싱(华兴)캐피털, 치밍(启明)VC로부터 A 라운드 투자 2420 만 달러를 획득했다.

2015 년 7 월 15 일 CMC 캐피털, H Capital, 텐센트투자, 치밍 VC로부터 7525 만 달러 투자를 획득했다. 2016 년 5 월 10 일 쥘리엔(君联)캐피탈, 정선구창(正心谷创)신캐피털로부터 1.5463 억달러 C 라운드 투자를 받았다.

2017 년 5 월 2 일 CMC 캐피털, 쥘리엔(君联)캐피탈, 텐센트투자로부터 총합 1.07 억 달러의 D 라운드 투자를 받았다.

2018 년 3 월 28 일 IPO 에 상장 후 4.83 억 달러를 모집했다.

2018 년 10 월 3 일 텐센트투자로부터 3.176 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받았다.

2019 년 2 월 15 일 알리바바로부터 전략적 용자를 획득했고 지분 비율은 8%였다.

자료에 나타난 바로 2020 년 2 월 28 일까지 텐센트는 13.3%의 지분을 유지하여 제 2 대주주이고 4%의 투표권한을 지니고 있다. 알리바바는 4 위 대주주로 7.2%의 지분을 보유하고 2.2%의 투표권을 지니고 있다. 정선구창(正心谷创)신캐피털은 5.9%의 지분으로 1.8%의 투표권을 지니고 있다.

이번에 소니도 손을 잡고 알리바바, 텐센트 외에 B 스테이션의 긴 주주 명단에 합류하여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소니는 게임 산업의 거두로 산하에 Xperia、Walkman、Sony Music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영역에서 B 스테이션과 수없이 많은 합작을 했었다.

이번 합작에서 B 스테이션 동사장겸 CEO 천루이(陈睿)도 "우리들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와 과학기술 영역의 선두 기업 소니와 합작을 체결하게 되어 아주 기쁘다. 이번 전략적 합작은 우리들이 사용자를

위해 특별히 애니메이션과 게임 영역에서 더 우수한 콘텐츠와 더 좋은 서비스 체험을 가져올 수 있게 도울 것이다. 우리는 소니와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동으로 힘을 합쳐갈 것을 기대하며 문화와 오락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사용자를 만족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계속 커지는 야심

자본이 부단히 증가하자, B 스테이션은 더 많은 자원을 수확하면서 야심도 꾸준히 커졌다.

2 차원 소군중 경제로 유명했던 B 스테이션, 플랫폼 상의 UP 주가 B 스테이션이 대량의 트래픽과 상업적 가치를 획득하는 근간이다.

2019 년 제 4 분기 재무보고에서 B 스테이션의 월평균 활성 UP 주(투고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측)수량은 100 만을 돌파했고, 전년 동기간 대비 80%증가했다. 월평균 투고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66%증가한 280 만이었다. 2019 년 12 월말까지 대회원 수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11% 증가하여 760 만에 달했다.

B 스테이션의 UP 주외에, 인터넷 원주민으로 성장한 Z 세대가 B 스테이션을 일으켜 세운 또다른 큰 조력자다.



사진 2) 출처: 후씨우왕(虎嗅网)

Z 세대(1995 ~ 2009 년사이 출생한 사람)에 대해 젊은이들은 말하길, 만약 단시간내 빠르고 무료로 하드코어 영상콘텐츠를 얻고 싶으면 'B 스테이션' 말고는 갈 데가 없다'는 것이 이미 공인된 인식이다. 데이터로 보면 제 4 분기에서 B 스테이션 월평균 활성사용자는 1.3 억에 달했고 모바일 단말 월평균 활성사용자는 1.16 억에 달했으며 B 스테이션 월평균 유료사용자 수량은 전년동기간 대비 100% 증가하여 880 만에 도달했다.

영업수익 방면에서 B 스테이션은 2019 년 제 4 분기 총 영업수익이 20 억 큰 관문을 돌파하여 총 영업수익이 67.8 억위안이 되었고 이중 비게임사업 수입이 전년 동기간 대비 157% 증가한 11.4 억

위안이었고 총 영업수익의 57%를 차지한다. 게임사업 수익은 전년 동기간 대비 22%증가하여 8.7억위안이었다. 2019년 제 4분기 B스테이션 라이브방송과 부가가치 서비스 수입은 5.7억 위안에 달했다.

알리바바와의 합작은 B 스테이션 상업화의 중요한 과정이었다. 수직 커뮤니티는 끊임없이 알리바바로 진군했고 B스테이션의 이 트래픽 루트에 대해 중시하여 알리바바 산하의 쥐화수안(聚划算)도 B스테이션의 2019년과 2020년 완회에서 독점으로 협찬했다.

텐센트, 알리바바, 소니까지 자본은 B 스테이션으로 모여들고 야심 또한 부단히 커지고 있다. 2020년 제 1분기 실적 보고회의에서 B스테이션 동사장겸 CEO 천루이도 2020년과 2021년의 사용자 증가 목표를 각각 1.8억과 2.2억으로 증가하여 설정했다. 그러나 다른 방면으로 거물이 계속 진입함에 따라 B스테이션도 여러 세력들의 권한 균형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 결국 자본은 양날의 검이다.

3. 전염병 상황으로 조망한 인터넷 여왕의 미래 근무 추세 보고서

—재련사(财联社)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의 글로벌 전염병 상황이 지구를 영구적으로 재구성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보 공유와 과학 기술의 원인으로 코로나 19 전염병이 가져오는 영향은 더 작을 수 있다.

현지시간으로 금요일, '인터넷 여왕'으로 불리는 Bond Capital 합작파트너 Mary Meeker가 최신 1기의 <인터넷 추세 보고>를 발표했고, 코로나 19 전염병의 빠른 전파와 1906년의 캐나다 지진이 일으킨 유사한 영향을 분석했다.

Mary Meeker는 보고서 중에서 Covid-19가 현재 우리가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현대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의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은 영구적으로 지구를 재구성한 것과 비교하여 정보 공유와 과학 기술의 원인으로 코로나 19 전염병이 가져오는 영향은 더 작을 수 있다.

수많은 홈 오피스 그룹이 탄생함에 따라 디지털 전환 프로세스가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운 일과 삶의 균형이 이미 이루어졌다. 수많은 '재구성된' 산업에서, 원격 의료, 신속하고 즉각적인 진단, 자동화 AI 등 과학기술과 의료 보건의 결합이 바로 '시대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

Mary Meeker는 세계 GDP 상위 20개 국가들이 현재 모두 서로 다른 수준의 '사회적 격리'정책을 채택했으며, 이는 세계 80%의 GDP와 대량의 인구가 격리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 Covid-19가 현대 생활을 변화시킨 방식을 우리가 막 이해하기 시작했다.

전염병 발생 후 경제 침체로 실업이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상황에서 실업률은 약 100 년 전 대공황과 같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 미국 근로자의 약 4 분의 1 이 사람들과의 긴밀한 접촉이 필요한 서비스 산업에 종사했음을 고려하시오. 올해 실업률이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식 시장의 영향은 아마도 세계 경제 침체보다 더 심할 것이다.

Unemployment vs. Stock Market Trends = 2020 (2/12 – Current) vs. 1929 –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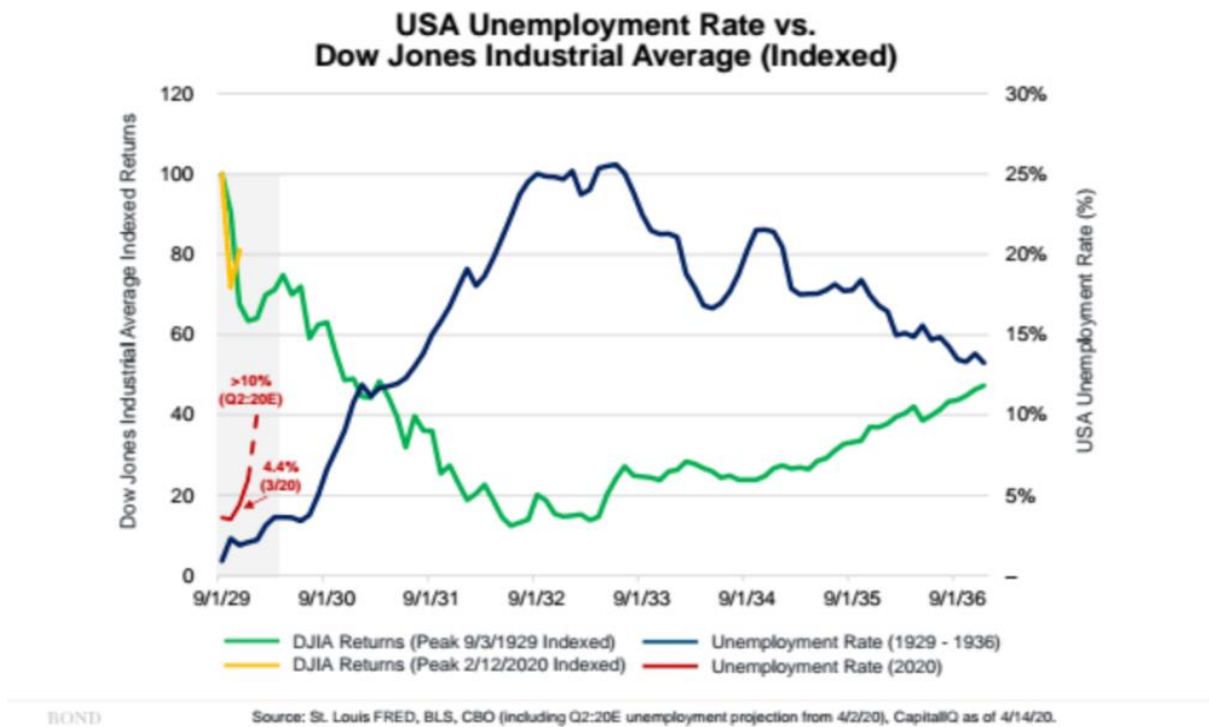


표 1) 출처: Bond Capital. 실업률과 미국주식 추세와의 관계

Mary Meeker 는 만약 통제되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공포의 전파 능력을 보여줄 것이며, 현재 대부분 국가의 '사회적 거리'정책이 효과적인 상태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리 정책에 점차적으로 접근한 후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효과적인 백신을 얻기 전에 우리는 여전히 100%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몇 분급의 빠른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관리 통제를 완화하는 매 단계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예비안을 제정하라 권한다.

기술과 혁신 영역에서 가장 큰 수혜를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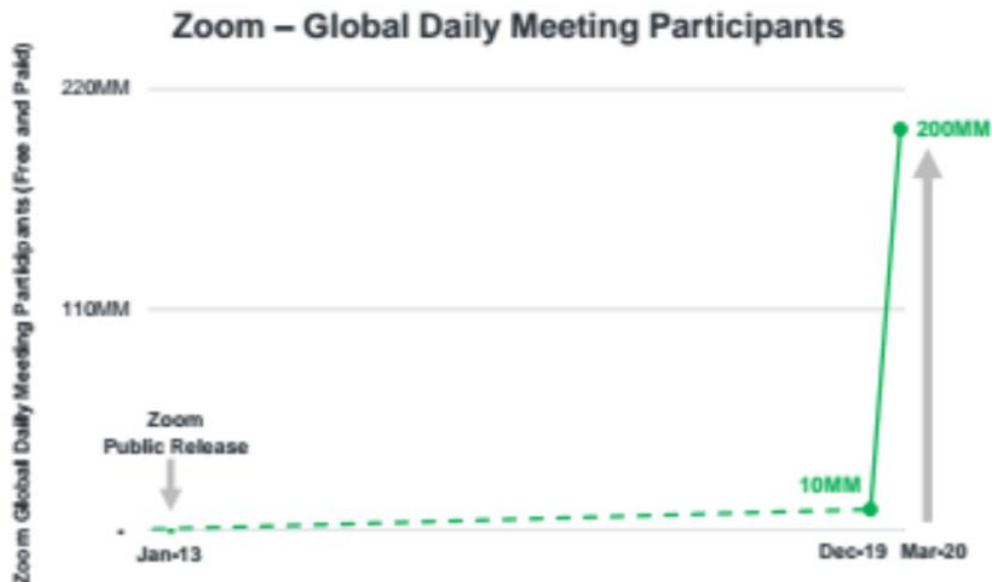
보고서는 이 전염병 속에서 지난 10 년간 줄곧 미국 경제 성장과 가치 창출을 주도한 기술 부문이 계속 시장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공동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1) 기술/혁신 지향성; 2) 업무 디지털화, 통상 이미 '클라우드'상에서 함; 3) 관리층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컴퓨터 학위를 보유; 4) 지난 30 년 동안 창립되었다는 것이다.

위 목록에 따르면 순위 상위 회사는 Microsoft, Amazon, Apple, Alphabet (Google) 과 Facebook 이다.

이 전염병에서 ZOOM 으로 대표되는 과학 기술 회사는 2020 년에 '신입구의 총아'가 되었다.

투자자들은 아직도 Instagram 이 2 년 동안 매달 1 억 명의 활성사용자를 만들었으며 'Fortnite' 출시 후 18 개월 동안 매달 1 억 명의 활성사용자를 달성한 것을 회고하며, ZOOM 은 지난 3 개월 동안 일일 활성사용자를 1,000 만에서 2 억으로 늘리며 전염병 상황 중 '과학 기술 신화'를 만들었다.

Zoom Video = 200MM Daily Participants in March 2020, +20x in Three Months



BOND

Source: Zoom, "A Message to Our Users," April 1, 2020. Represents maximum daily meeting participants.

표 2) 출처: Bond Capital. ZOOM 일일활성사용자 폭등

ZOOM 외에 다른 상업용 사무용 소프트웨어도 사용자 수가 급증했다. Slack 은 올해 1 분기에 유료 사용자 수를 두 배로 늘렸고, 마이크로소프트 Teams 는 3 월 19 일 주에 전주보다 3.7 배 증가한 4,400 만 명의 일일 활성사용자 수를 보고했다.

조금의 과장도 없이, 미국 사회의 경우 올해 3 월 2 일 베이구(湾区) 인터넷 회사가 집에서 일을 시작한 순간부터 '근무 장면'에 대한 대규모 실험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보고서는 많은 회사들이 전염병이 있기 전에 이미 원격 사무 직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강요된 채택 근무'실험 후에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이 '새로운 형식'의 업무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근무가 생활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재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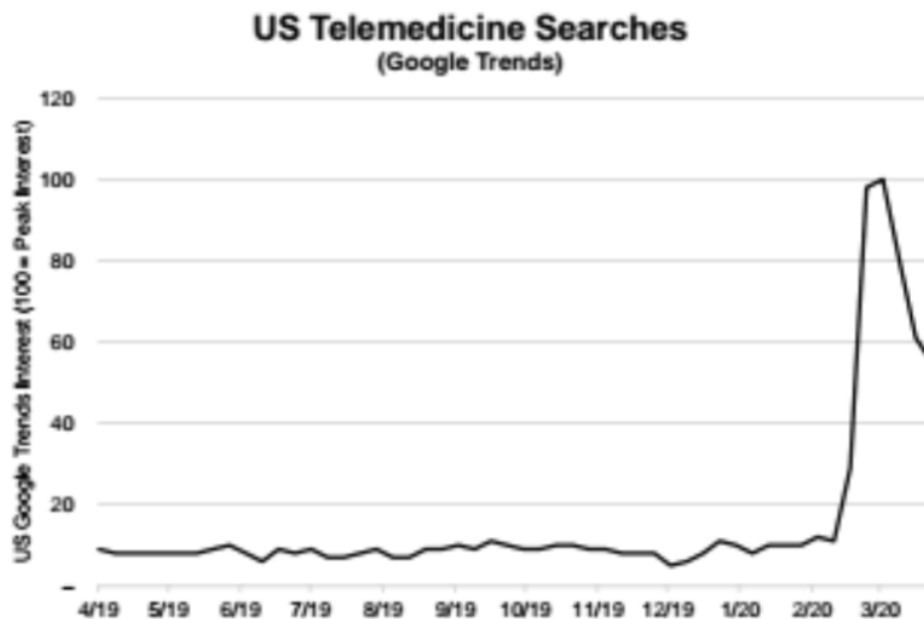
이 '새로운 형식의 근무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원격 사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 창의적인 온라인 및 업무 성과 수준을 보장한다. 2) 팀 작업 빈도를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3) 업무 적극성과 기업 문화를 유지하고, 인적 자원 시스템의 운영을 유지한다; 4) 원격 사무실의 보안 문제를 해결한다; 5) 작업 거리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경우, 직원의 채용이 지역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6) 실제 사무실의 공간과 배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7) 비즈니스 여행과 오락을 더 발전시켜 배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2020 년 봄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회사가 더 나은 추세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 1) 근무 장면은 '클라우드 상에 있어', 직원은 어디서나 작업을 완성할 수 있다.
- 2) 제품에 안정적인 수요가 있다. 불확정성의 시기에 이 점은 더욱 중요하다.
- 3) 고객을 위해 차별없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 4) 물류, 소통이 제한적인 상황일 경우 제품을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5) 전자 상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6) 소셜 미디어에서 광범위하게 노출된다.

종합하면, 수많은 업무 형태가 이번 봄에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이다. 지역의 소규모 식당은 적은 수의 좌석을 제공하는 '드라이브 스루'식당으로 변할 것이다. 소매점은 정보 사이트에서의 판매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빅 브랜드는 온라인 판매를 빠르게 추가하고 있으며 통화간축은 오프라인 소매점의 규모를 줄인다. CEO/CTO 들은 클라우드 제품/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대폭 증가시킨다.

Telehealth Engagement = Rising Dramatically



BCIND

Source: Google Trends as of 4/1/20.
Note: Numbers represent search interest relative to the highest point on the chart for the given region and time. A value of 100 is the peak popularity for the term.

표 3) 출처: Bond Capital. 구글엔진 '원격의료'검색어 상황

'주문형 방문 서비스'로 영구적인 시장 확보

전염병 발생 후 운행 서비스 (Uber/Lyft)와 숙박 서비스 (Airbnb)는 재택 격리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이 때 온라인 잡화/식품의 주문 배송 (DoorDash/Instacart)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지 잡화와 식당을 위해 보배와 같이 귀한 수요를 제공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개성화된(배달/방문) 서비스의 수요가 이 유별난 시간 중 영구적인 시장을 획득했다고 여긴다. 아시아 등 지역이 다른 미국 지역의 이러한 서비스는 줄곧 저평가 상태에 있었다. 비록 취업, 경제

전망과 개인재정 상황에 비교적 큰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작업 자체는 계속 부단히 진화 중에 있었다.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비즈니스 소통방식 변화는 산업 확대와 직위 증가를 가져왔고 큰 추세가 되었다.

2020 = 의료 보건 대거 구현의 원년?

이 보고서는 이번 발병이 기초 의료 시스템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으며, 미국이 지난 100 년 동안 병을 진찰받는 방식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줄 서서 병 진찰받음-의사가 간단히 문진하고 치료함. 여기서 치유되거나 또는 병증이 가중된다.

이와 동시에, 전염병 초기에 미국 병원,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전달하는 병원에서 진단능력과 용량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 점도 '누리지' 않은 과학기술 현대화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효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의료 장면에서 '병원화'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환자가 '소비자'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원격 의료, 빠르고 즉각적인 진단, 자동화 AI 등 과학기술과 의료 보건의 결합된 '혁신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4. 양자컴퓨터 시리즈 43) 양자 컴퓨팅 진입 병목 현상 감소

— 중국과학보(中国科学报) 제공

4 월 16 일 <네이처>지는 한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일종의 현재 기술 온도(0.1K)의 15 배 온도(1.5K)에서 작동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플랫폼이 있다. 비록 이 온도 상승이 높지는 않지만 이 연구는 '열양자위치'방안은 공정상 편의성을 가져오거나 양자 컴퓨팅의 발전을 변화시킬 것이다.

<중국과학보> 첫 번째로 링크한 논문은 <실리콘 양자 칩이 1K 보다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방식> (Operation of a silicon quantum processor unit cell above one kelvin) 으로 제 1 저자는 양즈환(杨智寰)이다. 그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전기 공학과 전자 통신 학교의 양자 실험 과학자이자 엔지니어다.

0.1K 에서 1.5K 까지

양즈환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해독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제적으로 개발중인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는 절대 영도 이상 몇 분의 일도 이 내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주요 원인은 시스템에 첨가된 매 큐비트가 모두 열량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열의 증가는 양자 시스템을 방해하고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 (예: 초전도 또는 반도체 회로) 플랫폼은 약 0.1K (-273.05 ° C)의 온도하에서 작동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한계까지의 냉장 기술을 개발하려면 수백만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 설사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기존 전기회로에 삽입 후 과열로 인해 즉시 작동이 중단된다.

양즈환(杨智寰)과 같은 팀 교수 Andrew Dzurak 이 이끄는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양자위치'솔루션을 제공했으며, 이는 논문에서 검증되었다.

"우리는 실리콘 기반 MOS (metal-oxide-semiconductor) 양자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칩 기술입니다. 재료 상 실리콘 -28 동위 원소를 선택하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무스핀 재료입니다. 이것은

전자의 스핀이 더 오래 생존하게 해줍니다." 양즈환은 <중국과학보>에 "플랫폼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데 주로 우리들이 전자 스핀을 읽는 방식에 의존해 바꿉니다."라고 알려줬다.

이전에 해독한 전자 스핀은 전자를 2 차원 전자 가스 (2DEG)로 터널링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은 온도가 상승하면 쉽게 '에너지랑 모호'로 인해 전자 스핀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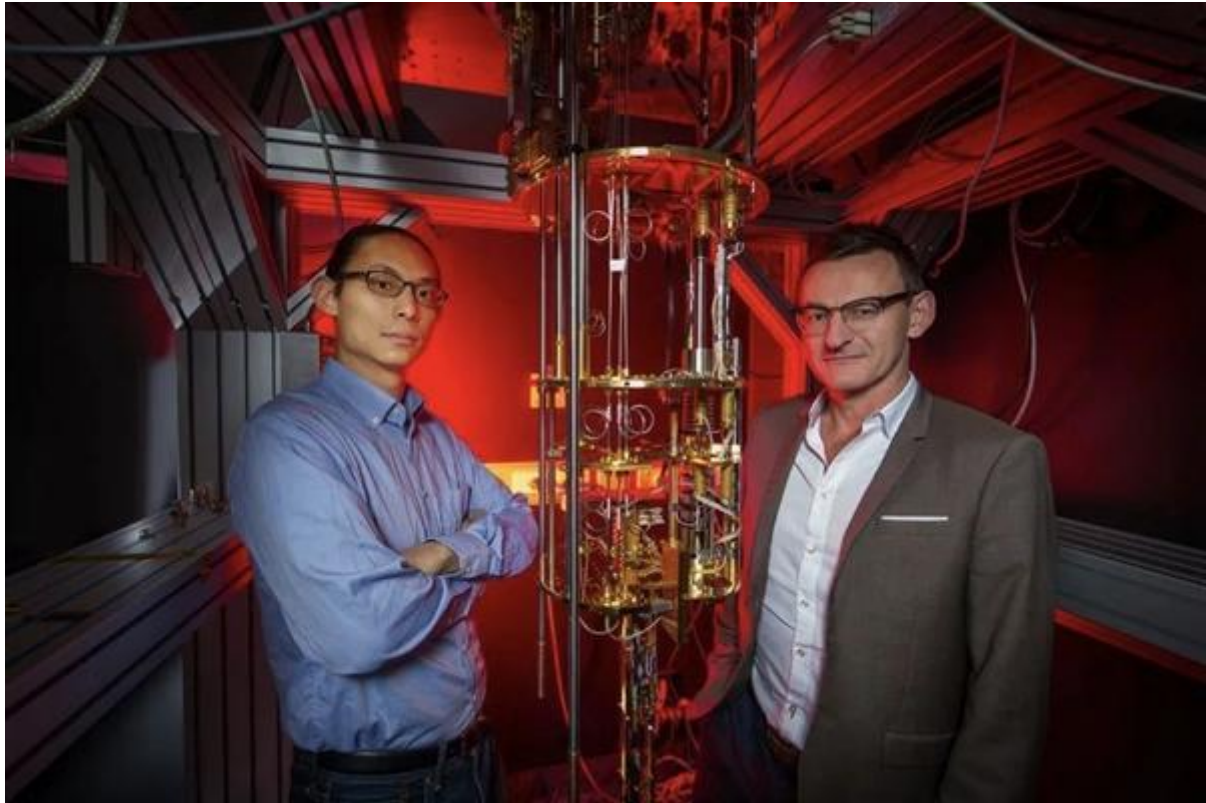


사진 1) 출처: Paul Henderson-Kelly, 양즈환(杨智寰)과 Andrew Dzurak

이번 실험 설계에서 그들은 두 큐 비트로 구성된 '단위 셀'을 설계하고, 이를 실리콘에 내장된 한 쌍의 양자점으로 제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전자 스핀 정보를 판독하기 위해 두 양자점 사이의 Pauli Spin Blockade 특성을 이용할 수 있었고 양자스핀 정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실험 또한 약간 더 높은 온도 환경에서도 계속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입문 병목 현상이 이로 인해 줄어든다

양즈환은 기자들에게 "온도가 상승한 후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첫째, 초냉각 조건에 의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고 비싼 '희석빙실' 시스템으로 큐비트를 작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더 강력한 냉각 성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저온 조작으로 전자 부품을 큐비트 칩에 직접 탑재하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이점은 개발 공정의 난도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양즈환은 설명하길, 비록 온도는 '단지' 15 배 증가했지만 산열하는 냉각성능은 천 배이상 증가하여 냉각기에 가하는 압력이 훨씬 적어진다고 했다. "현재 양자 컴퓨팅 입문의 병목은 냉각기입니다. 냉각기 압력이 낮아지면 더 많은 연구팀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다시 말해, 이 절묘한 솔루션의 실시로 온도 증폭의 결과는 기존 실리콘 칩 기술을 사용하여 양자 칩을 생산할 수 있으며 수백만 달러의 냉각 시스템없이 작동할 수 있다. 동시에 이것은 전통적인 실리콘 칩과도 쉽게 결합된다. 이는 양자 처리기를 제어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성과는 내부 인사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남방과학기술대학과 공정 연구원의 부연구원 허위(贺煜)는 이 성과를 '실리콘 양자 컴퓨팅의 또 다른 혁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지에 말하길 "1.5K 아래에서 작업할 수 있는 큐비트는 냉각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고온'이라 할 수 있다. 호주는 20 년 동안 실리콘 기반 양자 컴퓨팅에 집중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마침내 연속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거쳤으며 많은 중요한 성과를 얻어 국제적으로 실리콘 양자 컴퓨팅을 선도하는 주요한 역량이 되었다."고 했다.

중국 과학원 상하이 마이크로 시스템과 정보 기술 연구소 연구원 요우리쑹(尤立星)은 "1.5K 이 온도 냉각기도 훨씬 더 쉽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문가는 "실리콘 (양자 칩)은 강력한 반도체 공업 기술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다."고 말했다.

<네이처>지의 동기간 'back-to-back' 간행은 깊은 의미가 있다

언급할만한 것이 양즈환, Andrew Dzurak 등이 이끈 이 연구는 이번 주 <Nature>지에 오른 '열큐비트위치'에 관한 유일한 논문은 아니다. <Nature>가 간행한 또 다른 한 편의 논문 <핫 실리콘 큐비트 중의 범용 양자 논리> (Universal quantum logic in hot silicon qubits) 도 유사한 실리콘 기술을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1.1K 온도하에 작동할 수 있는 양자회로를 제작했다)

양즈환은 본지에 말하길, 상술한 논문 제 1 저자 Menno Veldhorst 가 Dzurak 팀의 전 박사후 연구원이었다고 말했지만, 두 가지 원리성 실험이 성과를 획득한 시간은 달랐다. (Dzurak 팀의 결과는 2019 년 2 월에 얻어졌고, Menno 팀의 결과는 2019 년 10 월에 달성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상호 독립적이고 상호 인증했다.

두 편의 '유사한'논문은 같은 기간 <Nature>지에서 'back-to-back'으로 발표될 수 있었고 관련 성과의 획기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논문의 연구자들은 그들이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는 가장 어려운 장애물 중 하나를 극복했다고 여긴다.



ICO News Letter by PLAYCOIN

1. 중국 심천, 화웨이 손잡고 '블록체인 산업단지' 조성...이유는? (Blockinpress, 2020.04.13)

중국 심천시가 지역 개발을 위한 기술로 '블록체인'을 택했다.

13 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즈의 보도를 인용, 중국 심천시 난산 지역정부(Nanshan District of Shenzhen)가 화웨이(Huawei)와 손잡고 지역 개발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난산 지역정부는 최첨단 기술의 모델 단지인 '쿤펑산업실증단지(Kunpeng Industrial Demonstration Zone)'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 등의 적용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쿤펑은 화웨이가 2019 년 중국 상하이 ICT 컨퍼런스 '화웨이 커넥트 2019'에서 소개한 반도체 칩이다.

이 매체는 "심천시의 이번 발표는 홍콩과 중국의 연결 도시가 되려는 큰 그림에서부터 시작했다"며 "블록체인 개발에 있어서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계산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웨이는 2018 년 서비스형 블록체인(Blockchain-as-a-Service; BaaS)을 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중앙은행은 심천 지역에 디지털화폐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화웨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 中 상무부 등 8 개 부문 연합 공지, "공급망관리에 블록체인 응용 가속"

(BLOCKCHAIN MEDIA, 2020.04.14)

중국 국가 상무부(商务部), 공신부(工信部), 농업부(农业部) 등 8 개 부문은 연합 공지를 통해 공급망 관리(supply chain)에 블록체인 등 기술의 응용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 현지 매체 시나재경(新浪财经)에 따르면, 상무부 등은 상무부 홈페이지에 '공급망관리의 혁신과 응용 위한 시범사업에 대한 공지'를 공개하면서 공급망관리 영역에 블록체인 등 기술의 응용가치를 인정했다.

이번 공지는 관련 기업에서 코로나 때문에 변한 시장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하고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인공지능 등의 신흥 기술을 활용해 공급망관리의 대규모 응용을 강조했다.

또한, 공지는 ▲공급망관리의 시범도시 창설 ▲기업의 업무복귀 가속화 ▲지역 간 협동 강화 ▲공급망관리 리스크 점검 등 임무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관리의 디지털화, 지능화 발전을 추진하며 국내외 글로벌 공급사슬의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공개했다.

3. 값싼 플랫폼, 이더리움·EOS 지원...중국 국가주도 블록체인 계획의 현주소 (COINDESK, 2020.04.16)

중국 국가정보센터(国家信息中心, SIC)가 이끄는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区块链服务网络, BSN, Blockchain Service Network)는 지난 15 일에 국내 상업용 네트워크를 출범했고, 25 일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출범할 예정이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BSN 에서 레고를 조립하듯 쉽게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개발자를 위한 기술 지원보다 훨씬 더 큰 데 있다. BSN 얼라이언스 백서는 "BSN 이 세계 각지에 자리를 잡으면 중국이 주도해 혁신을 이끈 유일한 글로벌 인프라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이 네트워크의 접근권을 중국이 통제하게 된다"고 천명한다.

이처럼 이 프로젝트는 지정학적이고 거시 경제적인 함의를 지닌다. 캘리포니아 웨스턴로스쿨 제임스 쿠퍼 법학 교수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비슷하다. 중국은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선점 효과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쿠퍼는 이 프로젝트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와 비슷하다고 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는 로봇 공학이나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이다. 이러한 시도에는 다른 국가의 혁신을 모방한다는 국가 이미지를 극복하려는 바람이 담겨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 월 BSN 의 내부 테스트 결과 발표에서 여러 용례를 다뤘다. 센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공 자원을 관리하는 스마트시티가 한 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에너지 절약을 강조했다. 또한 BSN 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신원 등록과 데이터 저장을 꼽았다.

4. 바나나톡, 중화권 최대 블록체인 SNS '빠용' 인수 공식 발표...업계 '파란'

(COINREADERS, 2020.04.16)

바나나톡이 800 만 사용자를 보유한 중화권 최대 블록체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빠용(Biyong·币用)을 인수하며 업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16 일(한국시간) 바나나톡 운영사인 주홀딩스 관계자에 따르면 싱가포르 빠용의 창시자 케빈 유와 홍콩 주홀딩스 본부장 유자룡은 지난주 중국 상하이에서 주식양수도계약식을 가졌고 주홀딩스가 51%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계약 자문은 중국 초대형 글로벌 로펌 잉커(盈科)가 참여했다. 다만 인수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정통한 업계 소식통은 "현재 빠용의 유저수와 중화권 블록체인 시장 내 영향력을 감안할 때 상당히 큰 금액에 계약이 성사됐을 것"이라며 "바나나톡을 운영하는 홍콩의 주홀딩스는 한국 회사는 아니지만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블록체인계에서 한국인에 의한 인수합병(M&A)으로는 현재까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주홀딩스 관계자는 "빠용 인수 이후 블록체인 사업은 기존의 외식사업체인 홍콩의 주홀딩스와 완전히 분리하고, 싱가포르 빠용은 바나나톡 본부에 모든 업무를 이관해 더 전문적인 크립토 개발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향후 빠용과 바나나톡은 완벽하게 한몸으로 움직이게 되고, 바나나톡의 바나나(BNA, 바나나톡 앱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자산)은 800 만 유저가 있는 빠용의 기축 통화로 사용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바나나톡 조우창 대표는 "이제 블록체인의 프로젝트의 중화권 진출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라면서 "실제 7 월에 오픈하는 바나나톡의 소셜거래소(Social Exchange) '바나나 ex'의 경우, 한국의 원화마켓과 뽀용의 BTC/USDT 마켓의 동시 상장이 가능해지는데 운영진의 단일화로 과거에 비해 더 적극적인 현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조대표는 "최근 뽀용은 글로벌 1 위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와 함께 소셜선물거래소(Social Futures Exchange)를 운영하고 있어 '바나나 ex→바이낸스'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상장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현재 한국에서 준비 중인 게임·페이 서비스가 뽀용에 기본 장착되면 실사용자가 늘어나는 등 상호간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조대표는 "이제 메인넷(퍼블릭 블록체인) 시대는 가고 실생활에 밀접한 SNS 코인이 뜰 차례"라고 역설했다. 그는 "메인넷의 발전은 앞으로도 중요하겠지만, 메인넷을 통해 생성된 코인들의 실생활 사용은 매우 어려워 대부분이 무용지물이다"며 "이젠 누가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에 대한 운영기술이 요구되는 시대이고, 또 어떻게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에 의해 코인의 가치가 평가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대표는 "일례로 현재 유행하고 있는 디파이(DeFi : 탈중앙화 금융)의 경우, 설명 아무리 좋은 은행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은행만을 사용하기 위한 다운로드를 성사시키기란 대부분의 단일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는 프로젝트로선 우수한 기술력에 비해 마케팅의 어려움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반해 바나나톡, 뽀용과 같이 이미 많은 유저수를 확보한 SNS 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그냥 올리기만해도 기존 유저들의 접근이 손쉽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대표는 "전세계 24 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세계적인 SNS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프로젝트 공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극도의 예민한 대응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하지만 바나나톡은 진작 SNS 의 중요성과 더불어 중국에서도 진성 블록체인 유저들이 활동하고 있는 뽀용의 800 만 유저수의 가치에 주목하며, 2 세대 글로벌 SNS 시대를 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발견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인수 계약을 성사시키게 되었다"고 계약 후일담을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이번 인수를 통해 SNS 만이 가질 수 있는 실생활 파워를 내세워 '바나나(BNA, 디지털자산)는 한국의 이더리움(Ethereum, ETH)'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걸고 세계적인 프로젝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바나나톡 관계자는 현재 뽀용과 협의 중인 단일화 정책에 따라 다음주부터 다양한 중국발 소식들을 생태계에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122)

본 자료는 아시아디자인연구원(ADI) 원장이며, 상하이교통대학 디자인 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윤형건 교수의 글입니다. 본 자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윤형건 교수(yoon_bam@126.com)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으로 보는 대통령 후보자 포스터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났다. 승리를 잡은 당은 국민을 행복하게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야한다.

민주주의 꽃 선거는 대한민국이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면서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첫 선거는 1948 년 5 월 10 일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일명 5.10 총선거이다.

그 후, 1948 년 7 월 20 일 간접선거로 초대 대통령선거를 하였다.

이 번 기회를 빌려 한국대통령 후보 포스터를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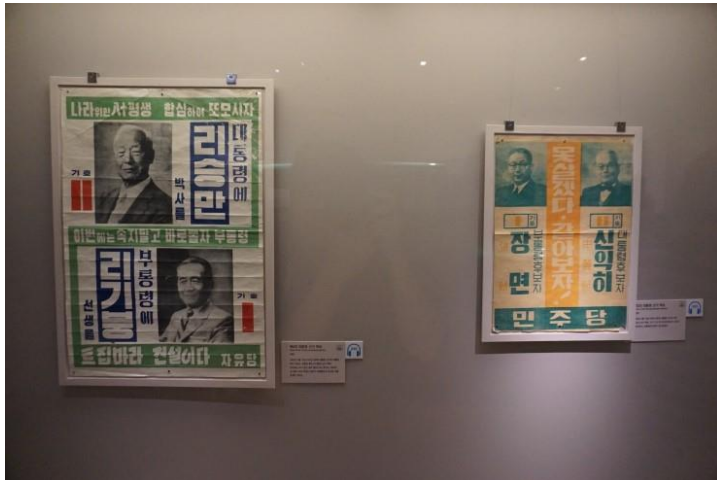


1952 년 8 월 5 일, 제 2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포스터



1956 년 제 3 대 대통령, 부통령 선거 당시 후보 포스터

1956 년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이승만, 이기붕 후보의 선거 포스터이다. 당시에 색채를 사용하였다. 당시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특이하다.



1960 년 3 월 15 일, 제 4 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포스터

1960 년 3 월 15 일, 치루어진 제 4 대 선거는 부정선거로 419 혁명으로 무효 처리된다. 1960 년 8 월 12 일 간접 선거로 제 4 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는다.



1963 년 10 월 15 일, 제 5 대 대통령선거 후보 포스터

흑백 포스터로 다수의 후보자의 포스터가 벽에 붙어있다. 풀을 이용하여 벽에 붙여 비바람에 약하였다. 쉽게 훼손이 되었다.



1967년 5월 3일, 제 6대 대통령 후보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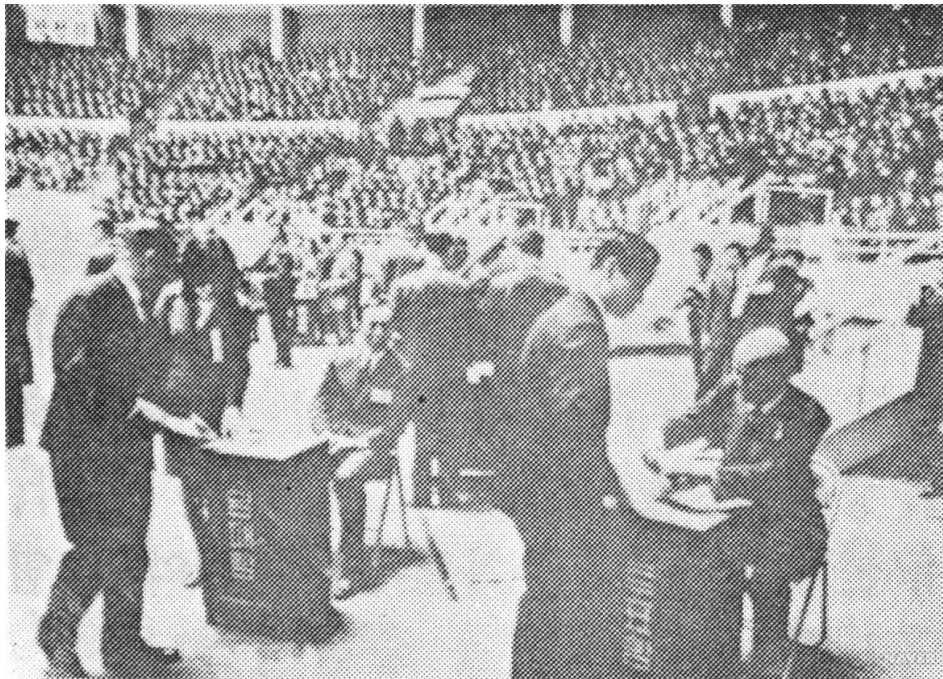
파란 혹은 붉은 계통의 색을 포인트 색으로 사용하여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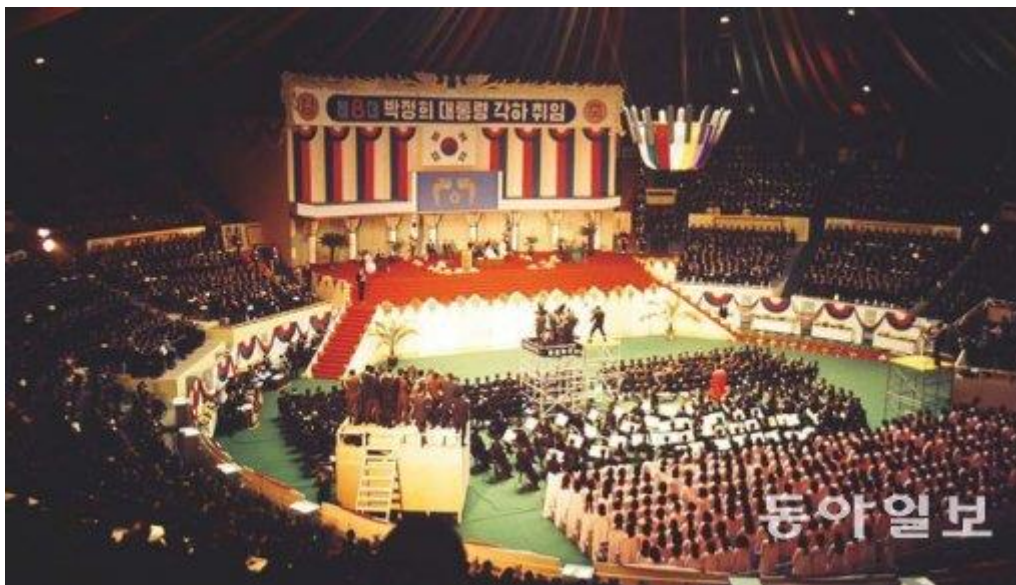
1971년 4월 27일, 7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들의 포스터이다.

7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들의 포스터이다. 종이에 흑백으로 인쇄되어 일반 담벼락에 풀로 붙였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 후보자 포스터도 일반 종이에 흑백으로 프린터하였다. 포스터를 공공의 장소 혹은 남의 집 담벽에 풀로 붙였다. 비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사람 손에 의해 훼손당하기 일수였다. 당시는 어쩔 수 없었다.

1971 년 7 대 선거에서 박정희는 53%의 득표율을 얻어, 45.3%의 지지를 받은 김대중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8대 대통령 선거: 1972 년 12 월 23 일 - 간선제 박정희는 1972 년 10 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신헌법을 제정. 12 월 8대 대통령 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99.9%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



9 대 대통령 선거: 1978 년 7 월 6 일 - 간선제
박정희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99.8%의 지지로 당선
그러나 1979 년 10 · 26 사태로 박정희 사망.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10 대 대통령 선거: 1979 년 12 월 6 일 - 간선제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았던 최규하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0 대 대통령으로 선출.

그러나 6 일 후 전두환 등 신군부에 의한 12 · 12 쿠데타 일어남.



군사 구테다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1981 년 대선 선거공고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알렸다.

1981 년 전두환 후보의 선거공고를 보면 흑백이다. 당시는 5 천여명의 선거인단 간접 선거를 통하여 급조된 선거였기에 별로 신경을 쓸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았다. 당시 전두환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그 후, 11-12 대 대통령으로 역임한다.



13 대 대통령 후보 포스터

13 대 포스터부터 풀칼러의 포스터가 나온다.



14 대 대통령 후보 포스터



16 대 대통령 후보 포스터



17 대 대통령 후보 포스터가 비닐 안으로 들어가서 비바람과 사람들의 훼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18 대 대통령선거 후보 포스터



19 대 대통령 선거

한 번 정리하여 보았다.

수많은 인물이 나왔고, 그를 알리는 포스터도 세월에 따라 변하였다.

한나라의 장래는 국민에게 부여받은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들이 잘 해 주길 바란다.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1. 코로나로 드러난 '일본경제의 취약성'의 근본원인 (동양경제온라인, 2020.4.16)



사진 1) 출처: 동양경제온라인. 코로나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텔레워크도입'도, 작은 기업일수록 진행이 늦는다고 한다 (촬영: 오가따후미시게) 옥스퍼드대에서 일본학을 전공, 골드만삭스에서 일본경제의 "전설의 애널리스트"로 이름을 날린 데이비드 애트킨슨씨.

퇴직 후도 일본 경제의 연구를 계속해 일본을 구하는 수많은 제언을 해 온 그는, 이대로는 "1)인구 감소에 의해서 연금과 의료는 붕괴한다" "2)100 만사 단위의 중소기업이 파탄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에서, 신간 "일본 기업의 승산"에서, 일본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생산성이 낮은" 문제의 근원은 "규모가 작은 기업이 너무 많은"산업 구조에 있는 것을 밝혀 온 지금까지의 연재에 이어, 이번에는 코로나 문제로 노출된 일본의 산업 구조의 취약성을 해설해 주었다.

작은 기업일수록 '텔레워크 도입'을 하지 못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만연에 의해, 많은 일본 기업이 궁지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파탄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위기에의 대응력은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강하며, 작을수록 약해집니다. 나라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평균 규모가 클수록 위기에 강하고, 작을수록 위기에 약해집니다.

또 이런 유사시에는 기업만 망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의 생명이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봐도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직원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쿄 상공회의소가 2020 년 3 월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텔레 워크 도입율은 종업원수 300 명 이상의 기업이 57.1%였던 것에 반해, 50 명 이상 300 명 미만의 기업에서는 28.2%, 50 명 미만의 기업에서는 14.4%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50 명 미만의 기업 경영자도 악의적으로 도입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인원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도입이 안 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와 같은 기업이 많은 나라일수록 당연히 텔레워크 도입률이 구조적으로 저하되므로 "Stay at home"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가 늘어날수록 그 나라의 생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정이 압박됩니다. 그러면 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만큼 데미지가 큰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한정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중소기업은 나라의 보물이다"라고 하는 일본의 "상식"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위기로 일본 산업구조의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중소기업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찌기 "일본의 보물"이었던 중소기업이, 왜 산업 구조의 약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해설해 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가치는 "사람을 쓸데없이 사용한다"는데 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이 무척대고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중소기업은 나라의 보배다 일본의 기술을 지키는 것은 중소기업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런 일면도 없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고객과의 거리감이 가깝고, 또 의사결정이 빨라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아질수록 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종업원이 적고 분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아지지 않고, 기계화도 좀처럼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효율화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노동력이 넘쳐나는 시대에 중소기업의 존재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인간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노동집약형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을 헛되이 써주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자체의 노동생산성이 낮더라도 이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률이 높아지면 국가 전체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의 존재도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란 GDP 를 총인구로 나눈 것입니다(생산성=GDP/총인구). 또, 노동 생산성이란 GDP 를 취업 인원수로 나눈 것입니다(노동 생산성=GDP/취업 인원). 여기서 생산성은 노동생산성에 노동참여율을 곱한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산성

=GDP/총인구

=(GDP/취업인원)×(취업인원/총인구)

=노동생산성 × 노동참가율

이 식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거나, "노동 참가율"을 높이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1000 만엔이고, 노동 참가율이 50%라면, 나라 전체의 생산성은 500 만엔입니다. 이 나라에서 중소기업이 많이 생겨났고, 그 기업들이 고용을 늘린 결과 노동 참여율이 60%까지 높아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노동 생산성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고 해도, 생산성은 500 만엔에서 600 만엔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중소기업은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보배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인구감소의 시대에 돌입했고, 이러한 경향은 향후 수십년에 걸쳐 계속됩니다. 사람을 쓸데없이 많이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존재는 강점이 아니게 되고 오히려 약점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일본기업의 99.7%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일본 생산성이 낮다는 사실은 일본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일본 중소기업의 참 모습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6 년 현재 일본에는 357 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체 기업의 99.7%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중소기업을 묶어 "중소기업은 일본의 보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래 너무 난폭합니다. 물론 357 만 개나 있으면 옥석혼잡인 것은 당연합니다. 안에는 '옥=보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돌'도 많이 섞여 있을 겁니다.

물론, 일본의 중소기업 중에도 보물이라고 해도 좋은 기업도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균치로 보면 일본 중소기업들은 워낙 생산성이 낮고, 주는 월급도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설령 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은 보배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아는 동네 공장은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어. 정말로 보물이야"

이런 자신이 알고 있는 특수 사례를 들어 일반화하고, 그것이 마치 일본 중소기업 전체에 해당하는 듯한 말을 하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일본 중소기업 전체의 실태, 성과를 직시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일본에는 357 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일본의 중소기업 중 중견 기업은 53 만 개였고 소규모 사업자는 305 만 개였습니다. 평균 종업원 수는 중견기업이 41.1 명이었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3.4 명입니다. 놀랍게도 1000 만 명의 노동자들이 이 공알 같은 소규모 사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은, 50% 이상의 일본 기업의 매상은, 1 억엔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당연히 경영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바로 경영이 곤란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일본의 보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소개한 것 같은 기업군과는 다른 회사가 아닌가 추측합니다. 아마 중견 기업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작은 기업이 많으면 여러 폐단이 생긴다.

종업원이 3.4 명 밖에 없는 소규모 사업자로, 도저히 수출등을 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해외에 수출을 하려면, 종업원수 158 명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원 수가 3.4 명인 회사에는 최첨단 기술도, 캐시리스화도, 빅데이터도, 이노베이션도 거의 무관합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긴급시의 텔레워크 도입율이 낮은 것은, 이 기사의 첫머리에서 본 대로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기업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최첨단 기술의 보급률이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평균 종업원수가 적을수록, 유급 휴가 취득율이 저하합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직원 개개인에게 드는 부담이 무거워 휴가를 낼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기업 평균 규모가 작은 나라일수록 여성의 활약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의해서 증가하는 현역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 활약의 추진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여성 활약을 진행시키고 싶어도, 작은 기업만의 산업 구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좀처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아지면 노동자의 전문성이 저하됩니다. 기업 수가 늘어날수록 국가 전체의 설비투자 중복이 늘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월급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재정이 악화하고, 저출산이 진행되어 버리는 일도 알고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이 연재 속에서 재차 설명합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국보라고 하기에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폐해가 너무 많습니다. 실업자가 늘지 않도록 통합, 합병을 촉진하고 기업 규모를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데비드 · 아트킨슨: 코니시미술공예사사장

2. 반복되는 '거품붕괴'로 속이 드러난 아베노믹스는 진흙탕 (DIAMOND, 2020.4.15)



사진 1) 출처: JJI

리만사태로부터 10 여년 또 반복된 거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전 세계 경제활동이 급격히 차단되면서 세계는 "대공황"의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NY 증시의 다우존스 평균주가는 3 월 9 일 2013 달러나 떨어졌고 12 일 WHO(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선언을 한 것을 계기로 2352 달러 하락과 다시 2000 달러 이상 떨어졌다.

15 일에는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4 년 3 개월 만에 다시 제로금리를 채택, 양적완화 정책을 재개했음에도 16 일에는 하루 만에 3000 달러 가까이(2997 달러)나 추가폭락이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전인 2 월 12 일 다우존스는 2 만 9551 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나치게 높은 주가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또 한번 거품 붕괴를 반복하게 됐다.

아베 정권은 4 월 7 일 총사업 규모 108 조 엔의 긴급 경제대책을 확정했고 미국도 2 조 달러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거시정책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정책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규제 빠져나갈 구멍 찾아, 새 금융상품 "다음 거품" 만들어 회복 노리다

리먼 쇼크(2008 년 9 월)와 같은 큰 버블 붕괴로 곤욕을 치르고도 왜 반복적으로 버블에 유혹되는 것일까.

애당초 경제학은 투기의 합리성을 설명하지만 투기의 파괴성 설명은 없다. 거시경제 모델에는 반드시 버블 붕괴가 끼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나 정책 책임자에게 거품이 반복되는 이유는 어렵지 않다. 버블 붕괴로 인해 생기는 거액의 부실채권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은 심한 고통을 가져온다. 원래 회계분식이 엄격하게 요구되지만 경영책임이나 감독책임을 피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또 다른 거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경제학"이나 "이코노미스트"는 산더미처럼 있다.

미국 역시 리먼 사태 이후 부실화된 증권화 상품이 복잡하고 거액이어서 본격적인 부실채권 처리를 실행하지 못했다. FRB 는 제로금리 정책을 펴고 동시에 국채 매입에 따른 양적 금융완화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대량 공급했을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담보증권을 대량 매입해 주택거품을 직접 구제하는 길을 택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금융정책을 총동원하는 것은 필요했지만 경기가 회복된 후에도 오랫동안 금융완화가 이어졌다. 결국 더 큰 거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제를 살리려 해 온 것이다.

확실히 오바마 정권은, 은행의 펀드에의 출자 제한이나 헤지 펀드의 보고 의무 등, 이른바 "볼커·룰"을 도입, 실효성에는 문제가 있었다고는 해도, 금융기관의 투기에 제동을 걸려고 했다. 그것이 2010 년의 도드·프랑크법(금융 규제 개혁법)이 되어, 금융 안정 감독 평의회(FSOC)와 금융 조사국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빠져나갈 길을 찾아 항상 규제당국을 벗어나는 새로운 형식의 펀드와 금융기법이 생겨난다.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는 별도로,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하에 놓여지는 CTA(상품선물투자 고문업자)가 대두해 왔다. CTA 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고빈도 거래(high-frequency trading)를 구사하여 모든 선물거래에 대한 트렌디 전략과 분산투자에 기초하여 마련하도록 움직인다. 그것은, 주식선물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선물거래에 관해서, 순간에 동향을 파악해 컴퓨터의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량의 고속 거래로 벌어진다. 그 결과, 리먼 쇼크 이상의 볼러틸리티(부동성浮動性)가 생기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나 FRB 의 저금리 정책으로 자금이 남아도는 가운데, 대기업등을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이 진행되어, 한편으로 고수익을 노리고 등급이 낮은 회사채가 매입되었다.

초완화로 “주가-엔저” 유도 아베노믹스는 “거품정책”

재정금융정책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므로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부실채권과 과다채무가 근본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항상 불씨는 남는다. 좀비기업이 남고 오래된 산업구조가 남으면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의 경우는, IT 대기업등에 의해서, 신기술을 기초로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났기 때문에, 주가 버블의 한편으로 실물경제의 지력도 올랐다.

하지만 일본은 어떨까. 기술혁신이 일어나 산업구조의 전환을 하지 못한 채 경쟁력을 잃어 첨단분야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의 뒤를 밟아왔다.

그 마지막 국면에서 잡힌 것이 아베노믹스였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책임한 거품 만들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2013 년 4 월 시작된 아베노믹스는 인플레이션 타겟 정책에 따라 “2 년”에 “2% 물가 목표” 실현을 내세우며 (2 년간이라면 몰라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7 년간 대규모 금융완화를 계속해 왔다.

아베노믹스가, 실태로서 작동하고 있던 메카니즘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는, 산업 쇠퇴하에서, 초저금리와 일본은행이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 주가 상승·엔저를 유도하고, 더욱이 임금을 인하해, 간신히 대기업 수출 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어떻게든 유지시키려고 하는 정책이었다. 대규모 금융완화는 엔화 약세 유도를, 그리고 근로방식 개혁이나 생산성 혁명(손쉬운 “입관난민법” 같은 외국인 고용 확대)은 임금 억제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임금 억제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국내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해도 용자처가 없어서, 아베노믹스는 필연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특히 대도시권의 맨션)에 버블적인 자금을 흘리게 되었다. 게다가 그래도 국내 투자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금은 국내가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가운데, 플러스 금리였던 미국으로 흘러, 미국의 자산 버블을 지탱해 왔다.

요컨대 아베노믹스는 국내외 양면에 걸쳐 거품 유도 정책이었던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일본은행은 ETF(지수 연동형 상장 투신)를 구입해, GPIF(연금 적립금 관리 운용 독립 행정법인)도 가세해, 의도적인 주가 인상을 실시해 왔다.

2013 년 4 월 2 일 닛케이평균주가는 1 만 2003 엔이었지만 올해 1 월 20 일에는 2 만 4083 엔까지 거의 두 배까지 올랐다. 역시 대도시권 신축 아파트 값도 올랐다.

누구나 이대로는 쇠퇴가 가속화될 것임을 희미하게 알면서도 갈 데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보지 않는다.

미지근한 물의 편안함에 젖어 “내 죽은 뒤에 홍수야 오라”는 식으로 “지금만 돈만 나만”이라는 찰나주의가 진행돼 왔다. 거기에, 리먼 쇼크로부터 거의 10 년을 거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수반하는 세계적인 버블 붕괴가 덮쳐 왔다.

금융정책은 “축 늘어진 고무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주식을 계속 보유 중인 일본은행

하지만 이번 버블 붕괴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종래의 버블 붕괴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와 함께, 실물경제의 악화로부터 버블 붕괴가 깊어져 간다는 역방향을 더듬고 있는 점이다.

또 하나는 아베노믹스에서 7 년간 비정상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이어가는 바람에 잔뜩 늘어난 고무줄 상태가 되어, 중앙은행으로서의 정책 여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떨어져 더 이상 금리를 낮추면 이자 축소에 빠진 지역금융기관의 경영애로가 깊어진다. 도쿄올림픽은 내년으로 연기됐지만 실물경제 악화가 장기화되면 본격적인 부동산거품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지방은행 신용금고 등 약소금융기관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대형 금융기관도 평안할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에 뚜렷한 감산 합의가 안 돼 원유가 배럴당 20 달러대에 머물고 있지만 저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셰일오일 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킨다. 그것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셰일 오일 기업의 채권이 편입된 CLO(론 담보 증권)가 파탄을 부릴 위험성을 강하게 한다. FRB 와 잉글랜드은행, 캐나다 중앙은행이 CP 와 회사채 매입을 시작했는데 일본 금융기관들은 CLO 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만약 주식시장에 이어 신용시장이 붕괴되면 기업이나 금융기관 경영에 큰 타격을 입힌다.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와 함께 ETF 의 매입액을 확대시켜 왔다. 지금은 총액은 30 조엔을 넘어 일본의 주가 총액의 5%미만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 팔면 금세 폭락하기 때문에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주식을 계속 사게 된다. 그리고 이번 주가 폭락으로 일본은행 자신이 밸런스시트에 타격을 받게 되어 있다.

3 월 10 일의 참의원 재정 금융 위원회에서, 쿠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은행이 보유하는 ETF 의 시가가 부가를 밀도는 손익 분기점은, 평균주가가 1 만 9500 엔 정도로 했다. 그리고 18 일의 참의원 재정 금융 위원회에서는, 주가 1 만 7000 엔 전후라면 잠재손해가 2 조 3 조엔이라고 답변했다.

주가가 1 만 6000 엔까지 하락하면 잠재손실은 4 조 5 조 엔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은행이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당금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 잠재손실을 안는 한편으로, 팔면 주가가 한층 더 떨어진다. 일본은행의 주식매입도 국채 매입과 마찬가지로 “답이 없는 다단계판매”에 빠져 있다.

소비세 감세는 디플레이션 부른다 정책파탄의 아베정권

최근 높아지는 것은 재정정책으로의 전환이지만, 위험한 정책론이 난무한다. 그 상징이 “소비세 감세”다. 코로나쇼크로 소비가 위축되는 가운데 긴급 경제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는 자민당 소장파 의원, 일부 야당이 주장했지만 소비세 감세는 오히려 디플레이스파이럴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소비가 줄고 물가가 하락할 것 같은 상황에서 소비세 감세를 실시한다면 사람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자제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는, 세율이 높을 때에 구입한 원재료 재고가, 제품이 되어 팔릴 때에는 가격과 세율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차례차례로 손실이 발생한다.

이 시차가 해소된다 해도 이후에도 물가가 점점 내려가면 항상 디플레이션 압력에 의해 사업자는 수익이 압박되므로 임금하락과 고용삭감을 야기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층 더 저가격 지향을 강화해 갈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소비세 인하에서 가장 고통받는 쪽은 가격 지배력이 없는 중소 영세업체들이다.

아베노믹스는 거품을 잔뜩 부채질해 오다 정작 거품이 꺼지자 디플레이션을 가속하는 정책을 하기 쉽고, 이윽고 정책으로서 파탄이 났다.

본래,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

아베 정권은 4 월 7 일 긴급사태 선포와 함께 총사업비 108 조 엔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재정지출은 39 조 엔으로 추산돼 총리는 과감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쇼크에 대해서 종래의 수요 환기책에서는 효과는 한정된다. 원래 재정금융정책은 “다 늘어나 버린 고무”여서 힘들다.

산업 쇠퇴에 더해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 미국 한국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를 맞고 있다. 미중간에 무역마찰도 계속되고 있어 일본은 종전과 같은 엔저와 임금인하를 통한 수출주도 경기회복을 하지 못할 것이다.

재정금융정책을 계속 확대해 왔지만 결국 저성장으로 끝나 재정 재건의 길은 절망적일 수 있다. 마치 개미와 베짚이의 우화 같은 전말이다.

지금 당면한 정책으로 중요한 것은 매출이 급감해 돈줄이 막힌 중소 영세기업의 도산 회피와 일자리 확보다. 야당이 요구한 26 조 엔의 납세 유예는 기민한 조치지만 6 조 엔의 직접 급부는 긴급도에 근거하지 않아 신속성이 부족하다.

당장 일자리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대폭 증액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바운드가 사라져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 숙박업 외식업 소매업 등은 시급히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 특히 비정규직의 감축을 야기한다. 수입이 줄어든 가계에 대한 생활지원도 속도감이 떨어진다. 수입이 줄어 주민세 비과세가 된 세대나(급여 명세에서) 소득이 반감한 세대에 30 만엔을 급부해, 중소·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200 만엔의 급부금을 내지만, 수속이 번잡해 6 월까지 지급되지 않을 것 같다.

긴급 경제대책은 일단 무이자 무담보 연결대출인 40 조 엔이 넘는 기업금융 지원이 걸치려 규모를 키웠다. 하지만 일본 경제의 중기적 회복이 안 되면 빛은 고스란히 부담이다.

보다 즉효성이 높은 고용유지책을 취하는 동시에 신형 코로나 문제가 수습된 후를 내다보고 산업재생이나

첨단기술개발 지원, 에너지 전환을 돌파구로 삼아 내수를 두텁게 하는 지역분산 네트워크형 시스템 구축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미래에 밝은 전망을 주는 것이야말로 필수적이다.

코로나 쇼크의 경제 타격을 억제하는 줄기정책은 우선 감염확대를 막는 것이요, 의료체제 정비요, 치료약 및 백신 개발이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의 수습이 늦어질수록 경제정책은 약효가 없기 때문이다.

(릿쿄대학대학원특임교수 카네꼬마사루 金子 勝)

3. 이 상황에서도 “긴급사태 다음”의 논의를 피하는 일본인들의 위험한 낙관주의 (President Online, 2020.4.14)



사진 1) 출처: 시사통신포토. 신형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확대에 따른 긴급사태선언 발령에서 하루가 지나,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는 아베신조 수상(우) = 2020 년 4 월 8 일, 수상관저

아베신조 총리는 4 월 7 일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1 도 7 개 현에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막는 조치이지만,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을 때, 다음에 어떤 수를 쓸 것인가. 그것을 위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요시무라 오사카부 지사가 비공표 감염예측 공개한 이유

3 월 3 일 연휴를 사이에 두고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엔 긴장감이 돌았다. 코로나 피로로 맥이 풀린 틈을 타듯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대될 것 같은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때 오사카부와 효고 현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와 이도 토시조 효고현 지사가, 연휴중의 오사카-코베간의 왕래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요시무라 지사는 이전까지 비공표였던 나라의 감염 예측을 굳이 공표하고, 오버슈트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예측은 나라의 전문가로 구성된 클러스터 대책반이 정리한 것이다. 도쿄도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는 전부터 건네지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거기에는 시급히 손을 쓰지 않으면, 오사카에서 신형 코로나 감염자가 지수 함수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기록되어 있었다. 요시무라 지사에게 보조를 맞추고, 효고현의 이도지사도 움직였다. 3 일 연휴에 오사카에 가는 것을 삼가도록, 현민에게 자숙을 요청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무렵부터 신형 코로나 감염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연휴가 끝난 3 월 24 일경부터 감염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이 때 침묵을 지킨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연기 문제로 분주해 상황을 만만하게 보지 않았는가. 일부에서는 그런 사추도 받았다.

최초로 “록다운” 언급한 고이케 도지사

연휴가 끝나자, 코이케 지사는 단번에 가성(加城)에 나선다. 23 일의 기자 회견에서는, 일본의 정치가로서 처음으로 “록 다운”(도시 폐쇄)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지적으로 해외에서 많은 재류국민이 돌아오는 상황이 있었다. 이런 분들을 기점으로 하는 클러스터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오버슈트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강력한 사회적 격리책을 쓰는 것 외에 반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강력한 사회적 격리책”, 두말할 나위도 없이 “록다운” 얘기다. 회견에서는 한층 더 “도시의 봉쇄, 이른바 록다운 lock-down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한 어조로 다짐한 것이다.

이 발언은 사전에 아베 총리나 관저와 조율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선언발령에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 발언이 도민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많은 사람에게 대도시·도쿄에서도 록다운 lock-down 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을 상기시킨 것은 틀림없다. 타이밍을 맞추는 듯, 일본을 대표하는 코메디언 시무라켄씨가 신형 코로나에 감염되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3 월 29 일의 일이다.

코이케 지사의 록다운 발언과 “시무라켄의 죽음”. 이 2 개가 “코로나 피로”로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있던 일본인의 의식을, 한 순간에 확 잡았던 것이다.

왜 아베는 결단을 미뤘나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날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신형 코로나의 위협을 앞두고 국민들 사이에 긴장감이 일시에 높아졌다. 거기에 맞추듯, 개정된지 얼마 안된 “신종인플루엔자등 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에 주목이 모였다. 이 법률에 따라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면 코로나에 급격한 감염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지 않을까. 오버슈트 우려에 노출됐던 국민들 사이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커졌다.

정부도 준비를 서두른다. 3 월 26 일 오후에는 돌러가며 내각회의를 열어 대책본부 설치를 결정한다. 동본부는 비상사태 선포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게 돼 있다.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는 조건은 두 가지다. 1)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현저하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국적이고 급속한 만연으로 인해 국민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2 가지다.

3 일 연휴가 끝난 뒤에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갖춰진 것처럼 보였다. 추격하듯 일본의사회 카마야치 사토시 전무이사가 30 일 기자회견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긴급사태 선포는 그만 발령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여론의 기대감에 이해를 표하면서도 이 단계가 돼서도 완강하게 신중한 자세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다. 정치 평론가 다사키시로 씨는 정부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 관료나 추종자 등 주변은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는 분위기지만 관저의 중추는 오히려 매우 조심스럽다고 TV 에서 말했다.

입헌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에 이르러서는 “내지 않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선언할 때는 이미 넘은 것 아니냐”(4일 아사히신문)고 미루는 총리에 대한 비판을 언급했다.

“필요하면 주저 없이 하겠다”, 이는 아베 총리의 입버릇이기도 하다. 그 수상은 4일의 참의원 결산 위원회에서도, “현시점에서(선언을) 낼 상황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 “선언이 나왔다고 해도 프랑스와 같이 도시를 봉쇄할 수는 없다”고 코이케 지사의 일련의 발언을 부인하는 듯한 설명을 일부러 덧붙였다.

도지사 발언에 감춰진 큰 문제

수상과 도지사 사이에는, 밖에서 보고 있으면 분명히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3월 23일에 코이케 도지사는 “록 다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었을까. 제멋대로인 추측이지만 지사는 한 사람의 정치가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호소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록다운 발언 전에는 “접대를 동반한 저녁식사”의 자제도 요구하고 있다. 오버슈트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긴장한 상황속에서, 도민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대처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의 위기감을 부추기려고 했다. 그것은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설득력”의 하나일 것이다. 리더십이라 해도 좋다. 이것이 설사 모종의 퍼포먼스였다고 해도 비난받을 만한 발언은 아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는 큰 문제가 숨겨져 있었다. 현재의 특조법이나 법체계 그대로는 지사가 말하는 대도시의 록다운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답변이 옳다.

특별조치법에는 록다운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이 법에 따라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처럼 도시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무리 확대 해석해도 할 수 없다.

특별조치법은 감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맡기고 있다. 축이 되고 있는 것은 이벤트의 개최 중지, 초중고의 휴교, 점포나 시설의 이용이나 사용의 정지등에서, 주최자나 관계자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강제력을 동반하는 것도 있다. 의료시설을 증설할 때 지사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 등 필요한 물자의 보관을 명령할 수도 있다.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은닉하거나 팔기를 꺼린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스크 등 필수적인 물자를 “특정물자”로 지정하면 제조업체나 수입업자, 유통업체에 매도 요청이 가능하다. 업자가 거부하면 강제 수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JR이나 사철, 버스 같은 교통기관을 차단할 수 없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문은 특별조치법 어디에도 없다. 교통수단을 멈추지 않는 한 긴급사태 선포에 따라 오히려 무증상 감염자가 노인이 많은 지방으로 확산되는 사태도 빚어질 수 있다.

긴급사태 선포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름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특별조치법으로 신형 코로나 감염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너무나도 일본적 위기대응

일본에서 비상사태라고 하면 대부분 지진이나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시작으로 동일본 대지진, 쿠마모토 지진, 각지를 덮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는 빈번히 이 나라에 덮쳐 왔다. 그때마다 피해지역에는 자위대가 출동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다.

피해지에서 열심히 인명구조와 지원활동을 벌이는 자위대나 자원봉사자의 모습은 일본에서 반복되는 당연한 위기대응으로 사람들의 의식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이재민에 달라붙어, 열심히 구원 활동을 실시하는 자위대의 헌법상의 자리 매김 등 누구 하나 문제 삼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본적인 "위기 대응"은 법률적으로는 항상 애매하고, 웬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가 생각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신형 코로나 위기에도 이어지고 있었다.

PCR 검사보다 클러스터 제거를 중시하는 감염 확대 방지 대책.

면역조사에 비중을 두는 이 방식은 "일본 방식"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자숙요청을 비교적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는 국민성, 건강이나 보건의 배려하는 생활습관 등 일본인의 특성과 맞물려 이 방식은 성립되고 있다. 의료체제의 붕괴를 막는 방파제이기도 했다.

PCR 검사수가 적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의사 간호사 긴급의료가 가능한 병원 수에 병상 인공호흡기 ECMO(에크모=체외식막형인공폐)와 같은 고도의 의료기기에 이를 다루는 인적자원 등 의료자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가운데,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일본 방식에 의한 감염 방지책은 유효하게 기능해 왔다.

하지만, 이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의 부담이 증대하고, 의료 체제가 팽박해, 감염 경로 불명의 감염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이 방식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코이케 지사의 "룩 다운"발언이 튀어나왔다. 특별조치법과 룩다운이 혼동돼 긴급사태 선포 발령을 여론이 요구하게 된다. 특별법 개정을 논의한 국회에서 선언발령은 신중하라고 요구했던 야당의 주장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여론의 요구 고조에 따라 의사사회나 전문가, 학식 경험자가 부추긴다. 그것을 언론이 연일, 자못 당연하듯이 보도한다. 그동안 긴급사태 선포가 감염 확산 저지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 선언하면 사태는 개선된다, 분위기만 고조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도 조기 발령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리하여 긴급사태 선언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감염 방지의 카드가 된 것이다.

다음의 한 수 논의조차 없는 위기의식이란...

스즈키 나옴이치 홋카이도 지사는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선수를 쳐서 임의로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도민에게 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너무 이른 것은 아닌가 하는 타이밍에 행한 이 선언이, 감염 억제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 이를 정치적 영단이라고 할 것이다.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서 한국은 개인정보를 희생하고, 스마트폰상에서 감염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대만은 마스크 유통에 국가가 직접 개입했다. 중국은 국가권력으로 룩다운을 강행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법률에 따라 외출금지 명령을 내렸다. 개인의 권리를 강제로 제한하고 위반자에게는 벌칙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감염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할 것인가. 아직까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의 주선으로 실현된 천마스크 배포는 해외 언론에 "아베노마스크"라고 야유를 받고 있다. 일본적인 긴급 대응책은 국제적인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느슨한 일본 방식으로 신형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것으로 이기면 일본 방식은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하지만

서구에서는 코로나와의 전쟁을 아예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어려운 싸움이라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시국채" 발행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방식이 깨지고 오버슈트 터졌을 때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일본방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악의 사태를 상정한 수단은, 긴급사태 선언과 병행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손실 보전을 병행한 점포 강제 폐쇄, 마스크 국가 배포, 교통 차단, 기업 활동 제한 등 현재로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없다. 그 이전에 논의조차 없는 것이다. 선언을 한 아베 총리도, 고이케 지사도 이번에는 보조를 맞춰 록다운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어쩌면 이를 들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혼자 싱글벙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4. 코로나위기가 부추기는 반글로벌화와 국내회귀 (동양경제, 2020.4.14)



사진 1) 출처: REUTERS/Denis Balibouse, WHO는 국제협조를 실현하지 못하고, 신뢰감도 얻지 못하고 있다

작년말 중국에서 그 존재가 문제가 된 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3개월정도로 전세계에 확산되어 버렸다. 감염확대의 배경에는 글로벌리제이션이 있다. 이탈리아에 이어 역내 각국이 감염 폭발에 휩쓸린 EU(유럽연합)는 그야말로 세계화의 실험장이었다. 사물·서비스, 자본뿐 아니라 센겐협정에 의해 국경에서의 출입국 심사 없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다. 이것이 감염 확대의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언론인이나 지식인 대부분이 코로나 위기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바이러스를 국경에서 막을 수 없으므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는 세계가 연대해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피엔스 전사全史"등의 저서로 알려진 유바르·노아·하라리는 "TIME"지에의 긴급 기고에서 "만약 이 감염증의 대유행이 인간 사이의 불화와 불신을 더해간다면, 그것은 이 바이러스에 있어서 최대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인간끼리가 싸우면, 바이러스는 배증한다. 대조적으로, 만약 이 대유행으로부터 보다 긴밀한

국제 협력이 생긴다면, 그것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승리 만이 아니고, 장래에 나타날 모든 병원체에 대한 승리가 될 것이다"라고 썼다(카와데쇼보 "Web 카와데"에서 전문을 읽을 수 있다).

글로벌리제이션의 반동反動이 일어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제협력이 아니라 국가 간 갈등이다. 4 월 9 일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됐지만 중국발 바이러스라고 주장하는 미국에 중국이 반발해 아무런 합의문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위기감 있게 제기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경 봉쇄가 확산되고 감염 폭발을 겪은 지역에서는 도시간 왕래를 제한하는 록다운이 전개되면서 외교 활동도 눈에 띄게 축소됐다.

대니 로드릭 교수는 이미 "글로벌리제이션과 패러독스" 등의 저서에서 "정치적 트릴레마"로서 "글로벌리제이션"과 "국가주권"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으며 "글로벌리제이션"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국가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좋다고 주장해 왔다. 현실에 입각하여 세계인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글로벌리제이션은 오직 경제활동으로 진행됐고 정치적 법적으로는 국가와의 사회계약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로드릭 교수는 이번 코로나 위기에 대해 하버드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에피데믹(전염병 유행) 대책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사스에 대응해 수정한 국제보건규제는 미국을 포함한 196 개국이 법적 구속력을 받아야 하는데도 무시되고 있다.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의 발언은 각국 통계와 의학적 연구 성과를 뒤따르며 계속 뒷걸음질쳤고 이는 세계인의 눈에 뚜렷이 드러났다.

되돌아 보면, 리먼 사태 후에도 "글로벌리제이션"의 분위기가 퍼졌다.

글로벌 경제활동의 부산물로 세계가 버블 붕괴에 따른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그 뒷감당인 부실채권 처리는 각 국가의 재정부담, 즉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동시에, 글로벌리제이션으로 이익을 얻은 자본가나 고액 보수를 얻은 금융기관의 경영 수장들도 규탄받았다.

세계화의 실험장인 EU 와 유로화는 다시 해체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EU 의 출발점은 부전의 맹세이며, 원점은 정치동맹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의 효율성만이 요구되어 그 모순점은 리먼 사태 후에, 재정이 크게 악화된 남유럽 국가들의 채무 위기라고 하는 형태로 분출했다. 특히 통합 통화 유로는 큰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독일의 강한 경쟁력에 비해 유로화는 항상 저렴한 수출에 유리하다. 하지만, 그 이익을 조정하는 재정 통합은 실현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도 같은 일의 반복이다. 4 월 9 일의 유로권재무상 회합은, ESM(유럽 안정 메카니즘)의 신용범위 활용이나, 제 2 차 세계대전 후의 마셜 플랜과 같은 부흥을 위한 자금 원조범위의 준비 작업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부흥 기금의 재원을 둘러싼 가맹국간의 골은 메워지지 않고, 공통으로 발행하는 통칭 "코로나채"에는, 지금까지 대로 독일이나 네덜란드등이 반대했다.

다나카 오사무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결국 하루 이틀 논의해도 새로운 중요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일부 국가가 공동채 발행을 주장하고 있다는 어정쩡한 표현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EU 수뇌나 역내 각국수뇌가 말하는 "연대"는 구호일뿐 잠잠해졌다.

금융·재정 확장은 만능이 아니란 것을 알게되다

반면 이번 위기와 리먼 쇼크는 큰 차이가 있다. 리먼 쇼크는 금융 위기에 수반하는 경기후퇴였으므로, 일.미.유럽의 금융완화와 중국의 4 조원으로 대표되는 각국의 재정출동이 효과를 발휘했다. 수요 진작책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크게 개선했다. 이는 다시 기업이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됐으며 사람들의 격차 확대에 대한 불만도 다소 누그러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기로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금융재정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다. 본래대로라면 코로나 종식 후에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요망된다. 하지만, 리먼 사태 후의 10 년간, 일.미.유럽이 모여 금융완화를 완만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해 온 결과, 수단이나 효과가 다 소진되어가고 있는 것, 일본 등 일부의 나라는 재정에도 여유가 없는 것에, 사람들은 불안을 가지고 있다.

BNP 파riba증권의 고노류타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국경 안에서는 사람들이 연대에 눈을 뜨면서 강한 구심력이 작용하는데 국경 밖으로는 강한 원심력이 작용해 국제적인 분단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세계 각국에서도 현재, 글로벌한 정책 공조에 사람들은 거의 기대하고 있지 않다. 주목받고 있는 것은 자국 정부가 발신하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대책과 경제활동의 정지에 의한 실업, 도산, 소득의 감소에 대한 경제정책이다. 그러나 발전도상의 독재국가들은 차치하고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내셔널리즘(국가주의)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날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의 전국민 마스크 2 장을 배포하는 정책에 비판이 높아지면서 고용조정조성금과 현금지급 절차의 번잡함이 문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2 조 달러를 쏟아낸 경제대책이 갖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공산당 일당 독재의 중국이라 해도 정부 비판을 틀어막아 둘 수는 없는 모양이다.

또한 국가에 따라 의료제도의 차이나 감염증 전문가의 견해차도 있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와의 투쟁방식은 크게 다르다. 그 시비를 둘러싸고는, 전문가도 일반인도 방대한 코멘트를 넷상에 보내고 있다. 그 비판에는 정권의 담당자도 민감하다.

금융위기나 자연재해와 달리 모든 사람이 가깝게 느끼고 있는 위기이자 인포데믹(정보의 감염확대)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출현하고 있다.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비방중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좋은 면을 보면 인터넷 민주주의가 출현하고 있고, 나쁜 면을 보면 정치의 포퓰리즘이 점점 강해지는 것 아닌가.

지자체가 주목받아 로컬시프트도 시작된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사태에서는, 우리가 더 스스로의 생활에 가까운 지사들의 결단이나 행동에 일희일비 하는 매일이 된 것이 현저한 변화다. 코이케 유리코·도쿄도 지사나 요시무라 히로후미·오사카부 지사가 정부와 논쟁하는 모습에 인터넷상에서는 지지가 모여지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대선이 한창일 때 존재감을 뽐어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대항마인 민주당 대통령후보 바이든도 아닌 분투하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모습이다.

지금,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구읍면이 생활자에게 있어서 행정의 직접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결정 권한이나 재원이 지방 자치체에는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긴급사태 선언 후의 7 도부현(都府府県)의 조치는 결정에 시간이 걸려, 사람들의 불안이 증폭되었다. 휴업

건의 방침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휴업을 요청하는 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정부 조정이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향후, 자치체와의 권한 이양이 다시 큰 테마가 될 것이다.

코로나 위기는 아무래도 단기간에는 종식될 것 같지 않다. 감염증 전문가 회의의 의사의 견해를 들어보면 경제활동의 정지기간은 한정적으로 끝날 수 있는(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지도 모르지만, 감염의 제 2 파, 재유행 등의 우려도 있어, 종래와 똑같은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포스트 코로나 중장기 전망을 해본다. 사람들은 세계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누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무역량은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생각되지만, 기업이 쓴 노임을 요구해 해외에 거점을 두는 오프쇼어의 움직임은 축소해, 해외 거점을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은 틀림없다.

국제분업에 의한 효율성을 누릴 수 없게 되어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지만, 한편 텔레워크의 중요성과 효율성이 인식됨으로써 5G 투자 등이 촉진될 것이다. 자치체 행정이나 기업의 IT 인프라의 정비가 비약적으로 진행된다면, 어느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기업의 거점이나 외주처가 해외로부터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의 움직임이 퍼진다.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모리 켄 수석연구원은, 한층 더 "국내 지방부에 거점을 마련하는 "니어쇼어"혹은 새틀라이트 오피스를 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것은 아닐까. IT 기업에서는 벌써 토쿠시마현등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그렇게 되면, 이번은 기업측이나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등에서, 자치체와의 권한 이양을 지지하는 움직임도 강해질지도 모른다. 주민자치 의식이 높아진다고까지 한다면 지나친 기대일까.

내수 위주로 노동분배율 높일 수 있다

리먼 사태 후에는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소득격차 확대가 문제가 됐다. 그 중에서 공격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IT 혁명과 글로벌리제이션이다. 사람이 기계로 대체됨에 따른 노동분배율의 저하와, GAFA 로 대표되는 기업이나 그 경영자가 승자독식이 되는 소득의 왜곡이, 글로벌리제이션과 함께,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증폭되었다고 하는 견해다.

세계화에 대한 비판은 이민과 난민 배경운동으로 이어져 트럼프 대통령의 탄생, 영국의 EU 이탈, EU 역내 극우정당의 대두 등의 현상을 낳았다. 한편, 리버럴한 사람들은 대기업이 쓴 노임을 요구해 신흥국에 공장을 만들어, 현지인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나, 지구 규모의 환경 파괴가 진행된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일본은 구미에 비하면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지만 비정규직 확대가 문제시돼 왔다. 그러나, 텔레워크등에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근로 방식이 확산되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실현은 쉬워져 갈 것이다.

유럽과 비교한 일본의 문제는, 1990년대말의 버블 붕괴 이래, 춘투에서의 임금 인상 교섭이 기능하지 않게 되어, 노동 분배율이 떨어진 것이다. 일본에서는 인구가 줄어들므로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유포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내수를 기대하지 않고 임금 인상에도 인색하며 성장기대가 있는 해외에 투자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 세~64 세) 감소율은 연율 2% 이하여 취업률 향상과 생산성 상승에 의해 커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본 종합연구소의 야마다히사시 부이사장은 "세계화의 감속으로 외수에 의존하는 정도가 저하된다면, 내수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 생산성 향상, 평균 판매가격 상승, 임금 인상의 선순환을

형성함으로써 질적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감염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인 어려운 국면이지만 중장기 조류도 내다봐야 할 것이다.

5. 코로나쇼크로 빙하기세대가 재차 직면하는 '위기적 상황' (현대비즈니스, 2020.4.15)



사진 1) 출처: 현대비즈니스

코로나 쇼크의 심각한 영향

내정 취소, 코로나 해고--.

일본 노동변호인단은 4월 5일에 실시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노동문제 전국일제 핫라인]의 집계결과를 4월 8일에 공표. 동경에서는 121건, 전국에서는 4월 8일 시점에서 412건의 문의가 있었다고 한다.

상담 내용은 많은 순서대로 '임금 체불'(80건), '휴업·휴가 등'(75건), '위탁·프리 개인사업주로부터의 상담'(41건), '비정규직 계약 종료'(25건), '정규직 계약 종료' '근로조건변경' (각 21건), '파견중단'(16건), '채용내정취소'(12건) 등 심각하다(중복 상담 포함).

후생노동성은 일반 노동상담 외 4월 13일부터는 전국 56곳의 신규 졸업자응원 헬로워크에 '신규 졸업자 내정취소 등 특별상담창구'를 설치할 정도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취업 빙하기 세대의 채용이 더욱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고용이 악화되는 경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세계의 도요타'조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4월 7일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으로 5월 6일까지 외출 자제를 요청하면서 음식점과 소매업은 일제히 임시휴업을 해야 했다. 외출 자제 요청에 의해, 식품이나 생필품을 사는 것 이외의 소비 행동은 제한되어 경제는 정체. 세계의 도요타자동차조차 감산 체제에 들어간다는 코로나 쇼크가 일고 있다.

테이코쿠 데이터뱅크는 4월 8일 시점에서의 상장기업의 실적수정동향조사를 발표.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실적 예상을 하향수정 한 것은 161사로, 감소한 매상고는 합계로 약 1조 4100억엔. 영향의 확대가 향후도 염려된다고 했다.

리소나 종합연구소는 4월 9일에 "쇼트 코멘트"를 발표. 긴급사태 선언에 의해서 전국에서 4조 9000억엔의 소비가 감소한다고 시산했다. 2월경부터 3월에 걸친 소비 감소분은 3조 5000억엔으로 하고 있어, 합하면 8조 4000억엔의 소비가 없어지게 된다. 도쿄 상공리서치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관련 도산 상황에 의하면, 4월 10일 정오시점, 전국에서 경영파탄이 51건에 이르러, 그중 도산이 26건, 준비중이 25건이었다.

"신형 코로나"관련의 경영파탄 제 1호는, 2월 21일까지 사업을 정지해 파산 준비에 들어간 후지미소(아이치현 가마고리시)였다고 하고 있다.

경영파탄은 4월 들어 급증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도도부현별로는 홋카이도가 최다의 7건, 그다음에 도쿄도의 6건이 된다. 업종별로는 숙박업 12건, 음식업 7건에 집중돼 있다. 각사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의 게오르기예바 총재가 4월 9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2020년 세계경제가 1929년 세계경제 공황 이후 최악의



전망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 파견해고가 일어난 2008년의 리먼 쇼크 이상의 고용불안은 어쩔 수 없게 될 것이다.

사진 2) 출처: gettyimages

또 내버려지는 빙하기 세대

이런 가운데 우려되는 것은 취업 빙하기 세대가 또다시 외면당할 것이다.

늦었지만 국가적으로 이제 막 시작된 취업 빙하기 세대의 지원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지금 코로나 대책에 분주하다.

간신히 중앙 부처나 지방 자치체에서의 취직 빙하기 세대를 대상으로 한 중도 채용은 계속 되고 있지만, 원래 코로나 쇼크로 타격을 받고 있는 음식업이나 소매업, 택시 운전사등의 업계에 빙하기 전용의 구인이 많았으므로, 기업의 채용 의욕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0 년도, 취직 빙하기 지원 프로그램 관련 예산은 합계 1300 억엔이 계상되었지만, 세세하게 사업을 검증하면, 대부분이 과거의 시책의 재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원래 다른 연령층도 대상이 되는 사업도 많다.

정부가 작년도에 발표했던 '취업 빙하기 세대 지원에 관한 행동계획 2019'에서 신규 신규 사업으로 핵심이 되는 것은 '헬로워크 전문창구 설치'와 업계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단기 자격 등 습득 과정 창설' 등 2 가지다. 단기자격증 등 습득코스 사업에는 올해 34 억 6500 만 엔의 예산이 투입된다. 건설 운수 농업 IT 등 업계 단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1 만 5000 명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건설과 농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의지할 정도의 일손부족. 뒤집어 말하면 인기 없는 업계다. 거기에 취직 빙하기 세대가 취직을 결정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일본 종합연구소의 시모다 유스케 주임연구원은 "전체를 통틀어 지금까지의 지원책의 연장선상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취업 빙하기 세대를 핀포인트로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업계 단체를 통해서 운수나 건설등의 자격을 취득해 취직한다고 하는 출구 일체형 지원을 봐도, 동세대의 실정에 맞은 서포트라기보다, 특히 일손이 부족한 업계에 불러들이려고 하는 의도가 비쳐 보인다. 단지, IT 업계라면 높은 기술이 몸에 배움으로써 스텝 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사진 3) 출처: gettyimages

IT의 구인 상황을 보면, 정보처리·통신 기술자의 파트를 제외한 상용 고용의 유효 구인 배율은 2.17 배로 높다(2020년 2월).

그 밖에 유효 구인배율이 높은 것은, "채굴 직업"(9.98 배), "건설골조공사업"(9.45 배), "보안업"(7.25 배), "건축·토목·측량 기술자"(6.65 배)이며, 그 밖에 높은 것은, "토목·측량 기술자"(5.95 배), "건설직"(4.92 배) 등이다. 한편, 일반 사무에는 응모가 쇄도해, 유효 구인 배율은 0.37 대 1 이라는 낮은 차이로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

노동 비용을 줄이려는 압력

1991년 거품이 붕괴된 이후 대졸 취업자는 제조업이 떨어지고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음식업이 증가해 1994년 서비스업이 역전, 95년 도소매업, 음식업이 역전됐다.

2000년 단계에서 고졸의 약 20%가 취직해, 취직처는 남성에서는 생산·공정·노무 작업자가 약 60%를 차지하고, 서비스 직업과 판매 종사자가 각각 약 10%, 전문적·기술적 직업이 약 5%, 보안 직업 종사자가 약 5%이다.

여성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약 30%, 사무종사자, 생산·공정·노무종사자, 판매종사자가 각각 20% 안팎이었다. 취업 빙하는 대개 1993년에서 2004년에 대학이나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세대가 된다. 1991년의 버블 붕괴, 1997년의 금융 불안, 2001년의 IT 버블 붕괴, 2008년의 리먼 쇼크를 거쳤으며, 그때마다 농락당해 온 세대이기도 하다.

고교 졸업 후 3년 이내의 초기 이직률은 4~50%, 대졸에서 약 3할. 불황기에는 블랙기업의 정규직 채용이 눈에 띄기 때문에 설령 졸업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취업해도 그만둬야 하고 이후 비정규직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학력에 관계없이 단순 작업이 주된 직장에서 비정규직을 전전하면 스킬을 쌓을 수 없게 된다. 질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을 것인가 하는 과제가 크다. 이 같은 문제는 3년 전에도 지적된 바 있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생산성 문제의 급소'라는 보고서를 2017년 3월 30일에 냈고, 고용 흡수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생산성이 오르지 않고 고용이 비정규직화로 옮겨간다고 언급했다.

내각부 "국민경제계산"(2014년도)으로부터 산업별 1인당 생산성은, 제조업이 1시간당 5708엔인데 반해, 도소매업은 동 3585엔, 서비스업은 동 2785엔, 건설업은 동 2191엔이라고 시산. "서비스업에는 노동 코스트를 싸게 끝내고 싶다고 하는 압력이 강하고, 스킬을 축적한 정규 고용을 흡수하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고용 아웃룩 2019'에서 '일의 미래'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과거 20년 이상 동안 제조업 일자리가 20% 감소하고 서비스업이 27% 증가. OECD는 앞으로 일의 15%는 자동화될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 20년간 높은 스킬의 업무 비중이 10% 이상 높아지고 있어 새로 생기는 일에 필요한 기술을 근로자가 갖고 있지 않아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OECD는 "비표준적인 근로 방식(비정규직)은 교육 받을 기회가 적은 채로 스킬을 올릴 수 없다. 일본의 빙하기 세대에게 교육 훈련의 지원은 필요 불가결"이라고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산업구조의 문제에 직면할 때

고용의 수용처가 되어 온 업계는 지금 코로나 쇼크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영향으로 방일 외국인수는 2019 년 2 월의 260 만 4000 명에서 2020 년 2 월은 108 만 5000 명으로, 전년동월비로 58.3%나 줄어 들었다(일본 정부 관광국, 3 월 19 일 발표). 관광지는 썰렁해졌고 인바운드 버블은 이제 사라졌다.

코로나 쇼크를 기회로 일본이 안는 산업 구조의 문제를 생각해 가지 않으면, 취직 빙하기 세대가 더욱 더 방치되어 버린다.

동세대 중에서도 40 대 후반에는 226 만명(2018 년 시점)의 비정규직의 존재가 있어, 지금, 비정규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해도 코로나절에 있어 실업의 가능성도 크다. 이들이 그대로 50 대로 진입하는 것이 눈앞인 만큼 늦추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6. 관료에 모든 걸 내 던진 아베총리와 메르켈수상과의 차이 (주간아사히. 2020.4.14)



사진 1) 출처: 주간아사히. 古賀茂明 코가시게아끼 / 코가시게아끼 정책라보대표, '개혁은 하지만 전쟁은 하지 않는다'포럼 4 제창자. 1955 년, 나가사끼현 출생. 동경대 법학부졸업. 전경제산업성의 개혁파관료. 산업재생기구집행이사, 내각심의관등을 거쳐 2011 년퇴관. 주저『일본중추의 붕괴』.

4 월 7 일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을 내놓았다.

하지만, "너무 늦다" "내일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른다" "약자에게 지원이 닿지 않는다" 등 평판은 뿔뿔이 흩어져 있다.

2 월, 3 월을 거쳐 회계연도 걸쳐, 모두 거의 늦었다고 하는 선까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니 주도면밀한 준비가 돼 있는가 하면 실은 전혀 준비 부족이었음이 회견과 동시에 드러났다.

긴급사태 선포에 의해 외출 자제 요청에 가세해 점포 등에 휴업을 요청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시설 등에 폐쇄를 지시할 수 있다. 가게가 닫히면 외출해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외출 억제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 조치 대상을 정부와 도쿄 간에 조율하지 못해 공표가 10 일로 연기됐다. 그 배경에는, 일부 업계에 대한 자민당측 의원과 소관 관청의 반대가 있다. 이권정치의 전형적 패턴이다.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에서도 이런 사태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아베 내각이 사실은 관료 주도 내각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관심사항인 외교안보, 헌법 개정, 그리고 친구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관저 주도로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베 정권이지만 그 외에는 거의 관료 맡기기. 결과적으로 종래형의 "정관제 트라이앵글의 이권 정치"가 되고 있다.

관료 주도에서도 기존의 연장선상 정책 입안이라면 문제가 적다. 하지만, 미증유의 사태가 되면, 과거 문답연습으로 수험 전쟁에 이겨, 가스미가세키(일본정치 1 번지)의 전례 답습주의에 물든 관료들은 속수무책이다.

독창적인 대책을 생각해 내지 못하는 관료들은 규모로 전례가 없는 일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약자 구제가 미흡한 결함 대책이 마련됐다. 누가 어떻게 곤란한지를 상정하고, 그 대책을 가다듬었어야 했는데, 이 2 개월간, 그것을 게을리 해, 과거 문제의 응용 문제로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반면 도련님 출신인 아베 총리는 하층의 곤경 따위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 시한이 끝나 관료들의 안을 탈 수밖에 없었고 이번 대책의 핵심인 개인사업주나 가구 급부금도 5 월 중에는 어떻게든 나눠주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듣고 국민은 모두 귀를 의심하지 않았는가.

이 역시 2020 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3 월 말까지는 새로운 예산을 논의할 수 없다는 관료들의 전례주의 조언에 따른 결과다. 2 월 중순에 수십조 엔의 코로나 대책기금 같은 것을 담은 수정 예산안을 냈더라면 야당도 이를 막을 수 없었고 지금쯤 여러 대책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일본인의 뮤지션이나 댄스 교실 운영자 등에게 간단한 인터넷 신청으로부터 2 일에 60 만엔의 급부금이 나온 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 차이는 메르켈 총리와 아베 총리라는 두 지도자의 능력 차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대로 아베 총리에게 맡겨 두면 많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 중소 영세기업인이 거리를 헤매고 그 결과 자살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긴급사태라 해도 이번에는 1 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니까 아베 비판을 봉인하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위급한 상황이기에 국민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리더를 지금이야말로 다시 뽑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7.코로나사태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 방관하는 일사회의 어둠 (현대비즈니스, 2020.4.18)



사진 1) 출처: 현대비즈니스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변해버렸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건으로 떠들썩하던 시절이 까마득한 옛날 같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뉴스는 계속 갱신돼 사태 수습이 언제일지도 알 수 없다.

필자와 같은 프리랜서는 예정됐던 일의 연기나 중지가 잇따라 이대로라면 5 월에는 수입이 거의 제로가 될 전망이다. 할 수 있는 한 발버둥을 쳐보려 하지만 과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거리는 죽게 되고, 경제는 세계 규모로 계속 축소되고 있다. 당연히 각 분야에서 고용에 악영향이 나타나면서 고용퇴직이나 해고로 실직하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다.

보다 입지가 약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어떨까.

귀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현재, 전국에 약 40 만명 있는 외국인 기능 실습생의 경우는, 도항 제한이나 수용측의 업무 축소로 인해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기능실습생 약 1700 명이 일본에 올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 같은 현장에서 노동자가 부족하자 법무부는 4 월 17 일 현재까지는 인정받지 못했던 기능실습생의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을 가능하게 하는 특조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앞으로 경영규모 축소와 기업도산이 잇따르면 실직하는 외국인도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또 다른 이유로 귀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일하지도 못하고 궁지에 몰린 외국인들이 있다. 외국인의 노동 문제를 잘 아는 코베 대학의 사이토 요시히사준교수가 지적한다. “유학이라는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 일본어학교를 자퇴했지만 귀국하지 못하고 단기체류로 전환돼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다는 남성을 얼마 전 만났습니다”.



사진 2) 출처: gettyimages

어찌된 일인가 하면 코로나 파동의 영향으로 아르바이트 일이 큰 폭으로 줄어 학비를 낼 수 없게 되고 "유학 비자"를 실효해 버린 전 유학생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귀국하려고 해도 현재, 항공사의 국제선은 일제히 결항하고 있다. 유일하게 5 월 연휴 이후에 비행할 예정인 JAL 의 홈페이지를 보면, 하노이로의 이코노미 편도에서도 28 만엔(유유할증료 별도)이라는 가격 설정이 되어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고가의 티켓은 살 수 없다.

출입국체류관리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라, 기능 실습생이나 취직 활동중의 유학생 등에 대해서는 재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음식점이나 편의점의 아르바이트로서 자주 눈에 띄는 많은 일본어학교 유학생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있다.

"일본어학교 졸업자도 퇴학자도 대부분 귀국이라는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탈 수 있는 비행기도 없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취업이 안 되는 단기체류 비자밖에 못 받아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태는 나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사이토준교수는 말한다. "일본어 학교를 퇴학할 타이밍에 아파트를 해약하게 되면 살 곳도 없어져, 어쩔 수 없이 친구 아파트로 굴러들어가....." 이른바 밀집 상태가 되어, 아파트의 방이 클러스터화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또 그 밖에도 귀국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인들이 한 사찰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들었다.

실종될 수밖에 없는 기능 실습생

"닛신쿠즈日新窟"(도쿄·미나토구)는, "베트남인의 보호소"라고 알려진 정토종의 사원.

베트남 출신 비구니 틱 탐치, 사무장 요시미즈 지호(吉水豊) 씨를 의지해, 뛰어나온 채로 절을 찾아오는 베트남인도 적지 않다고 한다.



사진 3) 출처: 닛신쿠쯔의 Facebook 에서

보호받고 있던 판·반·베(30)씨는 하노이 출신. 현지 고교 졸업 후 식당 웨이터와 자동차 세차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기능실습 제도를 알게 돼 일본행을 결심했다. 약 100 만엔의 빚을 지고, 기능실습생으로서 일본 방문한 것은 2014 년이다.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게 12 월 25 일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오사카(감리단체)에 있다가 후쿠시마 현의 회사로 갔습니다”. 베 씨는 건설현장직으로 채용돼 그 기술을 익히려 했지만 겨울 후쿠시마에서 현장 일은 거의 없어 눈 치우고 창고 청소를 해야 하는 나날이었다고 한다. “추웠습니다. 눈 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월급은 설명되던 액수보다 적었다. 손에 쥐는 것은 15 만엔 정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집세 외에, 전기·가스·수도요금, 사회보험등을 공제받으면 나머지는 10 만엔 정도. 명세를 보면, “WiFi 비”로서 월액 6000 엔도 공제되어 있었다. 허드렛일을 부탁받고 잔업을 해도 잔업비는 들지 않았다. 얼마 안 되는 월급에서 베트남집에 생활비를 보내고, 자기 식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빚을 갚을 수 없고, 그리고 일도 배우지 않아, 그래서 계속 일하기는 힘들 것 같았어요”. 베 씨는 고민 끝에 1 년 2 개월 만에 실종됐다. 이후 관동 각지를 옮겨 다니며 직장을 전전하며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베 씨처럼 기능실습 현장에서 실종되는 사람들은 매년 수천 명 규모다. “실종해 버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모국에서 들던 이야기와 다른 일을 당하거나 급여가 턱없이 적거나 잔업비가 나오지 않거나 하는 일이 많습니다. 즉, 조커를 뽑아 버린 사람들이 실종되어 버립니다”(요시미즈씨)

일본 정부의 잔인한 태도

“기능실습”이라는 체류자격을 상실한 베 씨가 대신 얻은 것은 이른바 난민 비자다. “난민비자”란 입관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 신청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취업이 허용되는 구조를 말하며 2015 년경부터 2017 년경까지 신청자가 급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난민신청자 수:2014 년 5000 명→2017 년 1 만 9629 명) 3 년간 약 4 배로. 현재는 난민인정제도의 운용이 바뀌어 취업을 할 수 없다).

2018년 2월 난민 비자가 만료된 뒤 베 씨는 재류 자격이 없는 채 사이타마 현 금속가공공장과 군마 현 용접공장 등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자가 없으면 사장이나 회사에 폐가 되니까, 오래는 일할 수 없습니다. 용접일도 3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는 연락이 와 빨리 돌아가려던 중 코로나 소동이 불거졌다.

2월 하순에 입관 출두를 도운 요시미즈씨에 의하면, “원래는 3월 25일의 비행기로 귀국해야 했습니다”라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비행기가 결항되었다. 그래서 전날인 24일에 다시 출두했더니 입관 담당자가 아직 ANA가 날고 있으니 그걸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티켓은 25만 엔. 25만 엔은 비싸서 못 내니까 입관에서 (티켓값을) 내줄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럴 수 없다고 해, 결국 이쪽이 임시편 나오면 그걸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써 2주 체류 연장 비자가 나왔다.

현재는 베트제트 등 저렴한 비행기 임시 항공편이 나올 것 같으면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만약을 위해 재차 출두해 45일 연장 비자를 받은 참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 수도 없다.

“생활비가 궁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허락해 달라고 입관을 부탁했는데 안 되겠다고 버티더군요. 어떻게 생활하면 되느냐고 물었더니 알아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더군요”. 어떤 이유에서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하루빨리 일본에서 나가라는 것이다.



사진 4) 출처: 현대비즈니스

분명 불법 체류는 칭찬받을 만한 게 아니지만 “스스로 어떻게든 해라”는 말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응축돼 있다. 어느 정도 일하면, 나머지는 일회용이다.

한 가지 구원이 있다면 정작 베 씨가 의외로 밝았다는 점이다. “나는 처음엔 운이 없었지만 일본은 좋고 일본인도 좋다. 다들 착해”.

베씨는 출국한 후 1 년간 일본에 입국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일본어를 공부해서 다시 일본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 불법잔류 등을 이유로 퇴거강제된 자나 출국 명령을 받고 출국한 자는 입관법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일본에 상륙할 수 없다. 강제 퇴거된 자는 강제 퇴거된 날로부터 5 년. "출국명령"에 의하여 출국하는 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1 년. 베 씨는 후자.



사진 5) 출처: gettyimages

30 년 동안 변한 것이 없다

"입장이 약한 외국인 노동자가 경기의 조정판으로 사용되는 상황은, 최근 30 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정주 정책의 전문가이자, 일본 국제 교류 센터 집행이사인 멘주토시히로 씨다.

2018 년 동안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에 대해 거의 아무런 케어도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소동의 와중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에 남겠습니다"라는 외국인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부는 솔선수범해 일본은 외국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일본은 살기 좋은 나라예요라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 결국 외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향후, 급속도로 노동 인구가 계속 줄어 들어 동시에 초고령화해 가는 나라다. 이번 COVID-19 를 종식시킬 수 있어도, 차례차례로 찾아오는 신형 폐렴등의 팬데믹의 공포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일본에 사는 외국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갈 때가 됐다는 것 아닐까.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말할 때의, "우리"라는 주어를 구성하는 것은 일본인 만이 아니다. 일본에서 살고,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배 씨 같은 외국인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미래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8. 마스크 브로커가 폭로 '세계적 쟁탈전에 패하는 일본 정부'의 실정, '공급 증가'는 거짓이다 (AERA. 2020.4.13)



사진 1) 출처: 오타료마씨 제공. 마스크의 출하가 이어지는 중국의 공장

매장으로부터 "증발"해, 입수 곤란한 마스크. 심각한 품귀는 왜 해소되지 않는 것인가. 그 배경에 세계 각국과의 쟁탈전에서 꺾이지 못하는 일본 정부의 관공서 일이 있다고 브로커가 털어놓는다. 관료들이 증산했다고 자랑하는 마스크 공급량도 실은 예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ERA 2020년 4월 20 일호에서는 마스크 부족의 이면에 다가갔다.

* * *

개점 전 드러그스토어에는 오늘도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다. 심각한 마스크 부족은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도 전 세계에서 폭발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다.

국산 마스크 증산 등 일본 정부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최우선시돼야 할 의료종사자용 마스크 확보도 쉽지 않다. 마스크 진짜 없는 것인가? 아니면 어디 숨어있는지. 세계 각국에서 마스크를 조달하는 인물에게 물었더니 의외의 사실이 드러났다. "요즘 자주 "중국 업체에 생산을 맡겼는데 수출 제한이 걸려 제품이 안 들어온다"는 취지의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믿기 어렵네요. 왜냐면 실제로 중국에서도 대량의 마스크가 연일 입고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머리를 가우뚱하는 것은, "GSB"(오사카시)를 경영하는 오오타 료마씨(54)다. 동사는 통상, 컨설턴트 업무를 다루고 있지만, 인맥의 두터움을 살려 마스크의 거래를 중개하게 된 지 약 2 개월이 된다. 이른바 브로커로, 시가로 구입한 것에 가격을 얹어 파는 "전매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오타 씨는 이렇게 계속했다.

"우리 같은 브로커들이 물려들어 값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수급 균형이 깨졌을 뿐 아니라 감염자 확대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제조원가도 올라 도매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각국 제조업체들도 필사적이어서 현금으로 대량으로 사주는 바이어가 우선적으로 제품을 손에 쥐게 됩니다. 저희 브로커는 그걸 구매자에게 연결만 할 뿐 매입가가 비싸든, 싸든 마스크 한 장당 1 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취급하는 마스크는 중국산만이 아니다.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원산지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의 제품 규격을 통과한 통상의 제품이지만, 매장 판매용의 바코드까지 붙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각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코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들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마스크를 쓰는 습관이 없던 서구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프랑스 정부는 3 월 상순, 국내의 재고나 향후 생산할 마스크를 나라가 우선해서 확보할 방침을 발표해, 국내 메이커에 증산을 지시. 더욱이 동 28 일에는 중국 등에 10 억매의 마스크를 발주했다고 발표해, 보건장관은 "마스크는 각국에서 부족하다"라고 세계적인 획득 경쟁이 되고 있는 것을 시사, 중국으로부터의 항공 화물편을 신속화할 것을 밝혔다.

같은 무렵, 스페인 정부도 마스크 5 억 5 천만매를 포함한 4 억 3200 만 유로 분의 의료품 조달의 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신형 코로나대책에서 마스크는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던 미국 질병대책센터(CDC)도 4 월 들어 착용을 권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용 고성능 마스크 N95 를 제조하고 있는 미국 3M 사에 국방생산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과 캐나다 중남미 등에 대한 부당한 수출 중단을 명령했다.

미국은, 중국등에서 생산된 프랑스나 독일 등 타국 전용의 마스크를 발송 직전에 "빼돌리기"했다고 해 복수의 유럽 미디어로부터 보도되었다. 미국은 시장가격을 크게 웃도는 가격을 지불하고, 이미 계약을 한 유럽 국가로부터 빼앗듯이 사재기하고 있어 세계의 마스크 시장이 무법화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건에 대해 우리는 마스크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 넘기기 싫다고 추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3 월의 마스크 공급량을 6 억매로 하고, 4 월에는 1 억매 추가해 7 억매로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들은 과연 달성되고 있는 것일까. 경제 산업성과 합동으로 마스크 조달에 임하고 있는 후생 노동성의 담당자는 이렇게 말한다.

"원래 매달 마스크 공급량은 3 억 5 천만 장. 이 중 2 억 6 천만 장을 수입에 의존했고, 대부분 중국산이었습니다. 이를 커버하기 위해 국내 업체에 증산을 의뢰했고 3 월 중 6 억 장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4 월에도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기관에 1500 만장을 사들여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4 월 이후에도 1500 만장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간호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등에는 몇번이나 재이용 가능한 천마스크 2 천만매를 차례차례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족한가. 실은 "매월 3 억 5 천만매"는 연간 평균으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수요가 피크가 되는 2 월의 공급량은 예년, 5 억 8 천만매에 이른다. 6 억 장은 그것을 약간 상회할 뿐이다. 신형

코로나 대책으로 꽃가루 알레르기 이외의 사람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쓰고, 또 일정량을 확보해 두고 싶다고 하는 소비자 심리를 생각하면, 이른바 "예년 수준"의 공급으로 품귀 현상이 해소될 리도 없는 것이다.

두 성의 합동팀에서도 당초 예산 예비비를 동원해 민간 경로를 통한 조달에 나서고 있다고 하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타씨는 자신의 경험을 가르쳐 주었다. 오타씨는 3 월 중순, 칸사이 지방의 의료 기관 경영자로부터 "정부가 일반용 마스크 1 억매를 단가 50 엔 이하로 구입할 계획이 있으므로 협력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요구받았다. 정부 측 바이어를 맡고 있는 한 대형 종합상사 OB 를 소개받아 이 바이어에게 중국에서 무더기로 마스크를 사들이는 기업인을 소개했다. 1 장에 45 엔으로 도매할 수 있다고 하여 샘플을 지참하였더니, 바이어는 바로 대답해 OK 했다고 한다.

마스크 수입은 절반을 현금, 나머지는 선하증권(BL)으로 확인한 뒤 송금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국가 측은 모두 현금 결제라는 조건을 양보하지 않았다고 해 기업인들이 현금을 대신 내주고 통상적인 수순으로 진행하게 됐다. 처음에는 3 천만 장을 배에 싣고 BL 이 나오면 짐과 함께 동영상을 찍고 그것을 확인하고 송금 절차를 밟는다. 역시 1 억 장에 달할 때까지 몇 차례에 걸쳐 배편으로 발송한다는 흐름이었다.

"그 견적으로 다음날 정부의 조달 회의에 상의했는데, 안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정 담당의 주요 각료들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던 것이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한 정치인의 비서에게서 중국산은 안 쓴다는 말이 있어 아마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가 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건은 확실히 있는데 신고할 수 없는 것은 누구 탓일까요?(오타 씨)"

정부의 늦장대응이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다. 의료 기관에서 심각하게 부족한 고기능 마스크에 대해서, 후생 노동성으로부터의 의뢰라고 하는 바이어가 3 월말, 1 매 300 엔 이내에서 1 천만매 조달하고 싶다는 요청으로 오타씨를 방문했다.

대전씨는 3M 사의 "1860"이라는 고성능 마스크를 준비할 수 있는 전망이 있었지만, 그 때의 단가는 300 엔을 조금 넘어 바이어로부터 거절 당했다고 한다. 오타 씨가 계속한다. "분명히 그 직전 단가는 270 엔 정도였는데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요. 1 주일 후에 같은 바이어가 '300 엔대라도 좋다'고 했지만, 그 때는 이미 370 엔이 넘었고 그는 다시 살 수 없었다. 예전 가격을 너무 고집해서 결정을 못내렸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트럼프가 다른 나라에 안 준다면 장당 6 달러가 돼버렸다. 이러다가 국민의 목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베 신조 총리가 결정한 가제마스크의 각 가구 배부에 들어가는 비용은 466 억 엔으로 알려졌다. 이 액수가 있으면 의료용 마스크를 1 억 장 안팎 살 수 있다는 계산이다.

"1 억 장 정도면 금방 모을 수 있습니다. 50 억 장을 모으려면 모을게요. 자꾸 말하지만 브로커가 값을 낚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뺏어가는 바람에 매입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 결정을 못하면 뒷북만 쳐 대처하기 힘들죠".

이렇게 한탄하는 오타씨는, 의료용 고기능 마스크를 의료 기관에 안정 공급하기 위해 분주하다.

"3M 의 의료용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입 수량을 꽤 크게 해야 합니다. 병원 그룹이나 여러 의료 기관이 공동 출자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본래는 정부나 지자체가 일괄 구입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저를 정부 조달 바이어로 만들어 달라는 정도죠".

9.2020 년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의 마이너스성장 예상으로 (NRI, 2020.4.14)

2020 년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로 대폭하향수정으로

4 월 14 일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신의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IMF 는 금년 1 월 시점에서의 전망에서 2020 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을 +3.3%로 예상(2019 년 실적은 +2.9%)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전망치를 대폭 낮출 것이 확실하다.

IMF 의 게오르기예바 총재이사는 9 일의 강연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2020 년의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래의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리먼 쇼크(글로벌 금융위기) 후의 2009 년의 세계의 성장률은, IMF 에 의하면 -0.1%로 근소한 마이너스 성장이었지만, 2020 년의 성장률 전망치는, 보다 큰 폭의 마이너스가 전망된다.

한편 전무이사는 몇 년간 경기악화가 지속된 대공황 때와 달리 "기본선으로서는 경제 재개에 따라 2021 년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대공황인 1929년 3월에 GDP 는 26% 감소했다. 3 월 23 일에는 세계 주요 금융기관이 가입한 국제금융협회(IIF)는 2020 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1.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어려운 것은 유로권으로, 마이너스 4.7%의 대폭 마이너스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은 -2.8%, 일본은 -2.6%이다(당 칼럼 '2020 년 세계경제는 리먼 쇼크시를 넘는 악화 전망', 2020 년 3 월 25 일).

중국 1 분기 GDP 에 주목

IMF 는, 그 경제 전망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것에 배려해, IIF 와 비교해서 보다 마일드한 전망을 내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른다. 즉, 2020 년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에서, 마이너스 폭은 IIF 보다 작아질 가능성도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IIF 가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고 나서 이미 3 주간 정도가 경과해, 그 사이, 유럽에서는, 경제활동을 강하게 억제하는 록다운(도시 폐쇄), 소셜-디스턴스(사회적 거리)의 정책은 당초 예정보다 연장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IMF 는 IIF 보다 큰 폭으로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는 것은 아닐까. IMF 의 세계경제 전망의 한 가지 문제점은 17 일 공표될 예정인 중국의 1 분기 GDP 통계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시장 예상은 전년 동기 대비 -6.0% 정도이지만, 동-10%라는 예상도 일부에는 있다.

중국 경제는 2 월에 저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의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이 점차 늘고 있다(당 칼럼, "중국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하지만 자국만 살아날 길은 없다". 2020 년 3 월 30 일). 파이낸셜타임스가 자체 산출한 중국 경제활동지수는 3 월에 오름세를 보였지만 발발에서는 다시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경제활동은 아직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이전 수준을 40% 가까이 밀돌고 있다고 한다.

중국경제는 세계 선행지표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가, 경제활동을 어느 정도 악화시킬지, 강경한 조치가 어느 정도의 기간에 감염 봉쇄로 연결될지, 그 후의 경제활동의 회복이 어느 정도의 페이스로 진행될지.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동향은 타국에 있어서 중요한 선행지표가 되고 있다.

무디스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는 모든 군현의 80%가 록다운 하에 있으며 이는 GDP 의 96%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또 미국 내 하루 생산은 폐쇄가 잇따라 발표되기 직전인 3 월 첫째 주에 비해 이미

29%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태가 만약 6 월 내내 계속될 경우 2 분기 GDP 는 연율환산으로 75% 정도 감소하게 된다.

각국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봉쇄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경제의 침체는 더욱 커져 세계경제의 상황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공황시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10.【컬럼】신형코로나, 정부 발표 데이터를 의심하는 10 가지 이유 - 오늘

(Bloomberg. 2020.4.15)

(블룸버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행방에 작은 희망이라고 바라며 감염자수, 입원자수, 중환자실(ICU)의 환자수, 사망자수 등 나날의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목하면 할수록, 결함이 보여 온다. 다음은 필자독단에 의한 그 톱 10 이다.

1. 감염자 수에 거의 의미가 없다. 카운트되는 것은 검사를 받은 사람뿐으로, 검사가 충분히 행해지고 있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염자 중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였는지 추측해 보고 대략적인 감염자 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돼야 검사를 받는다는 사례 증거도 있다. 감염자 중 입원이 필요한 것은 약 10%라고 하면, 실제의 감염자수는 보고되는 거의 10 배의 수, 라고 할 것이다.

2. 검사가 정확하지 않은데다 그 결과의 부정확함에는 치우침이 있다. 즉, 잘못 양성으로 판정되는 것보다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더 많고, 실제로는 감염됐는데 괜찮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음성으로 잘못 알려진 비율은 30%가 넘는다. 진짜 감염자수는 이 점에서도, 더 많이 어림잡을 필요가 있다.

3.검사건수는 검사를 받은 사람의 수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검사는 매우 부정확해 정확한 결과를 판정하기 위해 두 차례 검사를 받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감염자 비율은 실제보다 적게 나온다.

4. 숫자는 동조하지 않는다. 입원 후 몇 주 후에 사망할 수도 있고 양성 판정 후 1주일 이상 지나 입원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감염자수의 증가 곡선"이 보합 상태가 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사망자수의 증가 곡선"의 평탄화는 전망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초래하는 밝은 면은 사망하는 것보다 회복되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치사율은 시간을 두고 저하될 것이다.

5.입원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입원자 수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을 긍정적인 징후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입원처를 찾을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응급전화는 붐비고 구급차는 부족, 입원기준은 극적으로 달라졌다. 사람들은 이미 환자로 넘쳐나는 응급치료실에 접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원자 수의 감소는 상황의 개선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6.사망신고는 신속하게 혹은 일관된 형태로 제출되지 않는다. 서류 수속이나 근친자에게의 통지 등 다양한 문제가 사망 신고서의 제출 시기를 좌우한다. 화요일에 사망자 수가 많이 보고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을 수 있고 주말에 사망자 수가 줄었다고 반가워하기는 이르다.

7.병원 이외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는 보고되지 않았다. 자택이나 양로원, 퇴역 군인 시설, 형무소 등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는 반드시 계산돼 있지 않다. 이는 크게 프랑스에서는 양로원을 대상으로 포함시켰더니

사망자 수가 40% 증가했다. 벨기에는 양로원을 빠짐없이 보고하는 편인데 사망자 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8.사인 판정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이미 죽어버렸다면 왜 귀중한 한 번의 검사를 헛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의사는 그렇게 생각해 사인으로 신형 코로나를 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는 특히 그렇다. 이것이 요양시설이나 양로원등의 데이터에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9.정부 관계자에겐 신형 코로나 정보를 숨기는 인센티브가 있을지도 모른다. 중국 인도네시아 이란의 통계는 모두 당국의 관리 하에 놓여 있다. 통계 속임수는 미국에서도 또 다른 장면에서 볼 수 있다. 정부 당국이 조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10.1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또는 평균이 다른 모든 곳에 적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일부 소규모 연구에서는 신형 코로나 치사율이 감염자의 약 1%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전 국토, 또는 뉴욕시 전체에서 같으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 특정 지역에서는 의료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인구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치사율이 훨씬 나쁠 수 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관찰하는 것은 시간이나 에너지의 완전한 낭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숫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정한 감각을 알려준다. 다만 거기에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캐시 오닐 씨는 대학교수와 헤지펀드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수학자로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입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반드시 편집부나 블룸버그 엘피, 오너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대응" 중국 중앙정부 정책

<과학기술>

1.생태환경부: 식수 수원지의 수질, 전체적으로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음

(2020.02.23)

생태 환경부는 22 일에 코로나 발생이래 환경 품질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의 도시 환경 전체적으로 보면 공기, 지표수, 식수 수원지의 환경 생태의 질은 유지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코로나 발생 이래, 생태 환경부는 즉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한 생태환경 비상점검에 관한 통지>를 배포하여, 전국 각지 생태환경분과에서 공기, 지표수, 특히 식수수원지 환경을 점검하도록 했다.

생태환경부는 방역 과정에서 소독제 과다 투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식수 수원지의 상규 모니터링 지표에 여염소 등 특징 지표를 추가로 측정하고, 관련 기술문서를 제출하여 모니터링과 방역에 대한 규정을 지키며, 관련 부서도 의료 폐수, 하수 처리 시설 수질 모니터링 지침을 내렸다.

생태환경부는 식수 수원지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감염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생태환경 부문은 2 월 1 일부터 19 일까지 식수수원지 6900 여 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식수수원지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중 994 개의 식수수원지에서 여염소 모니터링이 실시되었고, 7 개의 식수수원지에서 여염소 검출되었으며 여염소 농도가 수돗물 공장의 출수 기준보다 낮으며 기타 식수수원지의 여염소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후베이성 (湖北省) 식수수원지의 수질은 모두 기준치에 달하며, 우한시장 강사모(长江纱帽), 한강종관 (汉江宗关), 창장 양사항 (长江杨泗港), 창장둔커우 (长江屯口), 한강금구(汉江琴口) 등 주요 식수수원지의 수질은 표준 수치보다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

2 월 1 일부터 20 일, 전국 각 성급 생태 환경 부문은 각 지역 의료기구, 도시 오수 처리 시설의 수질에 대해 감독성 모니터링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우한시 휘션산 (火神山) 등 특정 병원 63 곳의 오수 처리 시설 수질 모니터링을 하였다. 출수여염소농도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GB18460-2005)에 부합하며, 도시하수처리시설의 출수여염소는 모두 검출되었다.

또한 2 월 1 일부터 19 일까지 337 개 도시의 날씨는 평균 이상으로 우량 등급의 비율이 8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포인트 상승하였다. 전국에서 지표수 I 부터 Ⅲ류 수질단면비율은 87.3%이고, IV류와 V류의 수질단면비율은 10.8%, 불량 V류 단면은 1.9%, 지난해에 비해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

1.각급 재정 배정 자금 718 억 5 천만 위안 전염병 방지에 사용 (2020.2.11)

● 조혜 및 중점 기업 ●업무 복구 지원 전력 지지

재정부와 발전개혁위, 산업정보화부, 인민은행, 감사서가 9 일 오전 합동으로 전국 TV 전화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 중점 기업자금 지원사업을 위해 동원했다. 이 자리에서 류곤 재정부 장관은 8 일 오후 6 시 현재

각급 재정에 718 억 5000 만 위안(약 1 조 5000 억원)이 배정돼 315 억 5000 만 위안이 실제 지출됐다고 밝혔다.이 중 중앙재정은 총 172 억 9000 만 위안이 배정됐다고 말했다. 5 부위는 7 일 합동으로 '전염병 방제 통제전, 전염병 방화 강화, 기업자금 지원 강화에 관한 긴급 통지문'을 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 관련 부처가 많으면 지역별, 각 부처별로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를 내고, 정책적 효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신속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시간을 두고 경쟁하며, 관련 기업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혜자금이 모두 방제 관련 생산활동에 사용되도록 하고, 조해 및 방제 중점보장업체와 피해 근로자, 기업과 지역에 대한 자금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2.세무총국: 세관조율 적극 조정, 기업난 해소에 도움 (2020.2.11)

국가세무총국은 10 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세기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염병 예방통제 저격전 약간의 조치에 노력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조세관리 조치를 적극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통지문은 전염병 방지 대책을 지원하는 조세 우대 정책을 중단 없이 실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전염병 방지 세수 정책을 지지할 정치적 책임을 굳게 짊어지다. 2020 년 2 월 1 일과 2 월 6 일 사이에 '6 세(六税)'와 '양비(两费)'가 관련된 12 개 정책 및 지방이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 내놓은 시책에 대하여, 적시에 조정 정보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내부 교육을 강화하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가급적 온라인 방식으로 납세자·납부인에게 정책홍보 과외를 실시하고, 발개·공신 등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며, 정책이 간명하고 편리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납세자·납부자가 적시에 전면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고, 신고하도록 한다. 다른 세제 혜택, 특히 국가가 시행하는 더 큰 규모의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정착시키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비접촉식' 세금 납부 비용을 심층적으로 확대해 전파 위험을 확실하게 낮춰야 한다. 세무 총국은 세금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온라인에서 처리한 목록을 게시한다. 각 지방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납부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스스로 납세자를 요구하거나, 납부자는 세무 서비스청이나 정무 서비스청에 가서 명세서에 명시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통지문은 또 조세관리 조치를 적극 조정해 피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법에 따라 납세기한을 연장하다. 2 월 신고 납세기한을 연장해 주는 대신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법에 따라 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위독지역은 차량취득세 등 순차 신고세 납부 납세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 위약 사유로 납세신고를 기한 내에 할 수 없는 경우 유예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세금 납부를 연기하다. 부실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특히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유예 신청을 법에 따라 신속히 심사해 자금 압박을 완화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영수증의 공급을 확실히 보장하다. 의료구제설비, 측정기기, 방호용품, 소독살균액,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에 중점을 둔 물자 및 그러한 물자에 대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부가세 영수증의 "증판"과 "증분"을 신청하는데, 그 영수증의 수량 수량과 최고 개표 한도를 당분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실사하지 않아도 된다. 조세범법 위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중 납세자의 생산경영에 변화가 생겨 세금계산서 수령액과 최고발행한도를 낮춰서는 안 된다.

—세무 법 집행 방식을 최적화하다. '위험 불감증, 무허가, 무허가 무불법정표'의 요구가 한층 더 정착되고, 사건 분석을 위주로 빅데이터의 강점을 충분히 살려

'인터넷+감시'를 심도 있게 추진한다. 신고기간 중 직접입호검사를 줄이거나 미루고 납세자의 생산경영 소재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본급 세무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통제 또는 종료 후 처리할 수 있다; 세무 서비스청에서 실명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등록증, 신분증 등을 검사하여 검증하고, 얼굴 인식 검증은 당분간 요구하지 않는다; 방역을 빙자해 세금 혜택을 가로채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등 조세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에 따라 단속해야 한다.

—법에 따라 권익 보장을 강화하다. 발생 위험의 영향을 받은 연체 신고 또는 기한을 넘겨 관련 자료를 송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관련 기록은 납세신용평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대로 비정상 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복의신청자가 방역의 영향을 받아 법정신청기간을 지체한 때에는 신청기간은 그 영향이 소멸된 날부터 계속하여 산정한다; 행정복의청문 등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심리를 중지하고, 발생의 영향이 해소되는 대로 즉시 회복한다.

3.재정부,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법 시행과 재정자금 관리 강화 (2020.2.19)

재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 하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정책 정착과 재정자금 감독 강화 기업 복귀 지원, 경제운용 보장 등을 위해 '재무부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 정책 및 재무자금에 관한 통지 (이하 통지)'를 제정했다.

'통지'에서는 각급 재정 부처에 대한 조세 인상 및 정책조치 정착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황과 문제점을 적시에 반영하고 환자, 의료위생기관, 의료 종사자 및 역학관계 파악을 위한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급의 재정 부문에 전염병 예방 통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재정자금 관리와 감독 방식은 각급 재정 부처에 자금조달 우선보장과 관리자금 지급, 기초방역 및 방역 지출수요의 확실한 보장을 요구한다. 또한 방역대장을 만들어 각종 방역자금을 실시간으로 지급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회에 공개하며,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 받아 위반사항을 엄격히 조사한다. 정책 정착과 자금 사용을 위한 예산 성과 관리 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자금을 적소에 사용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각급 재정부는 관련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감독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방역에 더욱 집중하며, 효율적이며 질서 정연하게 관리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의료>

1.중국 국가위생위원회 판공청,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판공청: 코로나 19 등 전염병 방제에 있어서 건전한 중의학 협력 체제를 확립 (2020.2.12)

중국과 서양의학이 공동으로 난관을 뚫고, 서로 보완하여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폐렴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비교적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 중국 국가중약관리국

판공청은 12 일 합동으로 코로나 19 등 전염병 퇴치를 위한 중서의학 공조 체제를 더욱 튼튼히 하고, 한의사 연합회의 진료제도를 강화해 임상 치료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폐렴 등 전염병 퇴치 작업에 있어서의 중국 의학 협력 체제의 건전한 구축에 관한 통지'에 따라, 각급 보건건강행정부는 중의약 주무 부처와 코로나 19 폐렴 등 전염병 퇴치를 위한 한의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성급 전문가팀을 구성할 때 한의사 전문가를 일정 비율 포함시켜야 한다. 각 치료기구는 요구에 따라 중의약 참여 진료 방안 수립, 공동실사, 다학과 회진, 병례 논의를 병원 관리 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지의 역량이 강한 한의원의 협력 체제를 장려하여 중의약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보건건강 각급 행정 부처는 중의약관 주관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한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한의사 연합회의 진료제도를 완비해 중의약이 전염병 방지와 임상구호에 깊이 개입하도록 지시했다. 전염병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전염병 치료에 참여하는 종합병원, 전문병원에 중의과 (중서의 결합과)를 설치한 기구는 긴밀형, 상시화 중서의 공동 회진제도를 건립하고, 진료 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한의과실(중서의학과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한의사의 역량이 약한 기관은 환자 치료 방안 마련과 난치병 치료 사례 검토, 환자 확보에 원외 한의사 전문가를 초대해야 한다.

또 각급 위생건강행정부처는 한의약 주무부처인 한의사 전문가와 현지에 맞는 한의사 결합 진료 방안을 마련해 한의약이 참여하는 진료 절차와 방법을 세부화할 계획이라고 통지했다. 다학과 종합치료를 강화하고, 코로나 19 폐렴 등 전염병 임상치료에 서양의사가 결합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며, 중서의 결합치료를 최적화하여 경증 환자의 조기 완치, 중증 발생 최소화재활기에 한의약의 독특한 역할을 하는 데도 신경을 쓴다.

2.국가 보건건강위원회: 화상전화 회의 소집, 전면적 등급별 전염병 방지 대책 발표 (2020.2.25)

국가위생건강위 마샤오웨이(马晓伟) 주임은 24 일 오후 후베이 우한에서 화상전화 회의를 주재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통제하 중앙 정부와 국무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통제 하 당 중앙의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위기상황은 매우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자 구분과 방역에 있어 더 효율적이고 엄격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바이러스 방역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결연민심, 동주공제, 과학방제, 적시정책'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완치율 향상, 감염율·사망율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하여 6 개 중점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1. 등급별 철저한 방제조치가 추진되도록 하는 것.

호북과 우한은 여전히 전국적인 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엄격한 통제, 이동제한'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한시는 '4 원칙'을 고수하여 완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완치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베이징시는 진입로를 닫아 지역 간 연계 통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시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단호히 차단해 수도 안전을 확보한다. 후베이성 주변과 주요 시는 단속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전국 다른 지역에서는 현 단위로 방역 정책을 실시해, 감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하여 방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긴급대응 정도를 조정하는 것.

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법에 따라 규칙적으로 조정, 적시에 긴급대응 레벨을 낮추거나 중지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4 원칙'을 정착시켜 방역을 차등화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저·중·고 서로 다른 위험 지역의 분류 기준에 따라 '사스' 등의 경험을 충분히 벤치마킹한다. 방역의 효과적인 방법은, "조기 발견, 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치료"로 각 원칙을 정교화하여 진행한다.

4. 업무로의 복귀 및 재생산을 독려하며, 학업 재개한 후의 후속조치를 확실하게 하는 것.

중점 인원, 중점 장소, 중점 부서의 방제 지침을 더욱 세분화하여, 방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순차적으로 조업을 재개한다.

5.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

의료진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행한다. 방호 요구사항을 엄격히 시행해 원내 감염을 최대한 피하도록 조치한다. 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며, 의료질서를 규범화하고 의료진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또한 전염병에 맞서 싸우는 의료인 표창 사업을 가속화한다.

6. 과학 연구를 진행하며, 신문 홍보와 국제 협력 업무를 강화하는 것.

약품과 백신 개발을 더욱 강화한다. 당 중앙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며, 각 지역에서의 방제를 을 심층적으로 보도한다. 전염병의 발생 정보를 발표하여,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낸다.

본 회의에서는 과학적으로 통제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여 반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방위태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지방과 부서의 참여를 이끌며, 각 부서의 직책을 강화하여 각종 통제 조치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감염 중점 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방역 상황이 심각한 성과 규제가 취약한 성에 대한 분류 지도를 병행해야 한다. 관내 의료 자원을 일괄적으로 조달하고, 대중이 일상적으로 진찰을 받고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체계적인 제도의 틀을 보완해 위생적 응급과 전염병 예방능력을 확실히 높이고,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본 회의에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위생건강위 각 부서, 주재위 기검 감찰팀, 관련 직속 기관, 국가중 의약관리국 기관 등이 참석하였다. 각 성(구, 시) 및 신장 위생건강위는 주로 책임자급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국무원의 연합방어체제에서 파견된 30 개 감독팀이 각 감독성에서 회의에 참가하였다.

<정책>

1.《코로나 19 고위험지역 및 감염노후기관 통제지침》 발간 (2020.2.26)

신관폐렴에 대한 중앙통괄적인 추진과 경제사회발전사업의 회의정신을 관철하고, 신관폐렴에 대한 고위험 지역 양로기관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후베이성, 특히 우한시의 방제업무를 결합하였다.

민정부는 25 일 '양로기관 신관폐렴 방지지침' 2 면에 '신관폐렴 고위험지역 및 감염노후기관 통지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배포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1, 2 면에 비해 적용대상이 5 가지 특징이 명확히 있다.

첫째는 적용 대상이 더 명확하다는 것이다. <지침>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汉)시 등 고위험 지역의 양로기관, 비고위험 지역에서 이미 감염 사례가 있는 양로기관에 주로 적용된다. 중저위험 지역, 감염 사례가 없는 노후기관은 '양로기관 신관폐렴 방지지침'(2 판)을 계속 시행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관련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둘째는 출입관리가 더 엄격하다는 점이다. 지침서는 비특수차량은 노후기구 진입 불가, 노후기구 문 밖에 물자인수구역 설치, 인원 및 물자 소독작업 완료를 요구하고 있다. 경비원의 당직을 강화하여 외래인의 병원 출입을 중지하는 모든 서비스 행위나 활동, 작업자는 양로기관 내에 거주하거나 집중 독립된 장소에 거주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노령기관 노년층과 근로자의 출진만 엄격히 하고, 특별한 사유로 입원과 재입원, 신규채용은 14 일간 격리 관찰하고 정상검진을 거친 후에야 연금기구에 들어갈 수 있다. 노후기관은 지역화된 통로의 관리 모델을 엄격히 시행하고, 오염지역, 완충구역, 청정구역을 설정하며, 규범적이고 엄격한 구역별 관리절차, 조작규정을 수립하고 엄격히 시행한다.

셋째는 노인방역보호조치가 더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실내 무인 상황에서 자외선 소독이 가능하고, 호흡기 등 신체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노인용 신발과 신발을 제때 교체하며, 노인의 실내 단체 활동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지침이다.

네 번째는 내부통제가 더 정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침》은 의료 및 영양 결합 기관은 전염병 발생 기간 동안 발열 환자의 진료 조사 활동을 제멋대로 실시해서는 안 되며 기관 내 교차 감염 위험의 위험을 확실하게 해소한다; 양로기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며, 특히 노인을 돌보는 작업자를 밀접하게 접촉하여 근무할 경우 2~3 단계 보호를 수행해야 한다. 직원들은 대면하는 집중 교대를 중단하고 동영상이나 다른 방식으로 전개하며, 매주 노인 이불을 널어 말리고 있다. 노인들은 재채기, 기침, 가래침을 뱉은 후 해당 구역에 소독제를 뿌려 살균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전염병 처리가 더욱 과학적이어야 한다. 지침서는 외출한 노인과 동반 근무자는 14 일 동안 격리 관찰하고 정상검진을 한 후에야 양로기관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제 부서는 자발적으로 양로기관에 가서 핵산 검사를 실시하여 진료를 받을 때의 교차 감염을 예방한다. 노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의심 증상을 보이면 즉시 지정 기관에 진료하고 격리 지점에서 치료 관찰한다. 노인이 의심환자 또는 감염사례로 판명된 경우에는 거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즉시 발생 모니터링 요청에 따라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에서 전면 소독을 실시하고 노인 및 작업자 전원에 대해 핵산 검사와 14 일 격리 관찰을 실시한다.

2.민정부 출범-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담화 정신 및 코로나 19 방지와 현 민정사업의 일괄 추진에 관한 의견 (2020.2.28)

2 월 23 일 시진핑 총서기의 신관폐렴 추진과 경제사회발전사업 배치 회의에서의 중요 담화 정신을 심도 있게 학습하기 위하여, 최근 민정부는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담화 정신 관철에 관하여 신관폐렴 방지와 현 민정사업의 일괄 추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 을 출범하였다. 각급 민정 부서를 지도하여, "두 개의 유지"를 실천하는 것부터, 사상과 행동을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담화 정신과 당 중앙 의사 결정 배치에

확고히 통일시켰다. 더 강도 높은 대책으로 민정시스템의 방역작업을 틀어막고, 각급별로 주도면밀히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의견'은 4 개 방면에서 민정분야의 방제 및 당면과제에 대한 배치를 하고 있다.

하나는 법과 과학에 따라 민정 시스템의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의견'은 현재 민정 시스템의 방역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과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급 민정 부서에 서비스 대상자를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각종 민정서비스 창구를 치밀하게 통제하고, 후베이성, 우한성 시스템의 방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약세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하는 등 강력한 방어를 지속한다.

둘째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지원으로 방제작업의 큰 틀과 관련 기업들의 업무 재개다. '의견'은 민정(民政) 업무의 기능을 보다 잘 발휘하여 비(非)방역 중점 지역의 각급 민정 부문을 구분 및 구별로 나누어 민정 서비스 기관을 정상으로 복귀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피해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관련 특수군에 대한 배려, 사회단지 통제망 강화, 자선사회조직전문회사공과 자원봉사자 등의 역량을 활용해 대대적인 피해복구에 나섰다.

셋째는 각종 민정 업무를 더욱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의견》에서는 전면적인 소강 사회 건설과 결전의 빈곤 퇴치를 위한 각종 목표를 세우고, 각급 민정 부서는 빈곤퇴치의 기초를 확고히 하고, 기초적인 민생 보장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다. 질서 정연하게 기초사회의 기초를 다지고, 기본사회의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민정치의 체계를 심화하고 통치능력의 심층적인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민정 시스템의 전면적인 전개를 꾸준히 추진한다.

네 번째는 각급 민정 부처들은 책임감을 더욱 더하는 것이다. '의견'은 당 중앙의 각종 의사결정 배치를 철저히 틀어쥐고, 각급 민정부서에 사상인식과 정치역량을 높이고, 조직지도를 강화하며, 연이은 계획 수립 정신과 우수한 인술 능력을 발휘하여 선전을 강화하고 민정분야의 역학 통제와 현재의 각종 민정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강인한 정치와 조직을 보장한다. 한편 민정부는 최근 후베이(湖北)베이징(北京)허난(河南) 헤이룽장(黑龍江) 저장(江蘇) 충칭(重慶) 등 8 개 실무진을 파견해 민정 분야의 역학조사와 연중 각종 민정 추진을 총괄하고 있다.

<취업>

1.인력자원 사회보장부 판공청, 코로나 19 예방 통제 기간 인력자원 서비스 관련 사업을 실제로 잘 할 곳에 관한 통지 (2020.2.21)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은 최근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19 에 대한 방제 진전과 복구 수요를 결합해 코로나 19 발생에 대한 대응, 고용 촉진, 서비스 발전, 안전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을 통보했다.

각 지역의 다양한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들이, 자신의 실재와 결합하여, 중점적으로 8 가지 측면을 둘러싸고 인적자원 서비스를 전개해야 한다: (1)중점 단위의 고용 서비스를 강화한다. 방역 강화, 공공사업 운영, 군중 생활 필수 등 국가 민생과 직결되는 중점 단위이며, 특히 방역 업무와 직결된 생산 운송 단위의 고용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정교하게 제공한다. (2)온라인 구직 채용을 강화한다. 다양한 온라인 구직 서비스 모델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대학교 졸업생, 농민공 등 중점 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구직자의

취업 선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보다 우수하고 편리한 온라인 채용 서비스 플랫폼을 조성한다. (3)온라인 교육을 확대한다. 방역 기간 중 고용 기관과 근로자의 취업 창업, 기능 향상 등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온라인 학습, 생방송 수업 등을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다양한 유틸리티와 다양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4)인적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인수인 단위의 방역 기간 중 인력 채용, 직위 발표 등 인력 관리의 수요를 자발적으로 조정하고 인력 활용에 도움을 주는 부서가 좋은 인력을 모집한다. (5)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의 방역 정책선전을 잘한다. 방제 기간 중 고용안정, 노동관계, 사회보장, 인재인사 등의 정책조치를 전면적으로 심층적으로 교육한다. (6)종업원을 실제로 배려한다. 공고, 온라인 소통 등을 통해 직장 근로자, 특히 전염병 심각한 지역에 체류하여 제때 복귀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직업발전 상담, 심리건강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 (7)산업단지 합동서비스를 강화한다. 공단 내 인적자원서비스 기관을 순차적으로 업무에 복귀시켜 공단의 독특한 강점을 살리고, 맞불 수요, 온라인 전용장, 체인 서비스 등을 활성화한다. (8) 인적 자원 서비스 수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대학교 졸업자, 농민공 등 취업 중점 인력을 중심으로 인적자원 서비스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져본다.

직업소개를 제공하는 인적자원봉사기관에 대해 각 지역이 규정에 따라 취업창업서비스 보조정책을 정착시키도록 통지한다. 감염방지 중점단위에 인적자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직업기능훈련과 관련된 요건에 부합하도록 규정에 따라 보조금 종류의 훈련 범위에 포함시킨다. 방제 기간 중 역할을 하는 인력서비스 기관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 인센티브 지원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통지문은 인적 자원 서비스 기관이 전염병 발생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예방 관리의 중점을 담당하는 부서를 위해, 채용 서비스 비용을 적절히 감면하도록 장려한다.